금주법구

한 마음이 깨끗하면
여러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 마음이 깨끗하면
팔만사천 다라니문이 다 깨끗하다.
-원각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천흥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2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305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지리산의 세 스님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 계곡에는 '물봉선'이 살고 있다. 맑고 서늘한 계곡에서만 자생하는 물봉선은 나비가 앉는 것은 허용하되, 사람의 손길에는 질색을 해서 '나를 건드리지 말아요(touch-me-not)'란 꽃말을 갖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난개발로 능욕당하고 있는 우리 산하의 하소연을 대신 말하는 것만 같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리산 자락에 귀 밝아서 일찍부터 물봉선의 신음소리를 들고 함께 앓아온 스님들이 있다는 사실. 실상사의 수경 · 연관 · 도법스님이 그들이다. 50대 초반으로 세납도 비슷한 이 세 스님은 선승이면서도 자연과 인간을 함께 살리는 화두를 풀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득도 이후 참선만 해온 수좌출신의 수경스님은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지리산과 낙동강, 새만금 갯벌 살리기를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다. 화엄학림 학장인 연관스님은 화엄사상의 현대적 정립을 위해 정진하면서 수십년간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지리산의 생태계를 보살펴 왔다. 실상사 주지이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인 도법스님은 부합한 논리와 입관성 있는 실천을 겸비해 사회에서도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자연을 닮아 맑기만 한 이 세 스님이 이번에는 '맑은 물 푸른 산 숨쉬는 갯벌'을 주제로 나란히 100일 기도와 백두대간 종주에 들어간다.

수경스님과 도법스님은 16일 지역 종교인들과 함께 100일 기도 입제에 든다. 이 결사는 동 · 서 · 좌 · 우 종교간 화합 기원 백두대간 종주(16일 출발), 지리산 도보순례(5월 6일~25일), 지리산 좌우익 희생자 해원상생 천도재(5월26일 경) 등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자적인 실천행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국내 정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상극의 말법시대로 치



닫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기도 하다.

도법스님은 100일 기도 이후 화엄학림 출신 스님 8명과 함께 1000일 결사에 들어가, 한국불교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관스님은 53세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80여일간의 백두대간 종주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자연과 사람을 함께 살리는 진정한 방생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이런 스님들이 있기에 한국불교의 미래는 아직 어둡지만은 않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장 군 죽 비

◇실상사 도법스님 '산 · 강 · 갯벌 살리기' 1000일 기도 입제(2월 16일). 오염된 산하 봄심으로 정화한다. (1면)

◇재가연대 행복한 NGO활동을 위한 명상학교 개교. 불행한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법. (5면)

◇어린 딸을 살린 아버지의 투신. 천사의 날개보다 더 아름다운 부성의 날개! 부디 부디 극락왕생하시길…. (8면)

◇2월 1일 경불련 '어머니 환경위원회' 발족.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는 '아버지'들에게 적색경보. (20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부당 이득금 아니다"

서울지법, 천은사 상대 참여연대 반환소송 '기각'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16단독부(판사 신종렵)는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2일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서부지원의 이번 판결은 사찰 문화재의 범위, 관람 행위의 개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참여연대가 신흥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립공원 제도와 문화재 정책, 관람료 사찰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등이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계종 기획실은 선고공판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찰이 국민들의 민족문화 향유와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해 5월 천은사와 신흥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는 천은사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국립공원에 입장할 목적으로 천은사 근처를 지나쳤을 뿐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었으며, 관람하지도 않았는데도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어긋난다"며 관람료 1000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소송을 낸데 대해 천은사와 신흥사, 조계종 총무원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별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천은사의 범위는 천은사 경내지이며, 따라서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천은사를 관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판결 직후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논평할 수는 없지만,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자비의 바자회 조계사가 주최한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 '자비의 바자회'가 2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까지 일주일간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계속된다.
1일 개막식에는 대통령부인 이희호 여사,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하 조계종 종회의장, 지홍 조계사 주지, 임면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박상규 · 조성준 · 추미애(이상 민주당), 손학규 · 전재희(이상 한나라당), 송광호(자민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총무원장 부존재 소송 '각하'

서울지법 "이유없다"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전병삼)는 2일 정화개혁회의측 정영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자격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청구 취지 내용에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정화개혁회의의 부당한 주장이 세속의 법정에서도 불법적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99년 12월 '98년 11월 당시 종정이었던 월하스님에 의해 해산된 중앙종회에서 개정한 종헌, 총무원법, 총무원장선거법에 근거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영스님은 서울지법의 각하 결정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스님은 또 1월 16일 서울고법의 중앙종회의원 자격상실 확인청구 소송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판결이었다"며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성운 기자

"지리산댐 불필요"

낙동강물이용조사단 수계조사

정부의 지리산 댐 건설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은 1월 18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리산-낙동강 수계 제4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기존 댐을 잘 관리하고 최적화하면 낙동강 목표수질 2급수 달성에 필요한 유지유량(79CMS)에 버금가는 물의 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갈수조정댐 건설이 필요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수경스님은 "조사단의 보고서가 지리산댐의 부적합성을 간접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 여당은 내년 대선에 지리산댐 건설 계획을 부산 및 경남지역의 표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다시금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상반기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포기'란 문구는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방북시기 통보요청

조불련, 종단협에 팩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박태화)은 1일 25일 종단협의회 앞으로 팩스를 보내 종단협 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관련, "평양 방문 시기와 대표단 구성, 초청에 필요한 개별적인 인적 사항들을 빨리 보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이에 따라 곧 공식 절차를 거쳐 방북 여부와 대표단 구성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4개 종단 총무원(통리원)의 부장급 1명씩과 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사부국장 등 6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협의회와 조불련은 지난 해 12월 북경에서 만나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를 5월 말~6월 초 개최하며, 3월경 종단협의회 대표단이 방북해 실무접촉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불련은 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등에도 팩스를 보내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단집
02-725-2030 / 725-2040

'종교개혁 네트워크' 4월 구성

재가연대 등 종교단체 'NGO 연대기구' 제안

종교개혁을 위한 종교 ·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와 기독시민사회연대, 천주교 우리신학연구소는 1월 30일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3대 종교 NGO 기획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26일 공동개최하는 '한국의 종교권력과 시민사회' 주제의 심포지움에 앞서 종교 ·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교개혁을 위한 NGO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구성된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위원회에 참여한 50여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또 4월 26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는 '종교권력과 시민사회' 심포지움을 통해 '종교개혁' 논의에 불을 붙일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달라이 라마 방한 정부 연내허용 시사

정부 당국자는 1월 30일 달라이라마의 방한문제에 대해 "이미 양국 정부는 지난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때가 되면 접점이 발견되지 않겠느냐"고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허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 지사 · 지국 모집

불법 홍포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신문 홍보와 구독 확장, 광고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1. 모집 지역(11개 지역)
   - 강원북부 : 춘천, 철원, 양구 일원
   - 강원남부 : 원주, 영월, 정선 일원
   - 경기 :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 충주, 제천, 진천 일원
   - 충남 : 서산, 당진, 아산 일원
   - 경북 : 문경, 상주, 예천 일원
   - 경남1 : 진주, 산청, 거창 일원
   - 경남2 : 울산, 양산 일원
   - 전남 : 순천, 여수, 보성 일원
   - 전북 전역 · 제주 전역
2. 활동영역
   - 관할지역 내 신문홍보, 구독확장 및 광고 영업
   - 본사 수익 사업 추진
3. 제출서류 및 기한
   -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기 한 : 2001년 2월 17일(토)
   - 방 법 : 우편(기간내 도착분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 출 처
   -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 직통전화 : (02)737-0090 대표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장인정신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중량 3,300관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사 설

여성부 출범과 불교계 과제

29일 여성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초대 장관에 한명숙씨가 임명되었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동반자로 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 불교계도 좀 더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차별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이 올바르게 조화 협력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모습(二相)에 매달려 인간이라는 하나의 바탕을 망각하는 성관념을 극복하고 인간이라는 평등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볼 때 차별은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相)을 바로 보게 될 때 획일적인 평등화를 지양하여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진정한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계 내 여성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수적인 비율에서나 역할에 걸맞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성신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걸맞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신행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계율의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여성을 수행자로 받아들인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출가 승단은 재가 신도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의 정리가 있어야 한다. 우선은 계율의 적용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 비구니들이 차지하는 종단내의 비중에 걸맞도록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현실을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진취적인 입장에서서 불교계 내부의 여성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다.

불교대 교수임용 또 '잡음'

한국불교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이사회가 불교대학 교수임용을 놓고 소란스러웠다는 소리가 들린다. 원전 연구가 필수인 강좌를 맡을 교수에 전공 언어 분야에 하자가 있는 지원자를 교원으로 뽑겠다고 수차례나 시도하고 있으며, 초빙 공고에 공개된 전공마저 무시한 비전공자의 임용을 제청했다는 것이 시끄러웠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인사 이후에는 여러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번 인사 뒤에 들려오는 말들의 정도가 예전 같지 않다. 비난에 가까운 원성이 무성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번 불교대학 교수 임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이사회에서는 '조건부 승인' 하되 임용 과정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어보자는 계산인지는 이사회가 최종 결정 시한으로 잡은 보름쯤 이후에 밝혀질 것이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학교 재정비와 수도권에 불교병원을 건립하는 등 면모를 일신하여 불자들이 동국대에 거는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는 요즈음이다. 그런데 유독 선도 대학이랄 수 있는 불교대학의 발전만은 지지부진하여 교수초빙마저 매년 이처럼 잡음에 휩싸여 있다. 재단이나 학교 당국이 과연 불교대학의 발전에 어느 정도 신중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동국대 밖의 불교학자들은 동국대 불교학의 폐쇄성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으로 회자하고 있으며, 낙후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를 경영하는 당국자들이나 소속 교수들은 전혀 이러한 현실 감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고착되어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향후 20~30년동안 불교학을 지도할 인재를 임용하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동국대학교가 한국불교 미래에 전혀 희망없는 존재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불교학에 앞서 갈 수 있는 인재를 잘 발굴하여 더 이상 잡음이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종교간 불신의 벽 깬다

URI 정기 대화포럼 · 평화건설 운동 전개

6개 종교 청년 토론회…평신도단체 연대

유엔이 정한 '문명간 대화의 해'를 맞아 종교적 입장에서 세계 문명들을 살펴보는 정기포럼과 종교간 대화모임, 인권 및 종교계 개혁을 위한 종교단체간 연대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URI-KOREA, 대표 진월스님)는 종교간 반목을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력을 넓히기 위해 정기 포럼개최, 평화건설(Peace Building) 운동을 전개한다.

제1회 포럼은 19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 연구원인 김진 박사를 초청해 '종교간 대화의 문명사적 이해'란 주제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인다. 4월에는 유교(성균관대 이세현교수), 6월 불교(진월스님), 9월 기독교, 11월 이슬람교 및 힌두교적 입장에서 본 종교와 문명간의 관계에 대해 포럼을 개최한다.

진월스님은 "이 포럼은 종교로 인한 대립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공존과 화해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김경재)도 5~8일 가평 바람과 물연구소에서 불교 개신교 천주교등 6개종교 성직자 지망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종교청년 대화모임을 갖는다.

공통의 현안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하기 위한 종교단체간 연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주교회의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합의하고 12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 같은 종교간 대화와 단체연대 움직임은 종교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종교계가 협력을 통해 사회제반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교지도자 초청 국정좌담회가 1월31일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잦은개각 등 국정전반에 쓴소리

종교지도자 초청좌담

종교지도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했다.

이한동 국무총리가 1월31일 종교지도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국정좌담회에서 종교지도자들은 대북 정책, 잦은 개각,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지원 파문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충고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정대스님은 "장관 인사를 자주 해서야 언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 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의약분업 등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홍보 부족으로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6.25 전쟁 당시의 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해 정부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관심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동 총리는 "종교지도자 여러분의 의견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부에서 총리와 각부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종연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서돈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하여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수행·사회 참여강화의 해' 선언

20여 재가단체 신년하례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지하철불자회, 여성개발원등 재가 20여 단체는 1월 31일 송현클럽에서 신사년 재가불자 신년하례회<사진>를 갖고 수행과 현실참여에 주력하는 불교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발원했다.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가불자들이 종단과 사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적 신앙관을 확립하여 재가불자의 잠재된 힘을 결집하자"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포교, 불교시민, 여성, 지역신도, 청년, 직장직능포교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김종서(전 서울대교수) 조흥식(전 성균관대 교수) 민병천(전 동국대총장) 명을식(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박광서(재가연대 대표) 김기병(포교사단장) 선진규(전국신도회장)법사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학원 교원 21명 임명

불교대 조건부 승인 물의

동국학원은 1월 30일 제175차 이사회를 열고, 2001학년도 동국대 신규 교원 21명을 새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동국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신규교원 임용제청안과 관련, 신규 임용자 가운데 불교대 4명의 신규교원에 대해 임용 과정 재심사를 실시한 후 8일경 최종 확정하키로 했다. <신규교원 명단 4면>

이번 교수임용에서 중국선종사 분야에는 당초 '초빙 공고'와는 달리 한국불교를 전공한 지원자를 임용하고,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인명' 분야를 임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환경위 이달말 발족

골프장등 사찰환경 침해사례집도 펴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양산)는 90년대 이후 전국 88개 사찰의 환경 피해사례를 수집해 유형별 분석과 함께 대응지침등을 다룬 〈사찰환경침해 사례집〉을 5일 발간했다.

총무원은 이 책자에서 지자체로부터 부적절한 허가 판결을 받았던 해인 골프장건설문제를 비롯해 직지사 상업시설문제와 봉녕사 고층아파트 건설문제, 환경관련 법률자료와 환경 정보를 수록하고 사찰 환경지침과 보존 관리요령등을 포함시켜, 지역 사찰에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조계종은 기존의 사찰환경보전위원회를 확대 · 개편, 2월말 종단차원의 환경전담기구인 환경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영계리포트 배포 유감"

세계일보 종편위에 회신

세계일보사는 1월 29일 종교편향대책위원회에 보낸 회신공문을 통해 "영계리포트는 세계일보의 자회사인 제작단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로부터 수주를 받아 제작 배포된 것이다"고 발뺌했다. 또 "제작 의뢰자측이 편집해온 것을 그대로 인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편향대책위 "세계일보의 사과문 게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1학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① 정규반 ② 근본불교반 ③ 송찬우 교수 통신반

구분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방법(모집인원)
①	월요일	법화경	박종 (동산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보문시현의 원력을 강의 〈관세음 보문품〉	정규반(50명)
	화요일	화엄경	한정섭 (금강선원이사장)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보리장회 강의 〈세주묘엄품, 약찬게, 법성게〉	통신반(30명)
	※ 경전개설과목 : ㅁ 법화경 방편품, 법화경 여래수량품, 법화경 관세음보문품, ㅁ 화엄경 약찬게 · 법성게, 화엄경 십지품, 화엄경 입법계품, 화엄경 보행행원품 ㅁ 금강경, 무량수경, 대승물교, 보성론등 강좌				
②	목요일	아함경의 현기법	최봉수(동국대)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을 관통하는 근본교설 강의	정규반,통신반(각30명)

구분	방 법	교 수	내 용	방법(모집인원)
③	통신강좌	송찬우(승가대)	반야심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유마경, 조론, 능엄경을 송찬우교수의 명쾌한 강의로 통신 수강	통신반 (30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1년 2월 1일~ 2001년 3월 3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① 정규반 : 2001년 3월 5일 (월) 오후 7시
· ② 근본불교반 : 2001년 3월 8일(목) 오후 4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 (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02)732-1206~8 / FAX 02)732-1207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주부 ·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연2회(매년 2월,8월)
■ 모집인원 : 200명

1.교과목

1학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2학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2.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 (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1년 3월 3일 (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1년) 연구반 30명(1년)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2월 1일(목)~ 2001년 3월 3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3시 (동산법당)

※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함.

3.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원서 교부 · 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홈페이지 - http : www.dongsanbud.org

의식법사 전문도량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목어

기록자료가 아쉬운 사찰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로 말미암아 고찰에는 성보문화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화를 입어 사라지거나 화재로 불타버린 것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황금만능주의의 여파로 도난을 당하거나 관리 소홀로 분실된 성보문화재가 부지기수다. 특히 고찰에서 전승되어 오던 기록자료들이 예전에 비해 부쩍 줄어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옛 고승들의 저술이라든지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사지와 같은 기록자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불자들의 책임이 크다.

요즘 사적지를 정리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옛 스님들의 정성을 엿보고 있자면 눈물겨울 지경이다. 각 법당의 건립과 중건, 규모를 자세히 소개하고 법구를 다기 하나 수저 하나까지 일일이 열거해 놓은 선사들의 세심함을 엿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고승들의 어록을 출간하고 싶은 제자들이 평소 스님의 법문이나 일상의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이를 보더라도 기록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싶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말이나 글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 문자를 세운 교리를 뛰어넘어 바로 마음을 꿰뚫어야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선가의 지침이 강세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은 곧 살아있는 역사이며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우를 반복해서 범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새 역사를 일구는데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설이다.

적어도 고찰의 역사적 기록만큼은 어느 절에 가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기록자료를 하나하나 엮어나가는 지혜와 정성이 요구된다.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가람수호나 포교활동 못지 않게 기록자료를 남겨놓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업적이 되는 동시에 불교와 사찰발전에도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본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사찰문화재 범위 폭넓게 해석

관람료 반환소송 기각 의미

관람객 서비스 강화 과제로
"합동징수 민원대책 급선무"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문화재 관람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단독16부가 원고 패소를 내림으로써 이후 합동징수 제도와 관람료 사찰의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방안 마련이 중대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소송은 조계종으로서는 매우 껄끄러운 것이었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이고, 패소했을 경우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조계종이 부당이득금을 챙기는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이긴 하지만 서부지원의 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문화재의 범위, 관람 행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아직 판결문이 소송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기각 판결의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화재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야 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로 들어올 경우 관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천은사와 조계종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천은사와 조계종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문을 통해 "사찰의 문화재는 하나 하나가 독립하여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당해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사찰 전체와 그 수행환경, 주변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 등이 일체가 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천은사 매표소로 들어온 입장객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천은사에 소재한 유형문화재는 물론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천은사의 구성 부분인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과 주변의 경내지를 관람할 수 있다"며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를 관람료 징수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군화재관람료를 함께 받는 합동징수 제도가 계속 실시될 경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이용자의 저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이다. 이는 조계종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직후 구성된 특별대책위는 당시 성명을 통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시비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계종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년간 국립공원입장료 수입이 200억원(99년)인데, 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보다 먼저 징수했으므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해 징수 저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에게는 관람료사찰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내방객들에 대한 포교는 물론 문화재에 대한 안내만큼은 해야 한다. 사찰의 문화재가 숭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상들이 남긴 값진 문화유산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단지 보는 관광이 아니라 공부하고 체험하는 답사의 의미로서 관광의 형태가 변화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불자는 "팸플릿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찰이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면 문화재관람료 징수 저항이나 참여연대의 소송도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유사종교 가입 사실무근"

태고종 종연 총무원장 1일 담화문 발표

"3사 배제설 근거없어 사찰재산 헌납설 날조"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부터 일부 스님들에 의해 제기돼 온 '가야산 유사종교단체 가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음해"라고 해명성 담화문을 발표했다.

1일자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종연스님은 "3년 전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가야산에 소재한 (사)의식개혁운동중앙회를 찾아간 일은 있지만 그 단체의 수련방법이 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었기에 곧 관계를 끊었다"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심취해 있고 그 단체의 간부직에 있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음해로, 본인은 누구보다도 부처님과 불법을 위해, 또 태고종단을 위해 봉사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단체에 거액의 사찰재산을 헌납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그 땅을 제주에 거주하는 강모씨라는 개인에게 매도했고, 매매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날조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3사(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서울에 있는 태고종 3대 사찰)를 배제시킨다는 설에 대해서는 "서울 3사가 태고종의 중심사찰로 태고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 이러한 3사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자리에 동석한 규찰부장 수보스님은 "적법하게 선거에 의해 당선되고 공식적인 취임식까지 가진 종연 총무원장에 대해 일부 스님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해종행위자로 간주해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스님들이 참회하면 관용을 베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종단을 와해시키는 행위로 간주, 종법에 의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종연스님은 지난해 11월 23일 운산스님(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과 2차까지 가는 투표에서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총무원장에 당선된 이후, 인공스님(봉원사 주지) 대은스님(종무원장협의회장) 원법스님(전 부원장) 등 일부 스님들에 의해 "자격없다"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이들은 "가야산에 소재한 유사종교단체에 심취해 있고 사찰재산을 헌납했다" "3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다" 요지의 청원서 및 성명서를 잇달아 교계 신문에 광고로 내며 종연스님이 총무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조속히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종연 스님

대은스님 등은 3월 열리는 임시종회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총무원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당사자들을 해종행위자로 간주해 강력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귀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월 19일 총무원을 예방한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정대스님 李 총재 비판발언 이후

"부적절한 발언" 쏟아지는 비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한 비판 발언 이후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비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서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종교와 정치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대스님은 1월 19일 총무원을 예방한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총재)이 집권하면 단군 이래 희대의 정치보복이 난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을 했다.

정대스님의 발언 직후 스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계종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1월 20일부터 2일까지 6천여건의 의견이 올랐다. 대부분 정대스님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홈페이지 의견 6천여건 올라

사서실 기능강화 舌禍 사전에 방지

정대스님의 이 총재 비판 발언이 우발적이었건 의도적이었건 조계종의 신뢰를 실추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총무원 주변에서는 사서실의 기능을 강화해 설화(舌禍)를 예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 스님은 "사서실은 의전과 일정 조정, 정책 보좌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계종의 입장을 대외에 밝힌다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잣대로 삼아 해법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서실은 의전과 일정 조정에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외부 인사의 총무원장과의 공식면담, 행사 참가 등의 일정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부 인사가 총무원장을 예방해도 해당 부서에서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대스님의 발언을 계기로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천구 영산대총장은 "불교가 정치에 대해 갖는 관점은 참여적이면서도 갈등을 순화하는 이상적인 정치문화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정치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의 이념이며, 정교 분리의 현대 국가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불교도들은 악한 통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지 않으며, 우선 스스로가 그를 감화할 수 있는 높은 인격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부처님을 향한 원력으로 세속의 정치를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중국어(한의대입학과정)과		■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24일까지
· 전 형 방 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02)511-1080
E-mail : samhwade@kornet.net
· 일본동경분교 TEL 047)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한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 : 25-6798171 팩 스 : 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팩 스 : 02-511-1080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511-2026~8
FAX : 02)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일주문



고운사 회주에 추대

근일 부석사 주지는 1월 10일 열린 조계종 제 16교구 고운사 교구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고운사 회주에 추대됐다.



독일 순회 강연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3~8일까지 수행, 환경, 평화통일을 주제로 독일 순회강연을 갖는다.



생보자에 쌀·성금 전달

법경 서울 능인정사 주지는 17일 생활보호대상자인 김윤찬씨와 이시우씨 등 20여명에게 금일봉과 쌀을 전달했다.



한민족작가연합 회장

고은 시인은 최근 전세계 한인작가들의 연합체인 세계한민족작가연합(WKWN)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네팔의료봉사차 출국

이근후 불교상담개발원장은 네팔에서 열리는 의료봉사에 참가하기 위해 3일 출국했다.



대청정보시스템 대표

김병규 前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1월 30일 열린 (주)대청정보시스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생활속의 참선 특강

박희선 국민대 명예교수는 10일 오후 3시 전북불교대학에서 '생활속의 참선과 건강'을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인 사

동국대 신규교원 ◇서울= △묘주스님(불교학과) △우재선(불교학과) △안형택(경제학과) △최영균(광고학과) △강호덕(산림자원학과) △권승구(생명자원산업유통학과) △김삼동(전자공학과) △백낙훈(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한철호(역사교육과) △안재섭(지리교육과) △정진헌(영상정보통신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경주= △윤영해(불교학과) △진월스님(선학과) △송민영(영어영문학과) △강법주(정보통신공학과) △장규태(한의학과) △김근우(한의학과) △김정석(의학과) △신동필(의학과) △김도균(의학과) △고병원(의학과)

"불음 실은 선율로 극락 만들죠"

신사년을 뛰는 **우 바 이** ④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 형 진 단장



"부처님 가르침을 서양 음악의 언어로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불자들이 좀 더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사찰과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많이 열 계획입니다."

불교계의 유일한 클래식 전문 포교 연주단체인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형진 단장(47)은 올해의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실제로 창단 3년째를 맞는 니르바나 실내악단은 4월 1일 대전 공연을 시작으로 4월 8일 대구, 4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 등 벌써부터 빡빡한 연주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동구권 지휘자를 초청해 수준 높은 음악을 연주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국악이 주류를 이뤄 서양음악의 활동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불교음악계지만 국민들 대부분이 초등학교때부터 서양 음악을 배워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포교하기가 더 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KBS교향악단에서 15년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활동했던 강단장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여년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던 오빠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잠실 불광사에서 알게된 황득효 보살의 무주상 보살행에 감동을 받고서부터다. 황보살은 강단장의 오빠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공기 좋은 사찰에도 데리고 가는 등 친아들처럼 보살펴 주었다.

"제가 평생 배운 것이 음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성공양을 통해 불자들이 신심을 길러 정법을 펼칠 수 있도록 포교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위에선 다들 열악한 환경의 불교음악계에서 모험이라고 한사코 만류했지만 강단장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가 주류를 이룬 니르바나 실내악단을 만들어 정통 클래식을 비롯해 국악과 서양음악을 혼합한 클로스오버, 찬불가,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불자들에게 선사했다. 또 폴 칼슨 등 미국 음악가를 초청해 협연하기도 했으며,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진천 보탑사 등 전국 각지에서 50여회에 걸친 사찰음악회와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3년전부터 매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7일7야 3천배 정진에 참가할 정도로 불심도 돈독한 강 단장은 불교 음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불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도 2~3년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수도권 문화·복지 포교 앞장"

천태종 관문사 2대 주지 **춘광** 스님



"관문사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포교의 중심사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일 취임식을 가진 천태종 서울 관문사 제2대 주지 춘광스님은 관문사가 지역사회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를 극대화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종교, 복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사업에 역점을 두어 대사회적 목적사업 참여를 본격화하겠다는 것.

스님은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불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 수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개관한 성보전시관의 전시내용을 보다 다양화하고 관문사의 각종 공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불교포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한다.

춘광스님은 지난 71년 상월 원각대조사를 은사로 득도, 대성사 성룡사 삼광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총무원 교무부장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8년부터 99년까지 부산 삼광사 주지를 맡으면서 삼광학술상 제정, 한글학교 설립, 삼광차문화연구보존회, 불교전통꽃꽂이회, 전통요리연구보존회 등을 설립, 불교전통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경숙 기자

"환경보전 주부실천에 달렸죠"

경불련 환경위원장 **정혜옥** 보살



"수질오염의 주범이 생활오수라는 사실은 생활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 보살들이 환경의식을 갖고 가정과 사찰에서 작은 환경운동을 펼치는 것이 청정국토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1일 서울 미아동 자비의집에서 주부 회원 37명으로 출범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은 정혜옥(49·법련화) 보살은 "어머니 환경모임 창립이 여성 불교환경운동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끔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정 보살은 사찰의 초 재활용 및 꽃·나무 심기,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일회용품 안쓰기 등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매달 첫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환경강좌을 열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회원들도 점차 늘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캠페인도 벌일 방침이다.

정 보살은 "보살들도 이제는 기복신행을 벗어나 이웃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원력보살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했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1일 개원한 전통찻집 '지선당'. 원안은 이영자 신수회장.

"茶와 禪이 있는 포근한 휴식공간"

이영자 신수회장 전통찻집 열어

본사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인 신수회 이영자 회장이 1일 울산 삼동면에 전통다원 '지선당(智宣堂)'을 개원했다. 양산 통도사와 석남사 문수사 운문사 등 유명사찰이 인근거리에 있는 지선당은 110평 규모로, 실내가 격조높은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마치 산사에라도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이영자 회장은 "앞으로 태교 강의와 다도회, 휘호대회, 분재전시회, 야외조각전 등 다양한 문화강좌와 행사도 개최해 문화와 문화인들이 만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한다. (052)254-3435

이경숙 기자



서돈각 이사장 팔순 기념 논총 봉정식

정토학회(회장 홍윤식)는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팔순기념 논총 봉정식을 1월 19일 동국대 상록회관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관 가산문화연구원 원장 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홍윤식 정토학회 회장은 "평생을 포교에 헌신해 오신 서돈각 박사에게 감사드리기 위해 기념논총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부산 삼광사 도원스님 주지 취임법회

부산 삼광사 제 7대 주지 도원스님 취임법회가 1일 경내 지관전에서 봉행됐다.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 부산불교연합회 성오스님 등 3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취임법회는 안영일 신도회장의 취임법회도 겸했다. 신임 주지 도원스님은 "승속의 화합을 통해 실천수행의 공간, 열린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영원한 귀의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논산훈련소 3천여명 수계법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회장 한수승행) 후원으로 1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법당에서 용성스님 열반 61주기 기념 수계대법회가 봉행됐다. 불심 도문스님(대성석가사 조실)이 수계사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논산훈련소 훈련병 3천여명이 오계를 수지하고 연비를 받았다.



불교여성개발원 신년하례 법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은 신년하례 및 임명장 수여식을 1월 30일 마당 세실 레스토랑에서 개최했다. 수덕사 주지 법장 스님을 비롯해 여성불자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인자 원장은 "올해에는 조계사내 탁아시설 설치, 한국여성불교 역사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2001년 범음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이 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파를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학 년	강 의 내 용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	50명	특 수	바라, 나비춤, 법고등	약간명
2학년	각배과	50명	이 론	불교의식론	
3학년	영산과	50명			

2. 응시자격 승려,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②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 증명서 1부 ③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12일 ~ 3월 1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범음대학 교무처

6. 합격자 발표 2001년 3월 3일 발표(개별통지)

7. 입학일 2001년 3월 5일 오후 2시(봉원사 설법전)

8. 특 전 졸업생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범음대 TEL 02)392-3234, 종무소 TEL 02)392-3007~8, FAX 02)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범음대학

2001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범패)를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1년도를 맞이하여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행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범패·요잡 및 작법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불자님·스님·포교사님들의 많으신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공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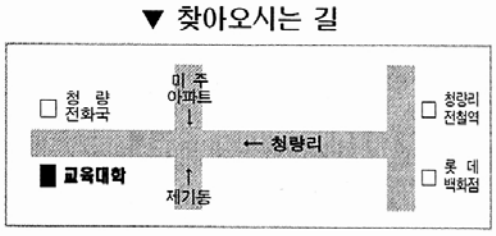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접수일자 : 2001년 2월 1일~ 2월 19일
▶ 개 강 : 2001년 2월 20일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 967-7093

▼ 찾아오시는 길



금강 불원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보현행속에 무르익는 직장불심

운 불 련 소년가장 · 독거노인 성금 · 부식전달

교정인불자련 대부도 둥지마을 배수로 · 건물 보수

한빛은불자회 천마재활원생 목욕시키고 놀이함께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직장직능불자회들이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펼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봉사활동은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어 직장직능불자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 · 회장 박영조) 대구지역회는 지난달 14일 대구 혜림원법당에서 소년소녀가장 33명과 파라미타 학생 10명에게 각각 15만원씩의 장학금과 백혈병 환자 이미선씨, 대구 KBS, 대구MBC, 대구불교방송, 화성양로원에 각각 1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400여 회원 택시에 자비의 껌통을 설치해 얻은 수익금으로 대구지역회는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회도 300여명의 회원 택시에 자비의 보시함을 설치, 그 수익금을 지난달 초 간이식 수술을 받은 박병완(충남기계공고 1년)학생에게 3백만원과 대전지역 독거어르신들에게 쌀, 라면 등 부식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경주지역회는 장애인보육시설인 예티쉼터를 방문해 생활용품을 전달했고 제주지역회도 제주양로원 및 요양시설에 월동비와 제주MBC에 성금을 전달했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창) 영등포교도소지회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소재 둥지마을을 방문해 3십만원의 월동비와 의약품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배수로 공사를 비롯한 건물보수공사와 청소등 보살행을 실천하고 강당에서 원생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키웠다. 특히 이들의 봉사활동은 교도소내 다른 교도관들에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해 29일 열린 정기법회에서 5명의 신입회원이 가입하는 등 불자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치소지회와 충청지부도 각각 서울 오류동 애육원과 대전 자혜원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영등포구치소 류성현 지회장은 "그동안 봉사활동은 물론 불자재소자, 장기수, 정신박애아, 무의탁재소자들에게 영치금을 전달하는 등 보살해을 실천해 왔다"며 "이같은 활동은 3교대를 하는 특성상 법회나 봉사활동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도 불자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켜 자발적으로 법회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빛은행 부산불자회(회장 하명찬)는 4일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인 부산 천마재활원을 방문해 청소는 물론 원생들과 놀아주기, 목욕시키기 등의 자비를 실천했다. 특히 이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생필품과 헌옷가지를 수집하고 봉사활동 계좌를 개설, 매달 기금을 적립해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중공업 법우회를 비롯해, 선재마을 의료회, 약사보리 불자회, 하이텔불교동호회, 유니텔불교동호회 등도 육바라밀 실천을 통한 회원 신심키우기 및 불자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유니텔불교동호회 오기석 대표시삽은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가 직장직능불자회의 새로운 신행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며 "봉사모임이 활성화되면서 회원들간의 친목이 다져지고 이는 곧 법회동참과 불자회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불우이웃돕기와 봉사활동으로 신심을 키우는 직장직능불자회가 늘고 있다. 사진은 운불련 대전지역회가 박병완 학생의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는 모습.

우리 모임에선

심우회 군장병 떡국공양

심우회(회장 이청정행)는 11일 12사단 신교대 법당을 방문, 군 장병들에게 떡국 대중공양을 실시하고 합장주 등 위문품을 전달한다. 돌아오는 길에는 양양 홍련암도 참배할 계획이다. 출발은 오전 6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02)578-2525

춘천시청 불자회 창립

춘천시청에 근무하는 불자 12명은 지난달 18일 춘천 석왕사 무설전에서 '도반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상현씨를 회장에, 박일길씨를 고문, 진옥균씨를 총무, 이인숙씨를 감사로 각각 선임했다.

도반회는 앞으로 매월 한차례 춘천지역 사찰순례, 성지순례, 수계법회, 홈페이지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산반야회 회관 3월 오픈



동산반야회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 4층의 강원빌딩을 매입, 2월초 '동산불교회관' 개소를 위해 본격적인 시설보수공사에 착수한다. 3월중에 문을 여는 동산불교회관은 1층을 사무실, 학장실, 2층은 동산불교대학 교육관, 3층은 법당으로 활용된다.

대전운불련 강기근 회장



운불련 대전지역회는 지난달 28일 대전 광제사에서 제 1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강기근씨<사진>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신임 강기근 회장은 "회원들이 택시에 법륜마크를 달고 불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교통질서 지키기, 손님에게 친절하기 등을 통해 참 불자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며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천포화력 반야회 총회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회장 정일교)는 지난달 30일 창원 운흥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5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동 · 하계수련대회, 춘 · 추 성지순례,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정기법회 개최, 초파일 군부대 위문, 연말연시 복지시설 위문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1년만에 지도법사 모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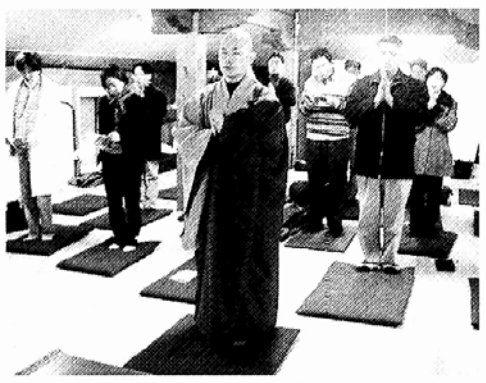
부처님마을 정도스님 위촉

지난 1년여간 지도법사 공석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나우누리 부처님 마을(대표시삽 최용원)은 지난달 28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열린 서울경기지역 정기법회에서 조계사 기획국장 정도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정도스님은 "통신상에서 만났지만 서로서로가 훌륭한 도반"이라며 "앞으로 선지식을 만나도록 원을 세우고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우누리 부처님 마을은 2월 서울경기지역장 선출과 3월 대표시삽선거를 통해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5월 바자회 개최, 8월 수련대회, 수계법회, 성지순례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나우누리 부처님 마을 회원들이 지도법사 정도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야단법석

인드라망 9일 조계사…오성스님 · 성태용교수등 초청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스님)는 9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문화관에서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란 주제로 '화엄광장' 첫 번째 마당을 펼친다.

도법스님의 발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정해숙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前전교조위원장)를 좌장으로 오성스님(제주 백련사), 종명스님(일과깨달음도량), 성태용 건국대 교수,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허우성 경희대 교수, 황선진 생명축제조직위원장,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김준호 부산대 강사, 이도흠 한양대 강사, 지원경 경불련자비의집 자원봉사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02)737-6181

김재경 기자

행자부, 공익활동 적극 지원

환경 · 인권 · 여성 등 10개분야

행정자치부는 1월31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지원사업 유형은 국민화합, 월드컵문화시민운동, 투명사회만들기, 자원봉사, 인권 · 여성 · 청소년 권익신장,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안전관리 및 재난구조, 민족화해협력, NGO기반구축 및 국제교류, 시민참여 확대 등 모두 10개 분야다.

행자부는 20일 오후2시 이북5도청 5층 대강당에서 사업자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며 희망단체는 지원사업신청서 2부, 단체 자기소개서 2부, 지원사업계획서 2부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02)3703-4882 (www.mogaha.go.kr)

김재경 기자

게시판

알림

▲정월 전통민속놀이=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5~7일까지 정월대보름 맞이 은빛 전통놀이를 실시했다. 첫날인 5일에는 은평구 관내 역마을 경로당과 불광2동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대보름 음식을 나눠 먹고 윷놀이를 즐겼다. 또한 6일에는 관내 20개 동 무의탁 재가어르신 200여명을 복지관으로 초청 오곡밥 대접과 위안공연을, 7일에는 복지관 아회 형사장에서 11시부터 제기차기, 연날리기,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개최했다.(02)385-1351

▲주간 · 단기보호 실시=안양시노인복지센터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치매, 중풍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간보호(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7시)와 단기보호(1년에 90일 이내)를 실시한다. (031)455-0551

강좌

▲'혼인과정' 교양강좌=불교상담개발원은 11일 오후 2시 봉은사 법왕루에서 이대 사회학과 김모란 교수를 초청해 '혼인과정'을 주제로 교양강좌를 실시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앞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02)737-8803

▲경원스님 초청 특강=보현불교대학은 9일 오전 10시 '참된 불자의 길'을 주제로 봉정암 주지 경원스님의 특강을 실시한다.(042)631-6555

▲불교기본교육=조계사는 24일부터 3개월과정 '불교기본교육' 강좌를 개최한다. 조계사 스님들이 강의할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교리, 수행방법을 배우게 된다. 강의는 매주 화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하는 주간반과, 오후 7시 야간반,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토요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02)720-1390

모집

▲옹기종기 교실 수강생=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특수학교 재학생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펼쳐질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인 옹기종기교실에서 함께 활동할 아동을 모집한다. 강의는 5일부터 매주 월 · 수 오후 3시 복지관에서 연중 실시된다.(043)652-0900

▲해외포교사 지망생=미국 시카고 자혜불교회 미륵승가대학은 불교교리를 연구하고 해외포교에 관심있는 18~40세 미만의 불자를 대상으로 해외포교사 지망생을 모집한다.

(011)9056-5630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출강 통신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고 수순법지하는 대승보살로서 여법히 불교의례에 따라 법사법위를 품수받은 불교의 진자(眞子)임을 말합니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교육방법 :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 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1년 1월 2일 ~ 2월 26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2001년 대원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 안내

대학개설취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포교사를 양성하고자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야간 2년제 전문과정으로 2001년도 43기생을 모집합니다(28년간 2000여 동문 졸업).

강의시간

3월 1일 개강, 주 3일(화, 수, 목) 출석, 야간 수업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6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2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교수진

권탄준 박사, 최봉수 박사, 장휘옥 박사, 김사업 박사, 허경구 박사, 김경집 박사

-초빙강사(월운 스님, 혜거 스님, 권기종 교수, 정병조 교수)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 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7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02)773-9171, 776-7156, 754-1613

FAX:(02)756-7258

침과 뜸으로 부모은중경 실천

신행현장 | 천태종 수족침 봉사회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이 이익을 주는 관세음보살처럼 힘없는 노인들의 원기를 불어 넣어주는 불자들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다.

1월 19일 오후 2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모이는 서울 우면동 은초록노인당에는 할머니 · 할아버지 60여명이 차례대로 줄을 지어 천태종 수족침 봉사회(회장 신현안)의 침과 뜸뜨기 순서를 1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당 안방에는 할머니 · 할아버지의 손과 발에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봉사자 10여명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봉사자들은 자석, 이온별봉 등을 통해 허약한 기를 살리는 원기방법과 상응부위치료법을 번갈아 가며 실시하고, 사지를 주물러 주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들은 노인당에 나오기 전 서로 상응 부위를 찾아가며 실습을 마친 뒤라선지 소소하게 병명을 묻고 정확히 아픈 부위를 찾아 시술하는 것에서 꼼꼼함이 묻어난다.

"할아버지 요즘은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빨리 원기를 회복하여 등산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고마워. 덕분에 몸이 많이 편해졌어. 봄부터는 우면산 산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절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자식보다 낫구먼"

노인정에 모인 할머니 · 할아버지들은 팔과 다리를 걷어 붙이고 앉아서 그동안 좋아진 경과며, 집안의 소소한 얘기들을 즐겁게 풀어놓는다.

할머니의 손에 뜸을 놓은 뒤 무릎을 안마해주고 있는 김원호씨(의류사업)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를 실천할 수 있고,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닌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원봉사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는 사업을 쉬고 현장에 나온다.

한 할머니의 손에 뜸을 뜨는데 정신을 집중하던 윤경자보살(43 · 강남구 포이동)은 "노인당에 갈 때마다 4년전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부모은중경을 암송한다"며 "어쩌다가 한번씩 봉사에 빠지면 저번 주에 왜 안 왔냐고 말씀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부모님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천태종 수족침봉사회 회원들이 1월19일 우면동 은초록 노인당에서 수족침 봉사를 하고 있다.

관문사 교육과정 이수
자원봉사자 60명
독거노인 돕기 '열심'

남구 개포동)은 "자가치료를 위해 관문사 수족침 교육에 참가했다가 절에도 다니는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수족침으로 인해 몸도 따뜻해졌다고 말할 때 굉장히 좋다"고 토로한다.

김묘숙보살(49 · 강남구 포이동)은 "노인당에 갈 때마다 4년전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며 부모은중경을 암송한다"며 "어쩌다가 한번씩 봉사에 빠지면 저번 주에 왜 안 왔냐고 말씀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부모님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독거노인인 김소점할머니(86 · 우면동 은초록아파트)는 "몇 달간 집에까지 와서 침과 뜸을 놓아주어 이제는 마음놓고 노인당에 거동도 하게됐다"며 "이제는 노인당에 나오는 친구들과 절에 가서 기도해보고 싶다" 말했다.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천태종 수족침봉사회는 2개팀 8조로 나눠 매달 2회씩 지역 독거노인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또 매주 금요일 오후(2~5시)에는 우면사회복지관과 서초노인복지관 노인당 2곳을 순회하며 수족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관문사에서 4년간 수족침 초, 중, 고, 사암반을 마치고, 대한적십자사 환자간호기초, 노인간호, 산모와 아기돌보기 과정까지 이수했다.

수족침봉사회 신현안회장은 "관문사 수족침 교육생이 매년 20~30명씩 배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울시내 1백여곳의 노인정을 순회하며 자원봉사를 벌여 부처님 자비행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태종 수족침봉사회는 2000년 1월 창립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린 자원봉사대축제에 참가했으며 12월 19일에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자원봉사 단체상을 받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막히는 데서 통하는 도리

파도에 시달리는 배가 뒤집히지 않는 것은 복원력이 있기 때문이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한다.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모든 경계는 다름 아닌 복원력이다. 나로 하여금 바른 수행을 통해 진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반작용인 것이다. 언젠가 내가 행하였던 신 · 구 · 의 삼업이 현실의 경계로 다가와서는 나를 향해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게 내게 닥친 경계의 참뜻이다. 선한 과보는 선한 과보대로 더욱 선업을 쌓아가라고 말하고 있고, 악한 과보는 또 그대로 더 이상 악업을 짓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일체 경계는 다 수행의 재료요 공부의 기회가 된다.

보왕삼매론의 다음과 같은 대목도 그것을 말한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쉬우니 병고로써 양약을 삼으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공부하면서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쳐나니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수행하는데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장이 없으면 서원이 굳세어지지 않나니 마장으로 수행의 벗을 삼으라."

보왕삼매론의 이같은 말씀은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길을 찾으라는 뜻이다. 사람이 일상 속에서 통하고 성취하는 것만을 좋아하다 보면 도리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눈물 섞인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이는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생활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완성시키는 길임에도 우리는 한결같이 역경계는 싫다 하고 순경계만을 탐착한다. 그러나 역경계를 견뎌보지 못한 사람은 장애에 봉착했을 때 이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거나 비탄에 잠기게 된다.

설도 지나고 방학도 끝났다.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길이 있음'을 곱씹어 볼 때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남과 여 '도반의 시대'
"일체법에는 남녀상이 없다"



원경스님
북한산 심곡암 주지

21세기 밀레니엄 시대는 여성들이 크게 활약하는 시대가 될것입니다. 정보화를 주도할 이들도 바로 여성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각처에서 남녀 성역을 넘나들며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남녀 직업의 성역이 허물어지고 있고, 남과 여는 밀레니엄 시대를 함께 갈 도반입니다.

여성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여성부 신설이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현행법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보호받을 줄 모르는 약자에게까지 권리가 주어지진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은 평등과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천부적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남과 여는 인격과 인격으로써 상호는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고, 남 · 녀 · 노 · 소가 따로 없이 평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등록〉에 의하면 비구니 요연(了然)스님의 법력이 비구 관계(灌溪)스님을 능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연스님이 균주말산(筠州末山)에 계실 적에 때마침 관계화상이 선지식을 찾아 헤메다가 요연스님을 참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말산(末山)의 주인인가?"라고 관계화상이 묻자 요연스님은 "남녀상을 떠났도다"라고 답합니다.

관계화상이 소리를 지르며, "남녀상이 따로 없으면 왜 여자 몸을 바꿔 남자 몸을 못 나투는가?"고 말하자, 요연스님이 초연하게 이르길 "나는 신(神)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거늘 어찌 술수를 쓰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관계화상이 굴복하고 삼년 동안이나 원두 소임을 맡으며 농사일을 돌봐 드렸으며 요연스님께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소견의 우열이 있을 뿐 남녀의 우열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할 것입니다.

구산 스님이 살아 계실 때, 어느 여성 불자가 스님을 친견하고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내생엔 꼭 남자몸을 받고 싶습니다."

큰스님께서 이르시길, "내생까지 갈 것이 뭐 있겠느냐. 지금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이 같은 말씀은 여성 스스로가 열등한 차별상의 고정관념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일갈이며, 법에는 남녀상이 없음을 깨쳐 주시는 법문이십니다.

이제 여성들 스스로가 자비와 지혜가 구족한 관자재보살로 거듭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법(法)다운 인식이 증폭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비구-비구니 불평등
소승적 편협성에서

보완 관계일 뿐 상호우열(優劣)관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마저 여성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비구니 팔경계(八警戒)에 의하면 백살 먹은 비구니가 법랍 한 살의 비구에게 먼저 절해야 한다고 하는 식의 조항은 거의 맹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극히 소승적인 것은 애써 고집하면서도 대승적인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경향 때문에 한국불교는 대승을 표방하면서도 소승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신도층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불자들이 진실로 우리 불교를 아름답게 장엄해왔습니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은 묵묵히 수행정진에 힘써 옴으로 해서 한국불교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법에는 남녀 상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법이 이와 같아서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음이니, 남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

신행 캘린더

2월 7일 (수)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이봉춘 교수를 초청해 다보법회를 개최한다.(02)703-0108

2월 8일 (목)

■화엄사선대조사합동 추모재=화엄사는 오전 10시 각황전에서 선대조사 합동 추모재를 봉행한다.(061)782-7600

2월 9일 (금)

■현대불교사회문화원 개원법회=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이어 '21세기 세계화시대의 도전과 한국불교의 대응'을 주제로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02)736-6940

■인드라망 화엄무차광장=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저녁 7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일상속의 깨달음'을 주제로 화엄무차광장을 실시한다.(02)733-1884

2월 10일 (토)

■강화 선원사 예술제=강화 선원사는 오후 3시 강화문예회관 2층 소강당에서 제3회 선원사 예술제를 개최한다. (032)933-8234

2월 11일 (일)

■풍경소리 총재 취임법회=좋은 벗 풍경소리는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총재 지현, 대표 덕신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02)717-6985

■불교여성개발원 워크숍=불교여성개발원은 11일까지 화성 신흥사에서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02)722-2101

■금강불교대학 졸업식=천태종 서울 금강불교대학은 오후 2시 30분 관문사 4층 옥불보전에서 불교학과 17회, 법사과 7회 졸업식을 거행한다.(02)576-6401

■석불선양회 마애불 친견법회=석불선양회는 여주 계심리 마애석불 친견법회를 봉행하고 신륵사와 목아박물관을 참배한다. 출발은 오전 7시 50분 동대문 이스턴호텔 앞.(016)267-7945

2월 13일 (화)

■선학원 한 · 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재단법인 선학원은 18일까지 태국 왕실 사원인 'Wat Benchamabopitr(일명 방콕 대리석 사원)'에서 한국불상봉안 및 한 · 태 불교문화교류 대법회를 봉행한다.(02)734-9654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200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 모집 내용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범 패 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2. 응시 자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신입생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3.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4.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1년 1월 15일(月) - 2월 17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 : 2001년 2월 18일(日) 10:00 - 17:00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8.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9. 기 타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여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6)

동방불교대학
(우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02)763-0229, 763-8536



박태원 교수의 23

불교로 보는 인생

진실의 꽃 피어나는 때

청명보검으로 강호에 군림하던 무당파의 수제자 리무바이. 그는 영웅의 상징 청명보검을 내놓으며 강호에서 몸을 뺀다. 정의와 신의의 이름으로 검에 묻힌 피였건만, 이제 그 모든 것에 의미와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 보검을 새로운 강호 영웅을 꿈꾸는 여인 용(龍)이 탐낸다. 8세 때 이미 스승을 속였고 사랑하는 남자 호(虎)마저 배신하며 야심을 키워 가는 그녀는, 강호 영광의 상징 청명 보검에 강한 애착을 보인다. 리무바이는 그런 그녀에게서 인간적 가능성을 직감하고 거듭 타이른다. "마음의 진실을 회복해야 보검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잃는 리무바이를 보면서 비로소 마음에 절어 있는 거짓의 독을 절감한 그녀. 사랑하는 호(虎)를 찾아가 언젠가 그가 들려준 전설대로 진실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며 산 아래로 몸을 던진다. 한편 숨을 몰아쉬는 리무바이를 안고 그의 사랑 수련은 눈물로 속삭인다. "마지막 숨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당신의 해탈을 위해 써요!" 동양인의 사랑, 그 절제의 미학을 시종 잘 담아내는 양자경의 연기도 일품이다. – 무협 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흔든 '와호장룡'

는 그 본질상 소유나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시와 소통의 용법일 뿐. 그러나 '언어에 집착하지 않음'과 '언어의 배신'은 다르다. 언어에 갇힐 일은 아니지만, 언어를 통해 확보하고 가꾸어 가려는 진실을 놓쳐서도 안 된다. '평생 당신을 위하리다' '공정하게 하겠소'라는 말에는 상황에 따라 변심하기 쉬운 야비한 마음을 다잡아 두려는 다짐과 약속의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다. 변하기 마련인 상황은 언어를 바꾸게 하지만, 인간은 또한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소중한 가치를 언어를 통해 가꾸어가려 한다. 언어에 집착하여 진실을 놓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되지만, 진실을 가꾸어 가는 언어의 규정력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거짓 물든 언행 버리면 마음의 진실 회복된다

강호의 영웅을 꿈꾸는 야심가들은 언어 배신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진실과 사랑과 신의의 약속과 다짐을 담았던 언어들을 야심을 위해 외면하거나 바꾼다. 언어 배신 행위를 그 특출한 무공(지식과 논리)에 의해 그럴듯하게 정당화시키면서. 그리하여 언어 모독의 악취가 진동할 즈음, 초심의 간절한 순수성이 뭉개진 땅을 기만의 가시덤불이 채울 때, 그를 키우고 지켜보았던 소중한 마음들은 혀를 차며 멀어져간다.

한국 정치 악업의 정체를 언어 배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언어의 정의(定義)와 용법을 교묘하게 바꾸어 가며 자신의 탐욕과 거짓을 위장하는 정치인들의 언어 배신 행위가, 우리 사회를 심각한 불신과 냉소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언어 신뢰, 언어의 문화적 구성력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뻔뻔한 야심들이 어지럽게 횡행한다. 그 현란한 배신의 무공, 언어 기만의 검법에 이제 그 누가 갈채를 보내던가. 민심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다. '마음의 진실을 회복하라. 그래야 보검의 주인 된다.' 용처럼, 천길 산밑으로 거짓에 물든 자신을 던져라. 강호 영웅의 야심에 의해 꺾여진 진실의 꽃은 그럴 때 기적처럼 되살아나리.

▩ 울산대 철학과 교수

"경전 읽기는 가행정진의 밑거름"

참불자의 길 참선④ –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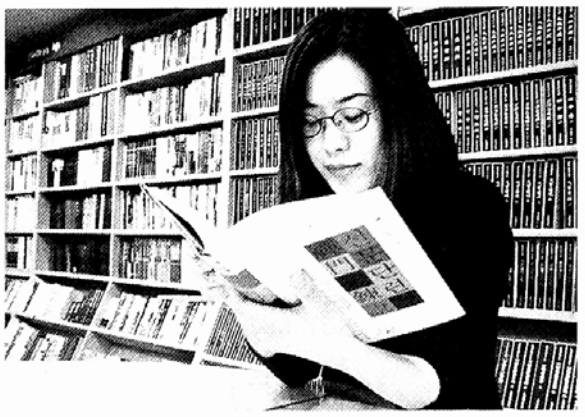
언어나 문자로는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이것이 선불교의 대표적 특징이다. 하지만 불립문자를 '선에는 문자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있어 선(禪)과 교(敎)의 갈등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립문자'에 대한 오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모 선원에서 동안거에 참여한 한 불자는 "화두만 열심히 참구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되지 경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반문한다. 경전을 읽으면 분별심이 생겨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수행의 현장에서 만난 불자들은 "경전을 읽지 말라"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참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들은 수행자가 경전이나 어록을 읽지 않는다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경전과 선어록은 맹인의 지팡이와 같이 수행에 필수적이란 얘기다. 제대로 알고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몇몇 스님들을 통해 '불립문자'의 참 의미를 살펴본다.

성본(동국대 교수) 스님은 그 동안 출간한 여러 선서를 통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불법을 알고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록의 가르침이 필요 없을 때까지 언제나 옆에 두고 읽고 배워서 올바른 수행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스님은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구족된 우리들 각자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경전이나 어록을 통해서 자성이 부처인 그 사실과 성불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신을 갖고 그 수행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납득할 수 있고 의심이 없어야 부동(不動)의 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 스스로가 불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근거와 철저한 신심을 가져야 하는데 경전이 그 뼈대가 된다는 것이다.

"문자 필요없다" 일부 수행자 잘못인식 禪과 敎 갈등요인



◇참선 수행자에게 있어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하는 경전읽기는 흔들림없는 가행정진을 위한 필수 덕목이다.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의 현실을 살펴보면 불자들이 이러한 오해를 갖게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불교기초교리나 예절 등에 대한 강의는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선불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단체나 사찰은 드물기 때문이다. 수시로 수행을 점검해 주고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스승이 드물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참선 실수는 물론 선어록 등의 강의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불선원의 주지 성산 스님도 "불자들에게 참선의 자세나 화두 참구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선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 설하신 여러 경전을 비롯한 조사들의 어록을 통하여 불교의 정신과 선사상을 가르친 후 실수에 들어가 정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지도론〉에서는 "불법인 진리의 세계는 믿는 마음이 철저해야 능히 그 속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불립문자'의 본래 의미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난다는 말이다. 즉 경문이나 스승의 가르침등 문자는 성불의 방편을로 보인것으로 깨달음 그 자체는 문자를 떠나 참된 지혜에 몰입하여 스스로 체험한다는 뜻이다.

결국 선 수행하는 불자들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스스로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그러한 자각적인 참된 자아를 일상생활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선불교의 참된 정신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 수행이 정신집중이나 일시적으로 마음의 번뇌를 끊는 명상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김중근 기자

禪과 21세기

불교의 철학화 극복위해 禪 등장

44 선과 언어 (8)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뜰 앞의 잣나무' 처럼 화두가 직지(直指)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현정(顯正)을 통하여 파사(破邪)도 동시에 완성하는 경우로서, 조사선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파사의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둔 화두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향엄지한(香嚴志閑)과 관련된 다음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모가 그대를 낳기 이전의 일을 말하라'다.

향엄은 위산(爲山)의 문하였는데, 아는 것이 많고 말재주가 뛰어나 대중들 가운데 말로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선문(禪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다. 위산은 향엄의 말재주가 단지 지식(知識)에서 나오는 것일 뿐 근원을 통달한 것이 아님을 알고서,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그대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고, 열을 물으면 백을 답한다고 들었네. 그런데 이것은 그대가 총명하고 영리하여 뜻으로 알아차리고 식(識)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이제 부모가 그대를 낳기 이전의 일을 한 마디 말해보라." [父母未生時試道一句看] 향엄은 한참 궁리한 후 몇 마디 대답을 했으나 위산은 하나도 수긍하지 않았다. 마침내 향엄이 가르침을 부탁했으나 위산은, "내가 만약 그대에게 말해준다면 그대는 뒷날 나를 욕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것일 뿐 결코 그대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처소로 돌아온 향엄은 평소 봐왔던 서적을 뒤져서 대답을 찾았으나, 결국 찾지를 못하자 이제껏 보던 서적을 몽땅 불태워버리고는, 불법 배우기는 포기하고 떠돌이나 돼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하여 위산을 하직하고 남양으로 건너가 혜충국사의 유적에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향엄은 풀을 베다가 우연히 기와 조각을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부딪혀 내는 소리를 듣고 홀연히 깨달았다.

위산이 제시한 '부모가 그대를 낳기 이전의 일을 말하라'는 화두는 향엄이 견성하는 직접적 계기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이 화두는 향엄의 사량분별을 부수는 파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견성한 뒤의 향엄에게는 이 화두와 기와 조각 부딪히는 소리가 동일한 바탕으로 돌아가겠지만, 그 전의 향엄에게 이 화두는 일차적으로 파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언어로서의 화두는 파사와 현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언어의 테두리를 넘어서 언어가 나오는 바탕인 자성을 깨닫도록 도와준다. 즉 선에서 언어는 선을 알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요 통로인 것이다.

이제 선과 언어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선에서 언어의 쓰임은 ①선체험을 묘사하고 설명하여 듣는 사람에게 선체험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고 동일한 체험으로 이끌어 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②화두와 같이 언어를, 선체험을 가져오는 직접적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의 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쓰임 이외에 선을 이론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선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선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선학(禪學)의 가능한 역할은 이 둘에 관하여 올바른 해설을 하는 것이며, 올바른 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자기부정적 입장(마조의 말처럼, 말을 듣고 자신의 견해가 바로 잡히면 될 뿐, 말은 바로 잊어야 한다)을 견지해야 한다. 즉 선학은 방편설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의 공부에 기여해야 하며, 이론적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오히려 선 공부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체험에 관한 어떤 설명도 체험 그 자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이론적 체계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학이기보다는 철학이론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교가 철학으로 변질되어 종교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선이 등장했던 맥락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선진화 포교학당

2001학년도 불교복지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개설강좌

과 정	기 간	교육실시	등 록 금
제 3기 포교사과정(포교복지사)	1년	매주 화,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입학금 : 5만원(교재대 포함) · 수강료 : 월 6만원
제 2기 상담심리과정(자비상담사)	1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 입학금 : 8만원(교재대 포함) · 수강료 : 6만원(자격검정료, 집단수련비제외) · 본교 과정 등록자 및 포교사, 복지사 : 수강료 20% 할인
제 6기 불심호스피스(간병봉사자)과정	3개월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5시	· 수강료 : 월 6만원(교재대 포함)
제 2기 불교 침·뜸 포교봉사자	1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10시	· 교재대 : 별도 · 수강료 : 월 15만원

■ 구비서류 및 원서마감(선착순)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사진3매(반명함판)
마감일 : 2월 28일(수요일)까지 (전화 접수 가능)

■ 입학식
3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보건복지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3-5 대아빌딩 4층 학 장 혜도스님
대표전화 051-462-5670 팩스 : 462-5671

현대 훼미리 설악콘도 특별 혜택

1,584만원 (23평형) ☞ 350만원에



※ 보증금 안정성보장 – LG화재 (주) 상환성 보험증권 발행

▌특별가입 내역

평 형	총분양가	특 별 가	사용일수	객실수	객실형태
23평형	1,584만원	350만원	30박	477실	방2/거실1

▌제주 2박 3일 무료이용권 증정 (항공권 별도)

▌온라인/카드 결제 안내
- 국민은행 : 805 - 25 - 0012 - 481 예 금 주 : 주) 현대훼미리리조트

▌특별가입 혜택
※ 2000년 스키장 리프트 무료 / 할인권 증정
· 청평, 설악 VIP 초대권 증정
· 회원 입회비 / 연회비 평생 면제
· 공동 명의 구입 가능(카드 추가 발급)
· 10년간 정회원 이용
· 10년 만기후 전액 환불 및 연장 가능
· 양도 / 양수 / 매매 / 상속 가능
· 신용카드 장기 분할 가능 (12-18개월)

전국 23곳 사용 현황 : 설악권/설악, 평창, 알프스 경기권/양평, 용문산, 가평, 청평, 인천 중부권/천안, 도고, 충주 남부권/울산, 남원, 지리산, 구례, 순천, 해남, 경주, 부산 제주권/서귀포, 해외권/사이판

(주) 현대 훼미리 리조트
HYUNDAI FAMILY RESORT CO., LTD
문의안내 02) 3444-7580

이렇게 들었다

생명의 소중함

"나와 이웃 둘아닌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참으로 어렵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눈 먼 거북이 백년에 한 번 떠오르는데 마침 구멍이 하나 있는 통나무를 만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어리석은 범부가 생사를 윤회하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눈먼 거북이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 중생들이 법을 등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한량없는 악을 지었기 때문이다." 〈잡아함경〉

부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지중한 인연인가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무한한 어려운 속에서 태어난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십상이다. 설령 그 존엄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그 잣대는 '나'의 본성이기보다는 육신 즉 껍데기에 가깝다. 결국 우리는 나의 육신에 탐착하여 모든 생명의 고귀함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큰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던 것일까.

이런 점에서 최근 생면부지의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선로에 뛰어든 이수현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가 그 동안 잊었던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준다.

다른 사람이 직면한 위험을 목숨 걸고 막으려한 정신, 뭇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살신성인이라며 그의 희생정신에 애도의 조문을 표한다. 하지만 불교적 시각을 갖춘 눈밝은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생명의 사라짐은 곧 나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생명의 존엄성에 무게중심을 둔다. 결국 나와 이웃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사상과 괘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수현 씨의 행동에서 불교적 인격도 엿볼 수 있다. 아니 불자라면 그 점을 절실하게 느껴야 마땅하다. 우리는 흔히 인격이라고 하면 나보다 높은 고매함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인격은 위 · 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정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인격의 본래 의미다. 생명존중사상이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불교사상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을 갖춘다는 의미는 우선 나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사상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생명이든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도 저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불자들은 이 씨의 의로운 죽음을 접하면서 '목숨을 바친 위인', '용기 있는 행동' 쯤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는 과연 그동안 다른 생명의 소중함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부처님과 조사 그리고 역대 고승들은 한결같이 올바르게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곧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러 방편으로 강조했다.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종근 기자

불자세상보기

파시스트적 인종주의 '한국 자화상'

지난 설 연휴에 서울 롯데월드 앞 길가에서 '살색 없애기'라는 이색적인 캠페인이 있었다. 색깔을 나타낼 때 쓰는 '살색'이라는 말이 '인종차별적'이므로 이 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아주 세계화되고 계몽된 선민(選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를 보면, 여전히 민족중심적, 국가중심적인 근대성의 틀에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민족, 민족주의는 누천년 민족 공동체를 지탱해 온 힘의 원천으로 아주 각별한 것이었다.

그러나 50여년 전 '인민주권자로 해방된 국민들'은 강제와 예속의 쓰라린 경험을 타민족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공격성으로 대치하였다. 지난 40여년간의 국부의 증가와 이에 기초한 민족적 긍지는 오로지 문화적 편협성과 인종적 증오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었으며, 이는 '파시스트적 인종주의'로 우리의 일상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 '홀대' 탈북자 입국거부까지

화교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이다. 우리는 수십만이 누대에 걸쳐 살아온 그들에게 거주, 교육, 재산취득 등 온갖 제도적인 제한과 불이익을 주었다. 몇 년을 살았건 3~6개월에 한번씩 거주허가를 경신하도록 하는 외국인 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와 사할린 동포의 영구 귀국에 대한 제한조치, 탈북자의 입국거부 등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파시스트적 인종주의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구타당하지 않는 노동 시장'을 꿈꾸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있지 않은가? 재일교포의 참정권을 요구하고, 거주 등록시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에게는 입국시 비자 면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이런 배타적이고, 불관용한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자기 민족은 무한 팽창을 요구하면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보이는 이중성은 '역근대화'의 전형이다. 4년 전에 우리는 세계화의 부정적 귀결로서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였다. 그때 우리는 시장과 자본의 유동이 자유롭다면 노동 역시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미국을 향해 항변하였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근동의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노동은 필연적으로 초국가적으로(transnational) 공유되어야 한다"고.

타민족 배타적 시각 지구촌시대 뒷걸음

일상의 파시즘을 벗어나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세계화되어야 한다. 인민주권자로서의 국민은 애국적인 시민이기보다는 세계시민이어야 하고, 정치는 국민국가 내 통치가 아니라, 세계-내-정치로 되어야 한다. 노동은 민족국가 내의 분배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국경과 대륙을 넘어 공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30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소위 3D 직업은 노동이민에 의한 일자리 침탈이 아니라, 노동과부의 국제적 분배일 따름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영토 내에서 분배되던 노동이 세계화되는 단적인 사례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 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군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로 '수출'된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이동이 아니라 일자리의 이동'이다. 노동의 세계화와 초국가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역근대의 전형인 인종적 파시즘을 반성해야 한다.



구승회
동국대 교수
윤리학

열린마당

종교신문고의 역할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지난 94년부터 설치 운영해 온 '종교신문고' 수신전화를 1대에서 올해 4대로 늘리는 등 활동을 강화했다. '종교신문고'는 문제성 종교로 인한 피해 구제, 종교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정부의 종교정책에 관한 제언접수 등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교간섭 등 설치취지에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종교신문고의 역할과 그 범위에 대한 문광부 종무실과 불교계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종교 건전발전 중개창구되길"

법현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종교라는 말의 참 의미는 가장 위대하고, 참되며, 바른 것이어서 산마루처럼 최고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종교로 인해 어려움 또는 고통을 겪을 리가 없다고 보지만 앞 산도 산이요, 뒷 산도 산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종교의 이름을 가진 단체나 그 소속원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고 사회적 반향도 크게 마련이다. 이들 사이비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인들은 운영체계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리의 양상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아무 스리도 못하고 재산과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종교 비리를 척결하고, 해소해 달라는 민원인들의 고발 창구를 문화관광부가 '94년부터 '종교신문고'라는 이름의 전화로 개설해 종교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쓰임이 많아서 전화를 한 대에서 네 대로 늘렸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심정이다.

종교의 본래 목적이 번뇌의 속박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종교나 종교인들의 압제 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구출한다는 뜻에서 구출구출(9797)로 번호를 받았다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인정해 설립된 것이니만큼 종교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개 창구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또 하나는 바른 종교의 바른 교화노력이 사회에 넘칠 때 종교신문고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점을 직시하고, 연합감찰 등 제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교신문고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종교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이비종교로부터 국민보호"

나기주 〈문화관광부 종무실 사무관〉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동안 모두 561건의 각종 민원이 종교신문고에 접수되어, 국민들의 종교관련 애로사항과 상담,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 및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동안의 종교신문고 이용내용을 보면, 종교교리, 세금관련 사항 등을 문의한 경우가 284건, 종교 내부분쟁 관련사항이 33건, 종교비리에 대한 고발 · 상담이 159건, 종교관련 자료요청이 34건, 각종 건의나 제언이 49건이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년 1월부터 '인터넷 종교신문고'(www.mct.go.kr)를 신설한데 이어, 2001년 1월에는 '전화' 종교신문고도 기존의 02)720-1994번 외에 02) 3704-9797(구출구출)번을 추가 신설했다.

종교신문고는 우리나라의 종교 환경 속에서 일부 사이비 · 문제성 종교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미풍양속과 도덕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며, 폭행 ·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올바르고 건전한 종교활동을 더욱 충실히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종교간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신문고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외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종교신문고의 경우에는 일반 사이버민원과 달리 당사자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분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기고

"좋은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놀고 대화"



임영재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위원장

시대에 따라 바람직한 아버지의 상은 다르다. 옛날의 아버지들은 완고하고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자녀들과의 유대관계에는 무신경한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아버지들은 보편적으로 자상하고 친구 같은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일에 쫓기고, 생활고에 찌들어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많다. 명함만 '아버지'임을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식들로부터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한 40대 아버지가 불을 피해 여섯살짜리 딸을 안고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딸의 목숨을 건지고 자신은 숨진 사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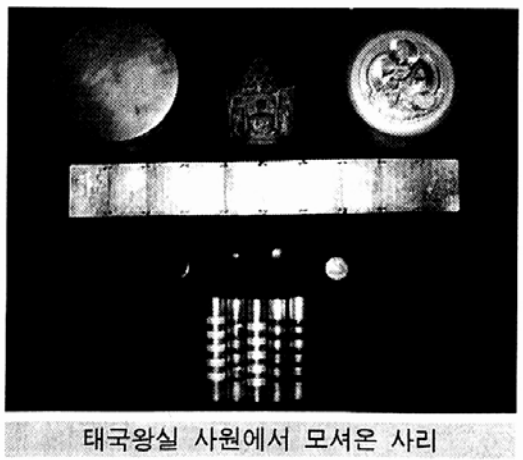
'그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부모의 정은 변하지 않지.' '어느 누군들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땅의 아버지라면 아마도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가슴뭉클한 감동을 느꼈으리라.

이번 사건은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아이들과 대화의 문을 열어보자. 자녀와 놀아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논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아!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자. 아내나 자녀에 관한 화제를 꺼내는 것이 팔불출에 속한다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 말했지만 오늘의 아버지들이여,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려 보자. 그리고 오늘 한 번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하고 입맞춤이라도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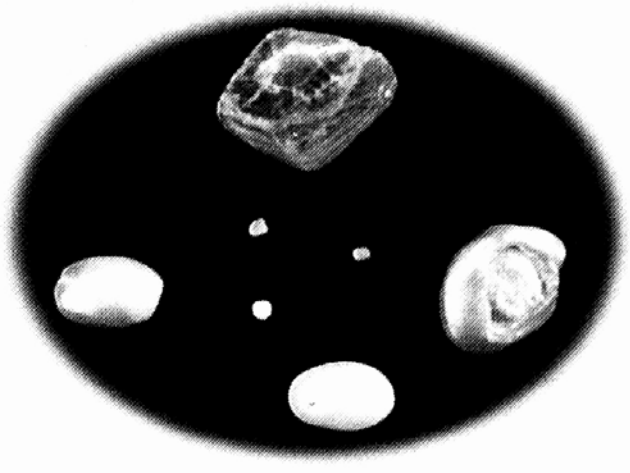
신년벽두! 호압사에 가면 희유한 인연공덕이 있다

귀의삼보 하옵고,
신사년 새해를 맞아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 자비광명과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호암산 호압사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서원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여 무량한 지혜와 공덕의 복전을 일구는 삶을 살아 갈 것을 서원하기 위해 부처님 성도일로부터 49일간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 합니다. 일찍이 태국 왕실사원에 봉안되었다가 참으로 희유한 인연에 의해 불가사의한 과정을 거쳐 호압사에 봉안예정인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해를 설계하는 시간, 호암산 호압사에 오셔서 희유한 인연공덕을 맺으시고 활기찬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왕실 사원에서 모셔온 사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안내>
◎ 입 재 : 2001년 1월 2일 (음력 12월 8일) 오전 10시
◎ 회 향 : 2001년 2월 19일 (음력 1월 27일) 오전 10시
◎ 동참금 : 2만원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 주지 석원욱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34번지
전화 02) 803-4779 팩스 02) 891-0770



호압사의 유래
서울의 안녕을 지키는 호압사

호암산 호압사는 조선의 개국에 때맞춰 창건된 사찰이다. 조선 태조 2년에 설치된 신도궁궐 조성도감에서 궁궐을 지었는데 궁궐이 다 지어질 무렵 건축물이 허물어지기를 몇 차례, 태조는 꿈에 호암산이 호랑이 형세여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된다. 태조의 왕사 무학대사도 호암산이 호랑이가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범바위 서쪽에 절을 세우고 북쪽으로 10리 지점에 궁교(弓橋)를 만들고 또 북쪽 10리 지점에 사자암을 지었다.

호압사는 이같은 풍수지리상의 비보사찰로 지어져 조선 5백년의 역사 동안 한양을 굽어보며 왕실과 나라의 안녕을 지켜 온 유서깊은 사찰이다. 호압사는 호암산의 정기가 모아져 있는 호랑이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도처로 유명하고 스님들의 정진원력이 성취되는 수승한 도량으로도 알려져 있다. 호압사는 1994년 10년 중창불사를 발원하여 일주문을 세우고 법당과 삼성각을 신축하고 요사채도 단장했다. 앞으로도 보제루와 범종각을 신축하여 사격을 일신하기 위해 중창불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사·부·대·중

자신이 빛이 되는 삶



안옥선
전남대 강사 · 철학

최근에 만난 한 불자의 기도 내용은 무척 신선한 것이었다. 고행은 상대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 분의 고행과 같은 수행은 새벽 3시반에 시작된다. 인근 절에 가서 108배를 마치고 6시30분에 출근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700내지 1000배를 더한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웠기 때문에 그 분의 귀는 얼어서 헐어 있었고 눈은 잠이 부족하여 핏발이 서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충격은 그 분의 수행과 결부된 기도 내용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난 두 자녀가 사회인이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끔 해 달라는 기도였다. '무엇이 되어 무엇(what)을 하느냐' 보다도 '어떻게(how) 사느냐'의 문제가 삶의 화두가 되어야 함을 내 자신에게도 늘 되새기지만 그 분의 기도는 신선하기 그지없었다.

나에게 있어서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이며, 내가 옳다고 믿어 온 관념과 삶의 양식에 대한 검토의 도구이다. 그런데 비수와 같은 일침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 학문'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철학이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의해 성장하고 그것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철학이라는 학문은 일차적으로는 탐구에 대한 해답으로서의 빛을 의미하고, 이차적으로는 해답에 따라 사는 나의 삶 내지는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의 빛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더 의미 있는 빛은 나의 삶 혹은 '나'라는 존재 자체로서의 빛이다.

즉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혹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이러한 삶을 드러내는 주체가 되라는 것이 불교의 요청이다. 그리하여 친구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는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한다. '수처작주(隨處作主)'나 '자등명(自燈明)'도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목탁소리

조계사의 비애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조계종은 별로 부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것 같지 않네요. 조계사도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지요."

지난달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정치적 발언 이후 조계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른 글이다. 조계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대스님의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150여건이나 올랐다.

홈페이지는 그래도 덜하다. 19일부터 5일간 조계사 종무원들은 외부로부터 걸려온 항의전화를 받느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로 시달림을 받게 된 종무원들의 입에서 푸념이 터져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조계사가 본의 아닌 '고초'를 겪은 것은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94, 98, 99년 종단사태 때는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스님들간의 폭력사태를 지켜본 불자와 시민들은 사태가 일어난 장소가 조계사라는 이유만으로 조계사를 질타하고 매도했다. 조계사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조계사의 한 종무원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총무원과 조계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죄가 있다면 총무원과 한울타리안에 있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씁쓰레해 했다.

지난 1일 조계사가 개최한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 바자회'에는 영부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민주당과 자민련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희호 여사의 참석은 평소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자주 참석해 온 이희호 여사의 성향을 고려한 조계사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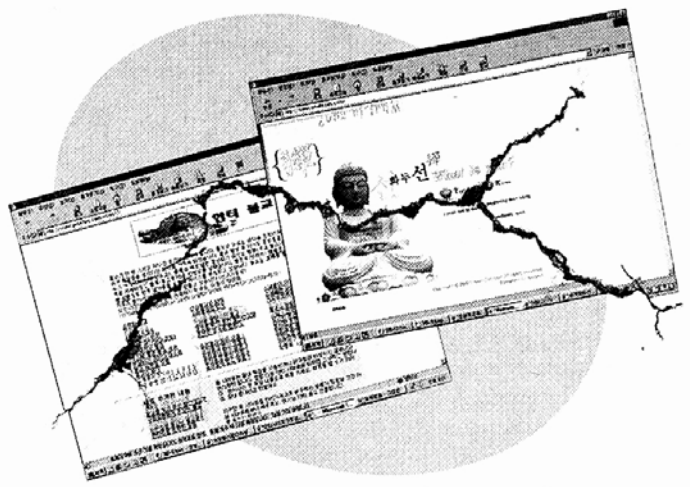
그러나 조계사는 이희호 여사를 초청해놓고도 상당히 노심초사했다. 정대스님의 친여성(親與性) 발언 이후 따가운 눈총을 받아오던 차에, 이번 행사로 자칫 '집권당 사찰'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나 않을까 해서다.

불자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조계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명실상부하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자, 신행 · 포교의 1번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사가 겪는 고충은 곧 한국불교의 고통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조계사의 고충이 더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통신망 명예훼손법' 제정 시급하다

사이버 훼불 이대론 안된다



◇대표적인 불교 비방사이트인 '안티 불교'(왼쪽)와 '안티 선'.

특정단체 인물 · 단체만 법보호
'불교' '선' 등 추상적 의미 비방심각
영국 '하이테크 수사대' 등과 공조
외국 통신망 빌린 훼불사이트 제재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현실공간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곳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 공간. 이 공간이 비판적 여론이나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고 전자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점은 대다수 네티즌이 인정한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보다 맹목적 비난에 주력하는 듯한 '안티(Anti)' 사이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최근 교계를 들쑤신 안티불교(geocities.com/onias77)나 안티선(whatiszen.com/next-board) 등의 사이트가 이 같은 예다.

안티불교의 경우 '조계종 사건 기사모음', '몽고를 막지 못한 팔만대장경', '국립공원에서 돈받는 불교', '우담바라 코미디 대소동', '한반도를 동강낸 중국불교' 등의 코너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안티선 역시 선의 정신을 왜곡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교계는 안티불교나 안티선과 같이 불교를 왜곡시키는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교계의 주장이 행정이나 사법 조치와 같은 현실적인 힘으로 나타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허술한 법망

이들 사이트는 지금도 교계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눈뜨고 코가 잘려 나가는 것'을 강연자실한 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이들 사이트를 제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산하 민간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같은 곳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에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위원회나 수사대는 PC통신이나 인터넷에서 개인과 단체의 정보를 심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수사대는 행정 조치 수준의 위원회 대응보다 더 강력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에는 적잖은 허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사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유언비어, 음란물 판매, 언어 폭력, 매춘 등의 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형(서울대 법학) 교수는 "사이버 훼불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특정한 단체나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불교'만을 지칭할 때는, 수사대의 법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법의 보호 대상인 법인격체로써 볼 수 없다는 말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잘못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불법정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권 관련 조항과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타인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내의 행정 및 사법권은 외국의 상용 통신망에 있는 정보에 대해 어떠한 구속력도 가질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안티불교'나 '안티선'의 경우 미국의 상용통신망에 개설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교계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셈이다.

모니터링, 훼불 사례 축적

이 같은 상황에서 교계는 '관련법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 국내 상황으로는 만만하지 않다. 아직까지도 '인터넷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네티즌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를, 네티즌은 자율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갈등이 끝나야만 관련법을 보완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정보통신부가 그 범위를 성폭력과 도박, 사기 등의 범죄에 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결국 사이버 훼불은 현실 세계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교계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교계의 현실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교계는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법 전문가들 역시 "이들 사이트를 규제하는 판례가 없어, 현재로선 법만을 믿을 수 없다"며 "훼불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사례를 모아 축적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이를 신고, 제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선례(先例)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이테크 수사대'를 편성하는 추세인 만큼, 이들과 공조한다면 외국 통신망을 빌려 국내에 제공된는 사이트의 훼불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관련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정보통신윤리위 권헌영 연구팀장

"맹목적 비난 일삼는 사이트 가상공간서 추방 마땅"



"인터넷이 없던 시대와는 달리 '힘 없는' 개인이라도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목적이든 달성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권헌영 조사연구팀장은 가상 공간의 가치관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안티(Anti) 사이트의 홍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씨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최근 안티 사이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안티 사이트가 누군가에 의해 악용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무작정 비방하는 글로 가득찬 안티 사이트도 있고 특정 기업이나 제품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안티 사이트도 있다. 안티 연예인 사이트 게시판에는 좋아하는 연예인의 경쟁상대를 비방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권 씨는 "안티 사이트가 비판적 여론이나 소수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고 전자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건전한 비판보다 맹목적 비난에 주력하는 듯한 안티 사이트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집단이 악용할 수 있는 안티 사이트의 경우엔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지자가 부족해 폐쇄되는 다른 안티 사이트들과는 달리 생명력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권 씨는 "위원회 차원에서 '안티 사이트'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고, 안티 전문 검색 사이트 '안티21세기(anti21c.com)'가 안티 사이트에 관한 네티즌 반응을 묻는 투표에서도 응답자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정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밀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해인총림율원 제24기 학인모집 공고

해인총림율원은 불법의 생명이고 출가자의 근본인 계율을 연찬하며 수행하는 2년 과정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계승하고 청정 승단을 율곧게 지켜나갈 발심과 원력을 가진 비구스님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교과목
첫해는 「사분율장」을 중심으로 광율을 비교하고, 「청정도론」을 중심으로 교학체계를 정리하며, 「불교문화사」로 율장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둘째 해에는 「범망경」을 중심으로 대승율을 익히고, 「선원청규」를 중심으로 청규를 정리하며, 동안거를 선원에서 정진하고 졸업한다.

■ 응시자격
종단의 기본교육기관(강원 · 기초선원 · 중앙승가대 · 동국대 불교학부)을 이수한 비구 및 2545(2001)년 4월 구족계 수계대상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545(2001)년 2월 20일까지.

■ 전형일자
2545(2001)년 2월 21일(음력 1월 29일) 오후 1시 해인총림율원.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 입학일시
2545(2001)년 2월 23일(음력 2월 1일)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2. 승적사본 1통
3. 졸업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은사 및 강주스님 추천서 각1통
6. 건강진단서 1통
7. 자기소개서 및 서약서 각1통
8. 사진(4X5) 5매
9. 본인도장

■ 문의전화
055-931-1015(율원장),
055-931-1004(율원)
055-931-1001(종무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0번지.

법보종찰 해인사 해인총림율원
주지 수봉 세민 율원장 일장 혜능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①

선수행에 관한 많은 지침서들이 있으나, 이중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전이나 논서(論書)는 많지 않다. 이 경전의 이름은 모두 갖추어서 부르면 〈불설대안반수의경〉이고, 줄여서는 〈대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 〈대안반경〉 〈안반경〉 〈수의경〉 등으로 불리운다.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졌다. 이 경전은 후한(後漢) 시대의 안세고(安世高) 스님에 의하여 최초로 한역되어 인도 밖으로 소개되었는데, 수많은 불제자들의 저술에 인용되고 있다. 경의 앞에 적은 강(康)의 승회(僧會)의 서문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수행법으로 발아들여졌는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이 경전은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경전이다. 이 경의 내용은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신의 안정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수행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방법을 원어로는 '아나빠나사띠(anapana-sati)'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안반수의(安般守意)'로 적은 것이다.

'안반수의'의 수행방법을 살펴보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나(ana)'는 들숨이고 '아빠나(apana)'는 날숨이며 '사띠(sati)'는 의식의 집중이다. 이러한 안반(安般)을 번역하면 수식관(數息觀, 소승선의 수행의 다섯 가지 관법 '오정심관(五停心觀)인 부정관(不淨觀)·자비관(慈悲觀)·인연관(因緣觀)·계분별관(界分別觀)·수식관(數息觀)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좌선을 하면서 호흡의 들이쉬고(入息) 내쉬는(出息) 수를 세는 것으로서 산란한 마음을 쉬고 뜻을 지키는 방법을 말한다.

수식관은 옛날부터 불교 수행자의 전용물로만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또한 올바르게 전수되지 않았다.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선가(禪家)의 가풍(家風)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소승의 수행법이라고 하여 낮추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호흡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인 것이다. 이 수행법을 익힌다면 정신의 피폐(疲弊)와 건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상권에는 호흡의 수련에 임하여 여섯 가지 진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들숨과 날숨의 수를 헤아리는 수(數), 호흡에 의식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는 상수(相隨), 더 나아가서 마음이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고요히 안정되는 지(止), 모든 사물을 관찰함에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된 상태인 관(觀), 다시 고요한 상태인 자기의 주체로 돌아오는 환(還), 밖의 사물이나 내면의 그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세계인 정(淨)이 그것이다.

하권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단계를 내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數)를 헤아리는 수식의 단계에서는 네 가지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四意止) 것과, 상수(相隨)의 단계에서는 또 다른 네 가지 마음의 힘으로써 악을 없애게 된다는 (四意斷) 것과, 지(止)의 단계에서는 네 가지 신통력을 얻게 된다는(四神通) 것과, 관(觀)의 단계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신력(五力)을 얻게 되고, 환(還)의 단계에서는 일곱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고(七覺意), 정(淨)의 단계에서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八正道)을 얻게 된다는 것과, 이 호흡법의 수련 공덕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깨달음 얻는 호흡 수행법

산란한 마음쉬고 건강 찾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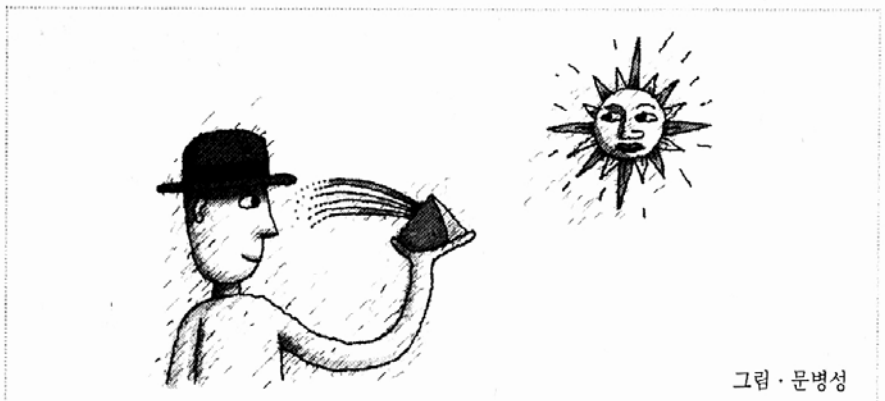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 세상을 분할할 수 있을까

불교와 과학 〈16〉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은 모두 몇 가지일까? 태양에서 쏟아지는 빛깔을 스펙트럼으로 볼 때 비로소 색깔을 감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빛의 색깔을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빛깔의 색깔은 7가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빛깔은 연속적이며 따라서 색깔도 무한정하다. 그러나 인간은 연속적인 무한성에다가 색깔의 이름을 다 붙일 수 없으며, 결국 인간이 붙일 수 있는 색깔의 이름을 만들어서 연속의 빛깔을 불연속의 색깔 이름으로 제한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색깔의 이름과 이름 사이에 끼어 있는 색깔은 앞 뒤 이름의 색깔로 그 이름을 대신한다.

이럴 경우 이름과 이름 사이에 있는 색깔은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56가지 크레파스를 만드는 크레파스 공장 주인에게는 56가지 사이에 있는 무수한 색깔들의 존재는 일종의 색깔의 노이즈(noise)일뿐이다.

마찬가지로 전화기의 소리도 그렇다.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국의 구형 송출방식은 전기신호로 환원된 사람의 소리가 연속적이어서 송출하는 전기에너지와 일대일 대응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 통화할 때 잡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송출은 연속적인 소리의 전기신호를 불연속적인 단위로 끊어주어 한 단위 한 단위로 송출하게 되어 이를 받는 수신기는 단위 전기신호를 다시 소리로 바꿔 주면 되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은 전기신호 0과 1 사이의 존재가능한 중간 미세정보들을 0과 1 의 디지털 단위로 편입시킴으로써, 중간 미세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 전달과정의 전기 노이즈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인공신호는 원래의 자연신호와 차이를 발생한다. 연속을 불연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연속의 단위로 편입된 연속의 많은 것들이 사라진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실제의 소리가 아니라 편집된 소리를 듣고 있는 셈이며, 디지털로 구획되지 않았던 원래의 소리 대신 가상적인 소리를 듣는 상황과 비슷하다. 결국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상세계를 맛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작은 미세한 차이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가상계의 미래를 그 안에 품고 있다.

디지털과 色의 세계

빛의 색깔 무한하나 7가지로 명명

디지털 방식 정밀하지만 가상세계

디지털을 통한 가상성과 현실성 사이의 차이는 디지털 특성과 아날로그 특성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불연속적 단위로 새로이 조합된 정보이다. 반면에 아날로그 정보는 연속적인 어떤 하나이다.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는 정보의 전달과정을 보자. 이 쪽 항아리의 물을 다른 항아리로 옮기려고 할 때, 물통을 갖고 한 통, 두 통, 세 통으로 세어서 물을 옮기면 물의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방식의 물 전달 효과이다.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물의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쪽 항아리 들고 물통 없이 다른 항아리로 직접 부으려고 한다면 옆으로 새고 흘리는 물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물 전달의 노이즈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아날로그 방식의 물 전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통으로 세어서 옮겨진 물은 전달의 효과는 클지 몰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화된 물통 수에 맞춰진 강요된 물의 양을 상대방이 전달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아리 채 들어서 옮겨지는 물은 비록 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양만큼 부어서 물통 수와 다음 물통 수 사이의 적절한 양에서 옮기기를 그칠 수 있다. 결과는 디지털 방식의 물 옮기기는 정확한 양이 문제인 반면 상대방 사람의 의도와 어긋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의 물 옮기기는 물은 흘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양을 줄 수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러한 수사적 비유는 결국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차이에 대한 은유적 비유이기도 하다.

결국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유용성 있게 조립하고 편집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모두가 디지털처럼 전부 분할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말은 이 세계가 모두 색(色)의 존재로서 설명가능한가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다음 호로 넘겨 떠들어야 할 것 같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절 찾아 새해 소망 발원

지구촌 불교 / 베트남 설

국민 대다수가 불제자인 베트남에서 설(테트, Tet)은 '불교 기념일'이나 다름없다. 베트남인들은 설이 시작되기 일 주일 전부터 절을 찾아 한 해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새해의 희망을 기원한다.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절인 헝파고다사(寺)를 비롯해 대도시 인근의 절들은 이 기간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공휴일이 많지 않은 베트남이지만 설 연휴만은 브통 일 주일을 쉰다. 일부 상인들은 아예 한 달을 쉬면서 새해를 준비하기도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보너스와 선물을 준비하고 평소 신세를 진 사람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선물을 보낸다.

이 기간 사찰에는 불단에 올리는 갖가지 공양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거리에는 선물을 나르는 차량들로 큰 혼잡이 빚어진다. 베트남의 설 선물이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이 주로 음식이나 술 등을 주고받는데 비해 나무와 정표를 교환하는 것이다.

설 수십일 전부터 시내에는 '꺼이괏'이라 불리는 작은 나무와 화다오라 불리는 꽃나무가 작은 차량과 오토바이에 실려 각 사무실과 가정을 찾고 있다. '꺼이괏'은 작은 귤나무의 일종으로 크리스마스트리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가진 나무인데 '짱'이라 불리는 작은 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 귤처럼 많은 복이 내려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일주일간 연휴… 불단 공양물 '산더미'
보트피플도 귀국… 꽃나무 선물 인기

우리의 살구나무처럼 작은 붉은 꽃이 붙어있는 화다오는 액운을 몰아내는 나무로 '꺼이괏' 못지 않게 사무실과 가정을 장식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설 전날 저녁 많은 음식을 준비해 옴따오라 불리는 부엌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부엌신 옴따오는 가정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신이다. 이 신은 한 해 그 집안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작성해 옥황상제에게 제출하며 이 보고서에 따라 새해의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신이라고 베트남인들은 믿고 있다. 설 전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옴따오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하고 새해 전에 돌아오려면 일 주일간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전에 출발을 해야하는 것이다.

설 전날 저녁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모여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한다. 늦은 밤에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신에게 가족 모두가 제사를 올리며 새해 첫날 아침에는 부모와 친척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세뱃돈을 받는다.

우리는 어른이 어린이들에게만 세뱃돈을 주지만 베트남은 아는 사람들끼리 상하 관계없이 세뱃돈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어 둘째 날부터는 친구나 은사, 상사 등 평소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세배를 하고 음식을 나눠먹는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뱅충이라는 찹쌀로 빚은 떡을 만들어 먹고 새 옷을 입으며 제기차기와 레슬링, 용춤 등 놀이를 즐긴다. 다만 중국처럼 즐기던 폭죽놀이는 피해가 심해 수년 전부터 금지됐다.

베트남 전쟁 중에 월남은 설 휴전을 믿고 휴가를 즐기다가 월맹군의 습격을 받았는데 월남 사람들은 모두 폭죽놀이인줄 알고 아무런 대비를 않다가 큰 피해를 입었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폭죽놀이는 그 도가 지나쳐 시내 전체가 매연으로 가득했으며 한해 폭죽 값만 수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아무튼 베트남인들에게 설은 불심과 존경, 희망이 모두 어우러진 최고의 축제임에 틀림없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2000년도 『현대불교신문 합본 6집』 發刊!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 생활의 지혜 ·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내 용 : 2000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252호~300호)
- 판 형 : 신문대판 원형 (40cm×55cm)
- 방 법 : 전화 신청 / 입금 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발송비 :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023-25-0007-617, 농 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1255243

※ 2001년 2월 10일까지 신청시 발송료 면제

■ 문 의 :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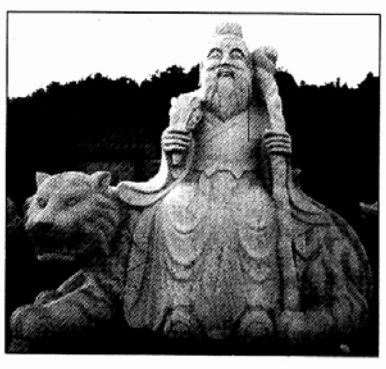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올 겨울 36명이 삼매에 들었다 '나는 행복하다'

동안거 용맹정진하는 재가불자들



◇가부좌를 틀어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는 재가 불자들. 무불선원 동안거에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한 이들의 수행열기는 선승못지 않게 진지하다.



◇동안거 기간동안 틈틈이 선체조를 배우고 있는 재가수행자(왼쪽)

논현동 무불선원 선방
도시민들 쉼터이자
탈속의 통로 역할

하늘과 땅이 고요하다. 간혹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소리만이 고요함을 가를 뿐이다. 하지만 가부좌를 튼 선객들은 벌써 몇 시간째 미동도 하지 않는다. 다시 죽비 소리가 울릴 때까지 선객들에겐 오직 화두만 생각한다. 이 시간만큼은 화두가 세상의 전부다.

'나는 누구인가' '무(無)'—.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윤빌딩 8층에 위치한 무불선원 선방. 동안거 해제(2월7일)를 입주일 앞둔 1일, 이 선방에선 30여명의 재가 수행자들이 선원장 상묵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막바지 정진에 몰두하고 있다. 무불선원은 서울에서도 번화하다는 강남의 빌딩 숲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재가 수행자들의 열기는 심산유곡에서 두문불출하며 촌철살인의 수행을 하는 선승들 못지 않게 드겁다. 재가 수행자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수행'에 빠지는 것은 평소 선(禪)과 교(敎)를 두루 익혀왔기 때문. 참선실수는 물론 선어록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탓에 초심 수행자들도 하루 몇 시간씩 미동도 않고 가부좌를 튼다.

이곳의 재가 수행자들은 화두를 들어 잃어버린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화두 삼매에 푹 빠지는 것은 여간 쉽지 않다. 상묵 스님은 "승 · 속에 관계없이 잡념이 최대의 적이다"고 말한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놓아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괴롭히는 것이 바로 번뇌 망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뇌망상, 즉 잡념을 멸쳐버리는 것이 수행의 첫 관문이다. 화두에만 블두하다보면 머릿속에 맴돌던 잡념이 어느새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역대 선승들은 '화두를 놓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정년 퇴임 후 꾸준히 참선수행에 몰두하고 있는 조동암(73 · 영등포구 문래동) 거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정년 퇴임 후의 생활이 자칫하면 무료해지기 쉽다. 몸과 마음이 빨리 늙는 것도 이 때문이다"며 "참선을 한 뒤부터 마음이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져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가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병을 달고 살았던 선명화(40 · 서초구 잠원동) 보살은 "참선을 하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로병사와 불안 그리고 초조함 등의 원인인 뿌리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에서나 지금 여기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도록 하라(隨處作主)"는 무학대사의 가르침을 체득한 것일까. 그는 "18년 동안 기도와 염불을 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 몰랐던 것이 내면을 성찰하는 참선을 한 뒤부터 진실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무불선원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는 동안거에는 매일 특별한 일이 생긴다. 36명의 수행자들이 좌선이 끝나면 선명화 보살 주변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의 수행경력은 불과 1년밖에 안됐지만, 어느 구참 수행자들보다 철저한 수행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도반 수행자들의 사표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수행일기'와 '1일 10시간 정진'이다. 매일 매일 수행에서 느끼고 체험한 일들을 기록하는 그의 수행일기는 자신만의 읽는 보통의 그런 일기가 아니다. 선승들에게 수행을 점검받는, 공개를 목적으로 한 일기다.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다. 그래서 많은 도시인들은 답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불선원 동안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히려 청량하다고 반가워했다. 단 몇 분만에 도심을 벗어나는 탈속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불선원은 일상의 번잡함을 헤치고 찾아오는 사람들, 잃어버린 나를 찾는 사람 등 누구에게는 삼매에 젖어들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다. 무불선원은 동안거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여러 참선실수와 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신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잠시나마 틀에 박힌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수행의 기쁨도 맛보게 한다.

윤동완(34 · 배우) 씨의 경우가 그렇다. 그가 처음 접한 수행법은 위빠사나다. 라즈니쉬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인도까지 갔었을 정도로 수행관이 확고했다. 하지만 그는 3년 전 무불선원을 찾고 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진리를 멀리서 찾으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동안거 수행에 동참한 사유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한가지 같은 것은 모두가 행복해 한다는 것이다. 7일 동안거가 끝나면 모두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몸일 뿐 그들의 마음만은 계속 '안거중'이다.

"나에게 수행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 "다이아몬드로 쌓은 산을 주더라도 수행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입을 모으는 무불선원 동안거 수행자들의 눈은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기가 번득인다. 자기를 찾는 공부와 함께 부처님의 품에 안겨 속진의 때를 털어 버릴 줄 아는 불자.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참 불자가 아닐까.

글=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무불선원장 상묵스님

참선수행 스님 전유물 아니죠

"가정과 직장에서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동안거에 참여하고 있는 불자들이 있다는 것은 불교적으로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몇몇 불자들은 스님들 못지 않게 열의를 보여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무불선원에서 재가불자 동안거를 지도하고 있는 선원장 상묵 스님은 이 불자들이 웬만한 선승못지 않은 수행자라고 자랑한다. 그리고 그는 참선에는 승 · 속이 따로 없음을 강조한다.

"참선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선 수행은 모든 불제자의 과제이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방의 선원에서 수십년간 참선수행을 해온 상묵 스님이 참선을 하는 재가 불자들에게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다. 하루도 쉼 없는 1시간 이상의 참선 수행이다. 장소는 관계없다. 하지만 밥을 굶어도, 출근을 못해도, 전쟁이 발생해도 이는 꼭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렇게 쉼 없는 수행을 강조하는 스님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작은 불씨가 집을 태우고 거대한 산을 일순간에 태우는 것처럼, 끊임없는 수행의 작은 씨앗으로 인해 일대사를 일순간에 해결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聖人)은 큰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데서 손을 쓰기에 결코 큰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미세한 데서 큰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님은 수행 못지 않게 많은 불자들에게 수행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도심사찰은 포교도 중요하지만 수행의 장을 마련,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수행을 생활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 · 식 · 기 · 행

황기검정콩 수프

몸 붓는데 좋고 심장쇠약에 효험

"스님! 스님!"

최남선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 공기를 맞으며 만해 스님(1879~1944)을 부르고 있었다.

"누구요?" "육당 최남선입니다." "그래요? 최남선은 죽었다던데?" 어둠 속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최남선이 일본 놈들에게 조국을 팔아먹고 빌붙은 날, 신문기사에서 최남선이 죽은 것을 보았오."

"스님!" "일 없오. 나는 금생에 최남선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렇게 발길을 돌린 최남선이 무작정 떠나온 것은 남도 땅 끝의 백련사였다.

결국 최남선은 강진 백련사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동시에 그는 친일파에서 민족주의자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 최남선은 만해 스님을 다시 찾았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그래도 스님이 자신을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한 최남선에게 스님의 처소에서 나온 것이라곤 검정콩에 황기를 넣고 끓인 수프가 고작이었다.

사실, 최남선이 백련사에 머무를 때도 노스님이 끓여주신 공양은 검은콩죽이 전부였다. 그런데 만해 스님의 처소에서도 하루 두끼를 검은콩 황기 수프로 때우는 듯이 보였다. 내심 '이렇게 먹다 보면,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말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며칠째 만해 스님을 기다리며 얻어먹는 수프가 최남선의 몸에 변화를 가져왔다. 신장병으로 몸이 붓고 발등마저 부어서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없었는데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면서 부기도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었다. 어려운 스님의 형편을 생각해서 다소 눈치가 보이기는 했지만 최남선은 검정콩 황기 수프를 먹을 요량으로 만나주지 않는 만해 스님을 계속 찾아다녔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황기 30g, 검정약콩 30g, 감초 달인 물, 대추

요리법 ① 황기를 깨끗이 씻어 감초와 대추를 넣고 끓인다.
② 달여진 황기와 감초를 건져내고 대추는 살만 도려내어 다시 끓인다.
③ 물에 불린 약콩을 위 냄비에 넣어 끓이고 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끓인다.

효능
① 뇌졸중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 만성신염으로 몸이 붓는데 좋다.
② 허약체질에 좋은 강장식, 당뇨병, 만성궤양, 심장쇠약에 효험이 있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⑱

華嚴論云 以自心根本無明分別之種
화엄론운 이자심근본무명분별지종
便成不動智佛 以法界體用
편성부동지불 이법계체용
以爲信進悟入之門 從信及入爲進修
이위신진오입지문 종신급입위법수
乃至經十住十行十回向十地十一地
내지경십주십행십회향십지십일지
摠不離本不動智佛
총불리본부동지불
不離一時一念一法一行上 而有無量無
불리일시일념일법일행상 이유무무량
邊不可說不可說法界虛空界微塵數法門
변불가설불가설법계허공계미진수법문
何以故 爲從法界及根本不動智上
항이고 위종법계급근본부동지상
爲信進悟入故
위신진오입고-

〈화엄론〉에는 '자기 마음 가운데 분별하는 종자인 근본 무명으로써 움직임이 없는 지혜의 부처를 이루고, 법계의 본체와 작용으로써 믿음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삼으며, 여기에서 더 닦아 십주(十住:보살 수행에서 편안히 머무는 지위) · 십행(十行:보살의 수행에서 중생 제도에 노력하는 지위) · 십회향(十回向:중생 제도와 함께 불과〈佛果〉를 향해 노력하는 지위) · 십지(十地:흔들림 없는 부처의 지혜를 내는 지위) · 십일지(十一地:성인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를 떠나지 않는다. 한 순간, 한 생각, 한 법, 한 행도 떠나지 않은 가운데, 한없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법계와 허공계의 티끌 수같은 법문이 거기에 들어있다. 왜 그러냐 하면 법계와 흔들림 없는 근본 지혜 위에서 믿고 나아가 깨달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였다.

又云不同三乘權教 約劣解衆生
우운부동삼승권교 약열해중생
存世間三世之性 說佛果 在三僧祇之外
존세간삼세지성 설불과 재삼승지지외
據此論之旨 圓宗圓信之者
거차론지지 원종원신지자
以自心根本無明分別之種
이자심근본무명분별지종
便成不動智佛 從信乃至究竟位
편성부동지불 종신내지구경위
無有轉變成壞之相 可謂心性
무유전변성괴지상 가위심성
本來自在 隨緣似轉而常無變易者也
본래자재 수연사전이상무변이자야

그리고 또 '삼승(三乘)의 방편에서 가르치듯이, 용렬한 견해를 가진 중생을 상대로 해서 세간에는 삼세(三世)의 성품이 있다고 한 말과 불과(佛果)는 삼아승지겁 밖에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다르다' 하였다. 이런 논지로 보면 원종(圓宗)을 원만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분별을 일으키는 근본 무명이 바로 흔들림 없는 지혜를 이루고, 믿음의 지위에서 마지막 지위에 이르기까지 변하지도 바뀌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그것은 이른바 심성은 본래 자재하여 인연을 따라 변하는 것같지만 변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近來 唯習言說者 難廣談法界無碍緣起
근래 유습언설자 수광담법계무애연기
初不返觀自心之德用
초불반관자심지덕용
旣不觀法界性相 是自心之體用
기불관법계성상 시자심지체용
何時開自心情塵 出大千經券
하시개자심정진 출대천경권
經不云乎 知一切法 卽心自性
경불운호 지일체법 즉심자성
成就慧身 不由他悟
성취혜신 불유타오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비록 법계의 걸림 없는 연기법(緣起法)을 말하지만 애초부터 자기 마음의 덕의 작용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법계의 성상(性相)이 바로 자기 마음의 본체와 작용임을 보지 못하는데 언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티끌을 열어서 삼천대천세계의 큰 경전을 연설하겠는가. 경에도 '일체의 법이 마음의 자성(自性)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룬다. 결코 다른 것에 의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았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벽암스님

신원사 조실

"선업 저축하는게 제일 부자"

겨울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계룡산 자락, 서울서 새벽에 출발해 오전 9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서야 신원사 산문 앞에 도착했다. 사천왕상과 범종각 아래로 펼쳐진 논 · 밭이 아련하다. 수 백여 년을 버티고 선 대웅전은 일주문을 처음 세운 보덕(寶德) 스님의 기상을 내뿜고 있었다.

신원사 경내는 청정했다. 돌, 잔디, 기와, 벽돌 모두 세간의 모습과는 달리 본래의 빛깔을 그대로 발하며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신원사는 651년 백제 의자왕 시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수행자에게 승풍(僧風) 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던 보덕 선사의 뜻이 서려있는 곳이다. 지금은 벽암 스님이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기자가 오전 10시 이전에 신원사에 도착할 마음으로 서벽에 서울서 출발했던 것은, 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 벽수선원의 문 밖을 나서는 게 하루에 고작 3~5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공양을 위해 선방을 나서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가 스님을 뵐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한다.

스님의 법제자인 묘봉 스님을 따라 가 선방의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하얀색 털모자를 쓴 벽암 스님이 눈에 들어왔다. 공양 시간에 맞춰 선방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인지, 스님의 옷매무새는 단아했다.

"아! 현대불교신문사. 모두들 잘 지내요. 예전에 한 사람이 날 찾아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별 말을 못해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요즘 건강도 좋지 못해, 나는 제 몸 하나 추스르기 바쁜 노승입니다. 먼 곳을 왔으니 차나 하고 가세요."


◇'실천하지 못할 것은 말하지도 말라' 고 가르치시는 벽암스님은 언제나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셨다.

죽음에 이를때까지 공부 뒤로 놓지말라

여든이 가까운 나이 지만, 스님의 얼굴에서는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방안에 경전이 펼쳐져 있었다. 스님은, 기자의 눈길을 감지하셨는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신다. "스님은 죽음에 들어갈 때까지도 공부를 뒤로 밀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나이가 들어도 수행자이다. 부처님이 이룬 대각의 경계에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초발심'을 수십년동안 놓지 않았기에,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지금과 같이 날카로움과 자상함을 함께 갖춘 스님이 되신 것이 아닐까.

"스님, 이렇게 좁은 방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중에게 방이 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방장(方丈)' 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유마거사의 방이 일장사방(一丈四方)이었다는 것에서 왔는데, '한 칸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라 해서 붙여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납자의 본분이에요. 또 찾아주는 이 있으면 만나고, 그 인연에 맞춰 법문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공덕이지요."

수개월 간 스님의 생활을 지켜 본 신원사의 한 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큰 스님의 일상에서는 흐트러짐을 본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매사에 정성을 쏟고 관심을 보이시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정하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스님이 선방을 나서자 신원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동(學童)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스님의 거동을 돕기 위해서다. 원래 스님의 경력이나 연배라면 족히 시봉드는 스님이 있을 법한데, 스님은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신다. 대중 스님들이 벽암 스님에게 시자 둘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자기공부도 바쁠텐데" 한사코 시봉 거절

그때마다 스님은 "불가에 격이 있을 수 없다. 자기 공부도 바쁠텐데 언제 남 시중들 시간이 있겠느냐"며 거절하셨다고 한다.

"스님은 대중의 보시를 받아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공부하지 않은 스님은 죽어서 소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록 힘든 구석도 있지만, 내 몸 하나 내가 건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시봉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촌각을 아껴 공부에 써야 합니다."

계룡산을 휘감고 있던 차가운 기운이 선방의 문지방을 넘는 순간 몰아닥쳤다. 이때 스님은 따뜻한 생각을 해 보자며, 예전의 일화 하나를 들려주셨다.

'따사로운 햇살이 있는 날이었어요. 날이 좋아 선방을 나온 김에 산문까지 산보를 갔다가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았어요. 그러자 나도 모르게 신세 한탄이 절로 나왔죠. 젊은 시절에 공부를 잘 못해서 지금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게 아니겠어요. 그때 벌떡 일어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만드는 데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부처님께 삼배하고 기필코 성불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스님의 이야기는 불자라는 이름만 붙이지 말고 진실로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입니까?"

"맞아요. 우선 마음을 비우고 항상 생활해야 해요. 또 바른 신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심을 가지려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팔정도에 따라 살면 되지요. 그리고 삼독을 버리고, 자성을 밝히도록 부지런히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보시했던 사람의 집에 소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은 면할 수 있어요."

스님의 점심 공양은 너무 간소했다. 밥과 미역국, 그리고 소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그래도 스님은 달게 드신다. 그리고 함께 공양하는 대중 스님들에게 "스님들 많이 드세요. 수행자는 몸이 무거워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라며 농담을 던지는 여유도 보이신다.

"지금까지 참선과 기도로 살아왔으니 참선과 기도말고 무엇이 더 있겠어요. 깨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청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凶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3.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꿈해몽 꿈물이 삶물이 대백과

정현우 박사 지음
신국판
값17,000원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태몽, 그 출생의 비밀〉〈꿈물이 삶물이〉
■ 부록 〈결혼 부부궁합〉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昇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법룡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법룡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택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물이 삶물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협학관이나 사찬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틀여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書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집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덮개표지 · 금박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용림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벽암 스님은

참선 · 계행 후학 모범



불교계에 정화의 열풍이 불 당시 벽암 스님은 '맹장(猛將) 중에 맹장'이었다는 주변 스님들의 말씀이 있어, 신원사를 향할 때까지만 해도 호랑이 같은 모습을 연상했었다. 그러나 스님의 뵙고 나니 세간의 나도는 말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었다. 스님은 낯설음과 긴장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인품의 스승 그 자체였다.

벽암 스님은 192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일본 관서공업전문대에서 공학(工學)을 공부했다. 그 후 스님은 범어사와 수덕사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스님이 출가를 결심하는 단초가 되었다.

수덕사에서 6년 간 공부하다가, 1947년 적음 스님을 은사로, 매명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서울 호국사 역경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동국학원 이사, 선학원 원장 및 이사장,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조계종 종정 직무대행 등을 거쳐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맡고 있다.

벽암 스님은 현재 공주 계룡면 양회리에 있는 신원사 벽수선원에 주석하며, 대중에게는 소탈함과 따뜻함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한 참선과 계행으로, 수행자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스님만의 도량석'.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스님은 선방을 나고 들때마다 대웅전전각을 향해 일일히 목례로 참배하신다.

팔정도 따라 살면 부처님처럼 사는 길

달으면 부처이고, 미혹하면 중생인데 언제나 수행해야지요. 나이 먹었다고 수행자의 본분을 놓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맑은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게 가능하다.

스님은 마음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묵언(默言)'을 권한다.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과 말하기를 아끼지 않지만,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서 법문하기를 싫어한다. "그 자리에 서면 스스로 실생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말하기가 쉽고 그것은 죽은 법문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말보다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고, 실천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언제나 벽수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납자들에게 자상한 가르침과 공부 점검을 해주신다. 안거가 시작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선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 후학들에게 용맹정진을 몸소 보여주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원사에는 외국인 납자들이 많았다.

〈만행, 하바드에서 화계사까지〉라는 책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잘 알려진 현각 스님도 신원사에서 동안거를 난 적이 있다. 현각 스님은 그 때를 회상하며 "나는 신원사에서 살면서 한국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새록새록 가지게 되었다. 수행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해야 한다는 옛 선사의 가르침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벽암 스님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동안거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선 수행에 참석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할 정도로 벽암스님은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것.

벽암 스님은 또 계행(戒行)을 늘 강조한다. "청정한 몸에서 청정한 정신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불교 안팎에서 남을 헐뜯는 말들이 종종 나오는데,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님이 지키는 계율의 범위가 얼마나 섬세한 부분에까지 미쳐 있는지를 알게 하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스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은 후 물로 입가심하면서 서서 하지말고 앉아서 하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입가심하고 나서 물 뱉을 때 서서 하면 옆 사람에게 물이 튀게 되고, 또 미물에게는 서서 뱉는 물이 폭포수나 다름없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다스리는 철저한 수행관은, 스님이 지금까지 법문집 한 권 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범부의 생각에, 수행이 깊어지면 그 경지를 풀어서 가르침이 될만한 말을 모아 펴내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스님은 "스스로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경계를 어찌 말과 글로써 전하려 하겠는가"라며 그것을 극구 반대한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모든 행동과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겠지만, 한날 범부에게는 스님의 경계를 엿보고 싶을 뿐이다. 그래 스님에게 매달리니 "세상의 일이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해서 개인적으로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선업(善業)을 쌓아야 합니다. 업장소멸을 위해 우리 모두 매일 참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라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이제 들어갑시다"며 선방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셨다.

걸으시다가 대웅전을 향해 스님이 수차례 목례를 했다. 스님은 언제나 대웅전과 중악단 등 신원사 곳곳의 전각을 향해 수십차례 목례로 참배를 하시는 것이 일과이다.

서로 몸과 마음 낮추면 용서도 화해도 가능

'스님만의 도량석'을 끝내셨는지, 벽암 스님이 선방 문 앞으로 다가오셨다. 기자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스님에게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그만을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겠습니까"라고 여쭈었다.

"아직도 멀었어요. 예전에 효봉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알았으면 스스로 분명한 법이다'라고 말이죠.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 아닌 듯하다. 이미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설해놓은 방편이 수백 수천의 경전이고 어록인데, 행하지 않고 예까지 와서 길을 묻는다는 호통같이 들렸다.

선방에 들어가시는 벽암 스님을 향해 합장 반배하고나서 묘봉 스님은 큰 스님의 '호통'을 이렇게 설명하 주었다.

"그렇다고 좌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숙명론이니 하는 것처럼 정해진 이치대로 불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순간 선과 악이 교차합니다. 우주만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 가장 변화무쌍합니다. 선업과 악업을 무수하게 쌓으니까요. 따라서 '잘 사는 길'이란 인과를 믿고 인과가 무서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고생스럽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인연으로 초래된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헤아리는 그 생각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많이 배워서 얻는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바로 인과를 살피는 혜안인 셈이다. 지혜가 있는 이는 전생의 악업으로 해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풀어나가야 하는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삶도 가닥을 잡아가며 해결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삿된 것을 끝없이 따라다닌다는 말이다.

요즘 신원사를 찾는 불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벽암 스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엿보는 불자라면 환희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신원사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글=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일진스님

내가 처음 일진스님을 만난 것은 운문승가대학 입학 날이다. 그때 스님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경반인 〈화엄경〉의 중강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꽃꽂이, 붓글씨 등 다방면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그야말로 '운문'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어쩜 저리도 다재 다능한 스님이 계실까 할 정도로 그때 내 눈에 비친 일진스님은 참으로 고왔고 또 여성스러움 그대로였다.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이 그 많은 제자중 유독 일진스님을 더 아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진스님은 학교를 졸업하고 후학을 위해 운문사로 내려 온 뒤로 몸과 마음을 온통 바쳐 학장스님 곁에서 손발이 되어드리고 있다. 어른을 모신다는 것, 그리고 그 어른의 모든 면을 채워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스승을 하늘같이 받들고, 스승의 가르침을 한 번도 거절하는 법이 없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스승을 모셨던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불쑥 스승의 방을 노크하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뵈어도 되느냐고 여쭈어 보고 그리하라고 하면 찾아뵙지만, 기다리라고 하면 문전에서 스승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뵙는 그

어른 제대로 모시기 '대표적'
'운문' 하면 생각나는 스님

제자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의 제자도 자신의 스승을 그렇게 깍듯이 모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제자를 가르친 모습인데 대우받고자 원한다고 모든 제자가 다 그 스승을 대우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제자 또한 제자에게 말보다도 손수 스승을 깍듯이 모셔 왔기 때문에 무언 중에 이루어진 교육일 것이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가 아닌, 요즈음도 이런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니 얼마나 본받을만한 이야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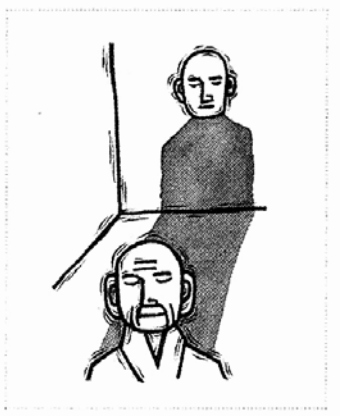
일진스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학장스님의 제자이다. 허나 스승을 모시는 마음은 우리와 다르다. 강단에서 강의를 하여 스승에게 배운 학문을 전승시키는 것만이 스승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 얼마만큼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마치고 자기의 본분을 찾아 떠날 때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 생활 전부에 쏟아 부어 넣지 않는 것이 대부분 제자들의 습성이다. 나 홀로 배우고 닦아서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며 망각하고 살기 일쑤인데 일진스님은 달랐다.

'운문'을 떠나지 않고, 많은 후학들이 마음 편히 졸업을 하고 그리고 훗날 찾아가도 낯설지 않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으면서, 스승 곁에서 스승이 가장 편하도록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고 있는, 후학들에게 산교육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운문인들은 말한다. 어쩌다 운문사에 가면 모두가 낯설고 어색한데 그래도 낯익은 일진스님이 학장스님 곁에서, 선 · 후배들을 기억하고 챙겨주니 참으로 고맙고 잠깐이나마 마음 편히 다녀 올 수 있다고.

일진스님은 늘 학장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한번도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루종일 운력을 하고, 강의를 하고, 힘든 일과를 보낸 날일지라도 한밤중에 용무가 있어 스님께서 찾으시면 모든 일 제쳐 놓고 스님 곁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먼저 헤아리고 챙겨드린다. 도량을 손질하는 일, 학문을 연구하는 일, 그밖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학장스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큰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개인 일을 게으름 피우지 않는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을 한다. 강의를 하면서 또 소



임을 맡으면서 틈틈이 포교를 할 곳이 있으면 병원이든 군법당이든 어디든지 찾아다니고, 학인들에게 외전으로 일어를 가르친다. 또 사찰의 많은 행사에 직접 꽃꽂이도 한다.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운문의 도량에서 큰 대들보 역할로 운문의 많은 학인들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일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일진 스님이 있기에 운문의 도량은 늘 잘 여물어져 있고, 언제 달려가도 어머니품속 같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내가 운문사를 떠나온 뒤로 일진스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열 손가락으로도 꼽히지 않지만 함께 살면서 느낀 정이 늘 내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워하는 스님이다.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묻어야지 그것을 꺼내어 모양을 다듬고 수다스럽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수행자가 살아가는 모습일 터지만, 참으로 그리운 날 나는 일상을 떨쳐버리고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운문'으로 달려갈지도 모르겠다.

'운문'에 가면 나를 기억해주고,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도록 배려해 줄 나의 소중한 선배님이 늘 계시다는 것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흐뭇한지….

세원사 주지

法華三部經講院

▶ 男 · 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3.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5.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6.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7. 卒業惠擇 ■ 수학증서 수여 ■ 교직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화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崔 光 永 책임교수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엽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제 5 기생

원봉불교 어산의식 교육원

본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교육과정	교 육 내 용
기본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3개월 ▷ 준 비 물 : 목탁, 요령(별도구입) ▷ 교육내용 : ① 기본예의 ② 천수경 ③ 행선축원 ④ 예불 ⑤ 목탁 치는 법 ⑥ 요령
중급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기본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기 간 : 1년 ▷ 교육내용 : ① 상주권공 ② 대령관욕 ③ 권공 ④ 지장청 ⑤ 시식(관음시식, 진시식, 구빙시식) 천수북, 법성게북, 장엄염불, 진언쇄줄 등
연구과정	▷ 모집인원 : ○○명 ▷ 자 격 : 중급과정 수료자 및 동등 이상인 자. ▷ 기 간 : 1년 ▷ 준 비 물 : 별도지참 ▷ 교육내용 : ① 의식을 실습하고, 각종행사에 동참 할 수있음. ② 예수 제의식 ③ 천수바라 사다라니 바라 나비춤등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② 반명함판 사진 1매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일 시 : 2001년 2월 20일(음력 1월 28일 화요일)오전 9시 30분
※ 장 소 : 밀양시 초동면 오방리 222번지 작약산 광제암 ☎ 055)391-1274 핸드폰 011-883-4404
※ 기 타 : ① 중급 및 연구과정 이수자에게 본 교육원 수료증 수여 함.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교육원 사무실로 문의 바람. ③ 교육기간 : 기본 및 중급과정 오전 9시~12시 30분

작약산 광제암 주지 원 봉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 제5기 동문의 밤

산사의 하이얀 눈을 비집고 이름모를 꽃이 따사한 생명의 햇살에 안기여 꿈을 꾸는 계절, 동문들의 모습이 하나둘 스쳐 글을 빌어 소식을 전합니다.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삶의 질곡들이 내게 남아있는 세월을 밀고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 소중한 인연을 그리워하며 동문들을 뵙고 싶어합니다. 꼭 한번 참석하여 좋은 인연의 시간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안 건
■ 회장 및 임원선거 건
■ 전임 회장 및 임원인수의 건

바쁘신 가운데도 꼭 참석하시어 동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불기 2545년 (서기 2001년) 2月 20日 (火요일)
■ 시간 : 오후 6時
청진장 (종로구청 앞)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5기 동문회추진위원장 도성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 제5기 동문회추진부위원장 법안스님

혜거스님의
경전강좌 안내

해거스님께서는 다년간 불교라디오방송에서 자비의 전화상담과 경전강의를 하셨습니다. 본 선원에서는 신사년을 맞아 새로운 경전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유식 삼십송
강의 일시 : 3월 2일 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교 교리
강의 일시 : 3월 7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3개월간 회비 6만원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선원

TEL : 02) 445-8484 FAX : 02) 445-8043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단지 186-3

록음악 울려퍼지는 일산 여래사

뮤지컬 전용극장 열다

"지역문화공간 역할 톡톡"

첫 무대 '렌트 & 시카고' 공연





◇3-4일 개관 기념 공연을 가진 뮤지컬전용소극장(여래사 지하1층) 내부. 개관기념으로 무대에 오른 '뮤지컬 렌트&시카고'의 한 장면(왼쪽).

지난 3일 통도사 일산 포교당인 여래사 지하 1층에는 오후 내내 록음악이 울려 퍼졌다. 바로 이 곳에 들어선 소극장 개관 기념 공연 때문이다. 지난 해 극단 신시뮤지컬컴퍼니가 국내에 초연해 호응을 받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렌트와 시카고의 명장면만을 모은 '뮤지컬 렌트& 시카고'가 이 날 무대에 올랐다. 인순이 남경주 최정원 허준호 등 지난 해 공연에 참가했던 유명 배우들이 모두 출연했다.

절에서 뮤지컬을 본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 다소 멋쩍어 하던 관객들은 열정적인 춤과 노래가 이어지자 이내 긴장을 풀고 장단에 맞춰 손뼉을 쳤다. 얼마 전 일산으로 이사왔다는 서종욱(30)씨는 "서울에서만 공연했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그것도 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즐거워했다.

사찰은 이제 신행 요람만이 아니다.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음악회와 전시회, 각종 체험행사 등으로 문화 포교에 나서는 사찰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실험단계. 3일 신도시 포교당인 일산 여래사에 들어선 상설 소극장 '신시씨어터'는 문화 포교가 실험단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원 당시부터 지역 사회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겠다는 꿈을 꿔왔던 여래사는 신시씨어터 개관으로 그 본격적인 닻을 올린 셈이다.

신시씨어터는 일년 내내 뮤지컬만 공연하는 뮤지컬 전용극장. 작년 7월 서울 정동에 문을 연 '난타' 전용 극장에 이어 뮤지컬 상설 극장으로도 두 번째다. 220석 규모의 소극장이지만 무대는 높이가 7.5m 너비 11m의 중극장 규모다. 대형극장용 좌석에 최신 영상 장비와 조명 음향 장치를 갖췄다.

절 지하의 빈 공간을 이용해 소극장이 들어선 게 아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일산 시민들을 위해 문화포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던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이 일산에 포교당을 내면서 처음부터 지하를 소극장용으로 설계했다.

운영은 극단 신시뮤지컬컴퍼니가 맡는다. 신시뮤지컬컴퍼니의 작품 발표장으로 쓰이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연극과 가족극 위주로 대관도 할 예정이다. 3월 어린이 뮤지컬과 4월 극단 신시의 새로운 코미디 뮤지컬인 '데임스 앳 씨' 공연 계획이 잡혀 있다. 박명성 대표는 "가족극장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면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대관한다는 생각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작년 11월 KBS홀 공연 모습.

티베트 음악가 나왕케촉 그래미상 뉴에이지 부문 후보

올 7월 한국공연

티베트의 전통 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사상을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 나왕 케촉이 올 여름 무대와 앨범으로 한국을 찾는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왕 케촉은 오는 7월초 한국을 다시 방문해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4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지난 해 11월 공연은 단 1회에 그쳐 아쉬움이 많았다. 한국을 다시 찾고 싶다"는 나왕 케촉의 바람을 들은 인천불교청소년연합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미상 뉴 에이지 부문에 3번이나 후보로 올랐던 그의 앨범은 공연에 앞서 6월경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낸 7개 중 그가 직접 제작한 3개의 앨범에서 명곡만을 추린다. 작년에 나온 앨범 '저 먼 곳(In A Distant Place)'이 올해 그래미상 뉴 에이지 부문 후보로 오를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의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권형진 기자

문화재로 감상하는 뱀

중앙박물관, 28일까지

우리 전통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형상화되었던 뱀 관련 미술품을 한 자리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뱀띠 해를 맞아 '복희여와도' 등 뱀 관련 문화재 8점을 28일까지 전시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뱀의 대표적인 모습은 십이지(十二支)의 하나로서다. 하지만 고대 벽화 속에 등장하는 '복희·여와' '일신·월신' '현무' 등에서 뱀은 천지개벽과 음양조화를 상징하는 창조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신라 토우 속에서는 인간의 소박한 이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번 전시는 특히 고구려, 신라, 중앙아시아의 뱀 관련 미술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율림 학예연구사는 "이번에 전시되는 '복희여와도'는 중앙아시아에서 출토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뱀 관련 미술품과 좋은 비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복희여와도(마에 채색, 188.5×93.2cm, 중앙아시아).

문화소식

김규동 시인 '詩刻展'

원로 시인 김규동(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76)씨는 1월30일부터 4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시와 목각을 결합한 '시각(詩刻)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102점이 나왔다. 자신의 시, 두보·김삿갓·정약용 같은 옛 사람들의 시, 한용운(사진)·신채호·김소월 등의 작품, 보들레르 등 외국 시인들의 시와 문장을 목판에 새겼다.



◇ 만해 한용운(64×66cm).

김씨는 "어느 날 팔만대장경을 보고 시를 나무에 새겨서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작업을 통해 말의 소중함, 봄립문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봉축앨범 동참자 모집

좋은 벗 풍경소리가 불기 254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작하는 신세대 가요풍의 찬불가 '봉축의 노래' 기념앨범에 동참할 끼 있는 젊은이 '꾼'(건달바)를 모집한다.

작사, 작곡, 가수, 랩퍼, 댄서로 나눠 모집하며 작사와 작곡 부문은 작품 및 음악테이프를, 가수 부문은 노래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 이상 25세까지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28일까지. ☎02)717-6985

김규동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호 '현대불교'에서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양식의 현대 사찰건축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답양의 정토사 같이, 전통사찰 건축양식이 아닌 매우 현대적인 건물이지만 선(禪)적인 미학을 고스란히 살려낸 새로운 형태의 사찰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 기사 가운데 어느 한 문장에 눈길이 갔다. "이 곳에는 비어있되 일체를 담을 수 있는 선의 경지가 표현되 있다."

'비어있되 일체를 담는다'는 표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형식인 하이쿠(俳句)와 그 대표적인 시인 바쇼(芭蕉, 1644~1694)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평범했던 단시 형식에 선(禪)적인 깨달음의 세계를 담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다. 하이쿠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조에서 마지막 종장을 생략한 것과 같다. 대상을 한 순간에 포착하여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하되, 결론 부분을 생략했기 때문에 독자 역시 직관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 여백을 채워야 한다.

바쇼의 하이쿠

오래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네
풍덩!

무한한 시공간 담을 수 있는 작지만 큰 그릇

우리는 이 짧은 시를 보고 묘한 공감의 미소를 짓게 된다. 그리고 어느 새 우리 마음도 하나의 연못이 되어, 잔잔한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오래된 연못 같은 우리의 일상에도 풍덩 소리가 울리는 날이 있을까? 그 소리에 의해 존재의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그 무엇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가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돌기만 하는 생활에 금이 가는 때가 있다. 벽에 걸린 달력이나 시계 속의 시간이 아닌,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나며 영원을 머금는 시간! 그때 돌처럼 굳은 일상의 주름살 속에 숨어 있던 생의 이면이 갑자기 백일하에 드러난다. 별안간 일상의 흐름이 끊어지면서, 전혀 낯설고 이질적인 누군가가 나의 의식을 대신 차지한다. 그때 모든 것은 마치 개벽의 첫새벽처럼 '난생 처음' 보는 신비로운 것이 된다.

지극히 짧되 영원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실존적 자각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때 존재의 뿌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아집한 법열에 휩싸인다. 그러나 그 뿌리는 곧 이어 다가오는 일상에 다시 덮여지고 만다. 그래서 인간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그 신비한 체험의 잔영을 영원히 잡아두려는 것이다. 하이쿠는 지극히 작은 말의 그릇이지만, 오묘한 정신적 깨달음을 담을 땐 전 우주를 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순간적으로 포착된 기민한 선미는 과감한 생략으로 인한 긴 여운과 넓은 여백으로 의해 그 맛이 더욱 오래 지속된다.

우주를 포용하는 영롱한 이슬방울, 영원을 품은 찰나, 비어있되 무한한 시공간을 담을 수 있는 작은 그릇은 바로 여기에 있는 내 마음이 아닐까?

■문학평론가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 강) (핑 크) (노 랑) (연 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 강) (노 랑) (오 색) (차걸이등)

만 월 등



(핑 크) (노 랑) (오 색) (만월장등)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촬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건전지용 초.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5cm,30cm,50cm,
1M,2M,3M,5M,
10M 기타주문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명상 끝에 오는 해탈의 기쁨

깨달음 뒤의 깨달음 소걀 린포체 지음

죽음은 인간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티베트의 고승 소걀 린포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최근 우리말로 출간된 소걀 린포체의 명상일기 <깨달음 뒤의 깨달음>(오진탁 옮김, 민음사)도 삶과 죽음 등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그는 티베트에서 태어나 잠양 켄체 최기로되 등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전통 불교의 가르침을 받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한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 고승이다.



그는 먼저 "우리가 죽음에 직면해서 고뇌와 어려움을 겪게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상함'에 담겨 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고 설파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터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수행을 할 것을 제안한다.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알고, 죽음을 낯설게 여기기보다 죽음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죽음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식은 '바로 지금, 이 삶'에서 명상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란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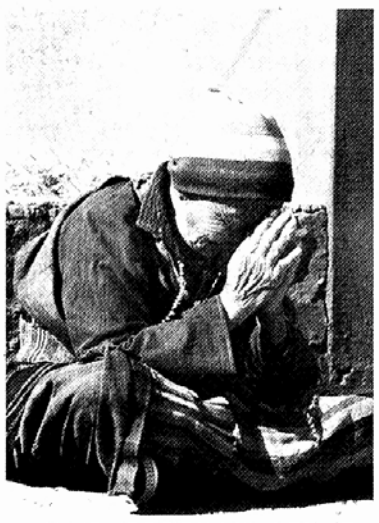
죽음과 명상 그리고 마음의 본성 등에 대해 적고 있는 이 책은, 죽어가는 사람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죽어 가는 사람은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불성은 우리 육신에 가려져 있다가 우리가 육신을 버리는 순간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글쓴이가 말하는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일상의 충실함에 있다. 깨달음이란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잔다는 것과 같다." 명상 수행의 궁극은 일상의 하나하나에 몰입해 자아의 산만함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행을 생활화하기란 쉽지 않다.

충실한 일상이 곧 진리

마음 놓고 쉬면 본성 도달

글쓴이가 자주 명상법을 소개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선 참다운 명상법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식처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마음을 안식처로 가져간다'는 것은 참선을 통해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이끄는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착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이다. '마음을 쉬게 한다는 것'은 마음자락을 넉넉하게 펼치고 긴장을 푸는 것이다. 또 명상중에 눈을 떠 청각, 시각, 촉각 등 오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가볍게 입을 벌려야 한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 글쓴이가 말하는 명상법은 애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것이다.



◇명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최고의 선물. 티베트의 한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다.

마음을 놓고 쉬게 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선량한 마음 즉 마음의 본성(리그파)에 도달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가 가르치는 명상의 최고 목적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음식물을 섭취하듯 매일 명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면 본성을 볼 수 있게 되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글쓴이는 단언한다. 명상은 자신에게 스스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이책의 한구절

■"나의 메시지는 자비와 사랑과 자애의 실천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뿐 아니라 인간사회 전체를 위해서 참으로 쓸모 있다. 그래서 나는 이타적이고 자애롭게 남을 대하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더욱 더 자애롭게 되기 위해 내 에너지와 명상 등에 집중한다. 이것이 진정 근본적인 불법이다."

—〈아, 달라이 라마 지혜의 큰바다〉(강옥구 편역, 동쪽나라). 값 7천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애다. 인간애가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성취할 수 없다. 더 행복한 삶, 더 행복한 가족, 더 행복한 이웃, 더 행복한 나라를 갖고 싶다면 그 열쇠는 내적인 질(質)에서 찾아야 한다. 지구에 사는 50억 인구가 백만장자가 된다 해도 내적인 성장이 없다면 평화도 행복도 있을 수 없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공경희 옮김, 문이당). 값 7천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애

내적성장 있어야 행복한 삶 이르러

■"우리가 잘 닦아온 미세한 마음은 자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마음이 일정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자기의 다음 목적지를 고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탈의 길은 가까워지고 삶의 질도 한 단계 높아지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 지구의 희망을 말한다〉(오정숙 옮김, 롱셀러). 값 8천8백원.

■"무상이나 죽음 등을 명상하지 않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성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동기들을 지니는 모험을 무릅써야 한다. 반면에 순수한 다르마를 위장없이 수행한다면 행복을 지속시킬 기초는 빠르고 또 견실하게 놓여진다."

—〈달라이 라마,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황국산 옮김, 예문당). 값 3천5백원.

■"생명의 기반은 의식이다. 몸이 의식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면 죽음이 오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도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인간 존재의 영역을 넘어선다. 욕계와 색계 그리고 무색계가 그것이다."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이강혁 옮김, 예류). 값 9천원.

수채화 같은 깨어있는 삶

법정스님 수상집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난 20년 여 간 법정 스님이 쓴 글 가운데 계절에 관한 수상들만을 모아 엮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레)이 나왔다.

이 책은 모두 다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편지'는 그간 보여지지 않았던 스님의 일상과 지인들에 대한 배려 등을 엿볼 수 있다.

류시화 시인은 이렇게 적고 있다. "거듭된 간청으로 내가 0' 편지들을 여기에 수록한 것은 스님의 뜻밖의 인간적인 모습과 더불어 '수행자는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제를 버리고 하루하루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일깨우는 스승의 목소리가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걸출한 개화 여승의 주옥같은 선문집

수덕사 재발간 '일엽선문'



"생명이라고 느끼기 전이 본 생명입니다. 부처님께 본 생명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불교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근본 목적을 적은 이 글은, 개화기 최초의 여류문인으로 여성운동 등을 주도했던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입산했던 일엽 스님이 어느 신도 부부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다.

예산 수덕사 비구니 암자 환희대는 1월28일 일엽 스님의 입적 30주기를 맞아 스님이 입산 후 남긴 선 어록과 수상 그리고 서간문을 정리한 선 문집 〈일엽 선문〉을 내놓았다.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비구니로 일컬어지는 일엽 스님(1896~1971)은 '한국 최초의 여류문인', '개화기의 여성 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에 가려 스님의 구도자적 삶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스님은 '문자는 망상'이라는 만공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30여 년 동안 글을 쓰지 않는 것을 물론 산문을 나가지 않고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용맹정진을 해 수행자들의 사표가 됐다. 또한 춘성 · 청담 · 혜암 · 동산 스님 등 당대 선승들과의 교류와 비구니 총림 건설을 위해 연극을 공연하는 등 불교계의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일엽 스님의 문집은 지난 74년 스님의 입적으로 기리기 위해 입산 전에 쓴 글과 노년에 쓴 선문들을 모아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이라는 이름의 상하 두 권으로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이 문집은 스님의 문도와 법손들이 입산 후에 쓴 법어와 선문만을 가려 뽑아 스님의 선과 구도의 세계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대 문법에 맞게 새롭게 엮었다.

이 선 문집은 스님이 쓴 시를 시작으로 법문, 수필, 논설, 서한 등이 두루 실려 있어 스님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당대 선승들과의 정신적 교류와 인간적 면모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마음 다스리는 깨달음의 노래 모음

'선시 303수'



"우물 마르니 물에 고기가 없고(忍受井枯魚少水)/ 코끼리 떼 다다르니 쥐들이 등나무에 오르네(寧容象逼鼠侵藤)/ 이 위태로운 경계 속에 속히 수행을 하여(覩玆脆境早修行)/ 부지런히 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 왕생하여라(勤念彌陀生極樂)"

이 글은 〈석문의범〉에 나오는 선시다. 인간의 행 · 불행은 마음이 편안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해왔고, 또한 그 길을 말해왔다.

권영한(덕은불교대 교수) 씨가 엮은 〈선시 303수〉(전원문화사) 속에서는 그러한 깨달음의 노래 가운데서 정선한 선시 303수를 담고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우리 조상들은 동물을 어떻게 봤을까

'33가지 동물로 본…'

김종대 지음



우리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의미(상징)가 담겨 있다. 이런 점에서 유 · 무형의 조형물들은 상징의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동물은 우리 문화에 어떤 의미를 아로새기고 있을까.

신간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다른세상)는 우리 민속에 나타난 동물들에 대한 상징과 변화를 '문화'라는 잣대로 해석한다. 글쓴이는 경기대학교에서 민속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종대(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씨. 이 책에 등장하는 33가지 동물 상징들 또한 인간사와 연관된 의미들이다.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물로 상징된 것은 인간의 소박한 바람 때문이다. 돼지의 다산을 보면서 우리는 돼지가 부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이처럼 동물의 상징세계 속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연관과 인생관도 함께 살필 수 있다. 값 1만4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2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3	봄 여름 가을 겨울	법정 류시화	이 레
4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5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6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미첼	여시아문
7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8	화두 놓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9	마음을 열어주는 부처님 말씀	정 휴	민 족 사
10	어린이 팔만대장경	송 명 호	은 하 수

도서 안내: (02)737-0695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불교학 논문 목록집 만든다

1902년~2000년 7만여건 수록
동국대 도서관 이철교 · 이동규씨 작업
올 상반기 교정완료 … CD로도 제작

최근 인문 · 사회 계열 연구자들이 불교를 연구 주제로 삼고 있지만, 불교 관련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들의 연구 열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과거 대원정사나 전국비구니회에서 5천여 건의 불교학 성과물을 색인한 목록집을 발간했지만, 동국대 불교학 자료실에 소장된 4만여 건의 단행본과 논문의 0.1%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2년부터 2000년까지 불교를 주제로 발표된 단행본과 석 · 박사 학위 및 연구 논문의 목록이 수집 · 정리되고 있어 주목된다. 동국대 경주 · 서울캠퍼스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철교 부장과 이동규 과장이 지난 20여 년 간 총 7만여 건의 자료를 수집 · 정리를 마치고, 막바지 교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0년대부터 두 사람이 도서관이나 서점을 일일이 찾아가 수집 · 색인한 불교 관련 자료는 1902년 구한말 관청인 사찰관리서에서 발간한 〈국내사찰현행세칙〉부터 올 1월에 발간된 〈백련불교논집〉 10집과 〈정토연구〉 3집의 게재 논문까지 총 7만여 건에 이른다. 논문을 비롯해 저서, 전집, 화집, 도록, 연표, 사전, 보고서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색인 자료는 제목과 편 · 저자명, 출판사, 연도, 출처 등으로 정리됐다.


◇이철교 씨


◇이동규 씨

이를 다시 대장경과 같은 시리즈, 개론, 교리(중관, 유식, 선, 정토 등), 경전, 불교사, 불교종파, 불교예술(탑, 불상, 건축 등), 불교음악, 고승 전기, 불교와 과학, 불교와 현대사상 등 80여 가지의 주제로 다시 분류했다. 이외에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불교 관련 연구서의 목록도 덧붙였다.

예를 들어 단일 인물 연구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효(617~686) 스님에 대한 7백여 편의 논문을 쉽게 찾아 볼 수도 있다. 또한 뉴욕 주립대 박성배 교수의 '원효 사상 연구'(79년 · 미국), 서울교대 은정희 교수의 '기신론소 · 별기에 나타난 원효의 일심사상'(82년), 정숙희 씨의 '각(覺)과 선성(善性)에 대한 교육학적 의미 : 원효와 루소를 중심으로'(85년), 김준경 씨의 '원효의 교판관 연구'(85년), 충남대 이평래 교수의 '신라 여래장사상 연구'(86년 · 일본) 등과 같이 발행 일시와 장소, 주제 등으로 원효 스님의 연구 경향 또한 읽어낼 수 있다.

이철교 부장은 "한 명의 학자가 모든 연구 성과물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올 하반기에 완성될 목록집은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료 조사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주제든지 연구를 시작할 때, 학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대학 및 일반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서지학적 접근이다. 따라서 국내 불교학계의 연구 성과나 현황을 꿰뚫지 못한 타 전공 인문학자의 경우, 대부분 본 연구에 앞서 자료 조사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불교 관련 학회나 연구소의 논문들은 단행본과 잡지와는 달리 대학과 일반 도서관에 납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료 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여 년 간 진행된 이 작업은 한 세기의 불교 관련 연구 자료를 정리했다는 의미 외에도 불교학자의 전유물로 전락하기 쉬운 불교학 연구 성과물을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 불교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은 "1천여 쪽의 단행본 3권 분량에 해당하는 7만여 건에 대한 교정 작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된다"며 "〈불교학 총합 색인〉(가칭)이라는 이름의 CD 타이틀로 우선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보물 제572호 '수선사형지기'.

'고려 고종제서' '수선사형지기' 보존처리

송광사, 10월까지

문화재 보호 우선순위에 밀려 사찰 수장고에 방치되듯 보관돼 온 고문헌이 보존 처리되고 있다.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송광사는 문화재청과 전남도, 순천시로부터 모두 7천1백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부터 국보 제43호 '고려고종제서'와 보물 제572호 '수선사형지기' 등 두 종의 고문헌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존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두 문헌은 고려시대 불교의 정치적 위상과 경제규모를 알게 해 주는 중요문서로 평가돼 왔다. 이 중 '고려고종제서'는 7장의 비단을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로, 여기에는 "1216년 고종이 진각국사 혜심스님에게 대선사의 호를 하사할 것을 제가 한다"는 내용의 묵서가 기록돼 있다. '수선사형지기' 역시 비단 두루마리 형태로, 1221년에 제작된 이 문헌에는 수선사의 창건연혁과 가람배치, 사중 스님들의 수와 사찰 운영 규모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 한성욱 씨는 "두 고문헌의 보존처리가 오는 10월경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보존처리작업이 끝나는 대로 복제본을 제작해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전라지역 괘불 '총정리'

문화재硏 괘불보고서 2집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석가탄신일이나 수륙재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위한 의식용 불화로서 당대 최고 수준의 불교회화 작품으로 꼽히는 괘불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2집을 최근 펴냈다.

이 보고서는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조사한 전남과 전북지역 사찰 소장의 괘불을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화엄사 1653년 작품인 영산회괘불(국보 제301호) 등 20건의 컬러사진으로 담았고, 각 작품마다 해설과 괘불 조성 기록인 화기(畵記)를 수록했다. 또 전 · 남북 지역 괘불 현황과 특징을 논한 글도 수록했다.

여기에 담긴 괘불은 대부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는 작품으로, 주제는 석가여래상이 대종을 이룬다. 이 점에서 이 지역 괘불은 17세기에 영산회상도가 주류를 이루다가 18세기에 미륵보살도 등으로 변화해 가는 경기 및 충청지역 괘불과 다르다.

"소나무 - 참벚나무 심자"

익산미륵사지 주변 외국산 나무와 부조화

전북 익산 미륵사지가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에 어울리지 않는 외국산 나무들이 많아 나무 종류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미륵사지 인근 주민들은 최근 미륵사지를 둘러싸고 있는 미륵산에 포플러와 리기다 소나무, 아카시 등 외국산 나무들이 많아 전통사찰의 풍모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미륵산에 자생하고 있는 외국산 나무대신 소나무, 참벚나무, 층층나무 등 국내산 나무를 심어 전통 사찰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이곳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포플러와 리기다 소나무를 심었다"고 설명하고, "우리 나무를 심어달라는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백제역사 민속박물관

3월 착공 2005년 완공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제역사민속 박물관'이 오는 3월 착공될 예정이다.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소에 따르면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 1만3천5백76 평방미터 부지에 들어설 백제역사민속박물관 건립에는 모두 2백76억9천만원을 투입 2005년 완공된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될 이 박물관에는 3개의 전시실과 보존복원실, 백제관련 자료실과 수장고 등이 갖춰진다.


◇1997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유식분야 세계 권위자인 슈미트하우젠 교수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故 김지견 박사.

해동 화엄 연구 한평생

김지견 박사 타계

1월 23일 오후 3시 일본 도쿄에 있는 상원사(주지 오이카와 슈카이)에서 '화엄경 약찬게'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를 전 '허혈성 심질환'으로 향년 70세의 나이로 타계한 한국 불교학계의 거목 장봉(莊峰) 김지견 박사의 장례식이 인도 · 불교학연구회 소속 한국 유학 스님들의 집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화엄 연구에 평생을 바친 장봉은 생전에 화엄경 약찬게를 즐겨 읊조렸다는 유가족의 말에 따라, 이 게송으로 장례식의 시작과 끝을 맺은 것이다.

1931년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난 장봉은 동국대에서 불교학으로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친 후 다시 일본의 고마자와(駒澤)대와 도쿄(東京)대에서 선학과 화엄학을 연구하며 박사 과정을 밟고 1973년 학위 논문 '신라화엄사상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국대, 강원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후학을 지도했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와 도쿄대에서 '해동화엄 사상사 연구'에 전념했다. 장봉이 이를 평생의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한국 화엄의 독자성을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국내 · 외 후학들이 그를 신라시대 의상 스님에서 고려시대 균여 · 지눌 스님을 거쳐 조선시대 도봉 · 유문 스님과 김시습에 이르는 한국 화엄, 일명 해동 화엄의 선구자로 서슴없이 꼽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1977년 대한전통불교연구원을 설립한 장봉은 이듬해('78년)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기점으로 국내 불교학계에 일본이나 대만, 유럽의 불교학 연구 성과물을 적극 수혈하기 시작했다. 1995년까지 12회에 이르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의상, 원효, 도선, 균여, 청허 스님과 같은 고승과 동아시아, 나당(羅唐) 등의 불교를 주제로 일본, 중국, 대만, 미주,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에 대해 노조영 · 양은용(원광대) 교수, 조흥윤(한양대) 교수 등의 지인(知人)들은 "유학 이후에도 독일의 슈미트하우젠과 일본의 나카무라 하지메, 가마다 시게오 등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게 주효했다"고 전했다.

장봉의 이 같은 저력은 1968년 균여 스님의 저술인 〈화엄론절로〉 1 · 2 · 3권을 교감 역주한 것으로 비롯해 1977년 〈균여화엄학전서〉 1 · 2권, 1983년 〈화엄일승법계도주병서 역주〉, 1988년 〈법계도기총수록〉, 1997년 〈일승법계도합시일인〉 등의 연구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국내 · 외 불교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 한국 화엄학의 문헌연구에 독보적인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균여대사화엄학전집〉 18권은 지엄 · 의상 · 법장 스님 등의 대표적인 화엄 전적에 대한 균여 스님의 주석서를 소개하고, 이들 전적의 인용구의 출처를 일일이 게재하고 있다. 또한 〈화엄론절요〉의 경우 일본 김택문고(金澤文庫)에서 찾아내어 그 손상부분을 보완하여 영인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장봉의 유해는 1월 26일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의 선산에 안장됐다. 그의 위패는 진관사(주지 진관)에 모셔져 있으며, 1월 27일 초재를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49재를 진행한다. 연락처는 (02)762-3554.

※ 기사 넘쳐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쉽니다.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특허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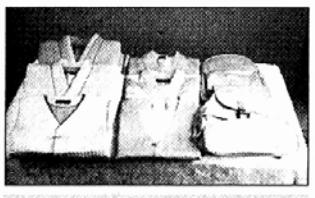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유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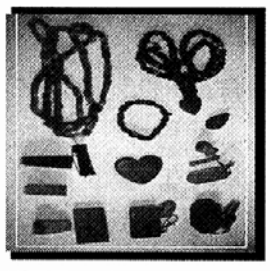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 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입니다.

사진에 소개된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것입니다.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적,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재앙, 액운,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련암 공덕하 법사
☎ 02)909-1360 · 011-9778-2803

공채 1기
유능한 분을 찾습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부문	인 원	응 시 자 격
영어 · 일어 번역팀	- 상근 0명 - 위탁 00명	1. 불교/명상 관련서적 번역 경력자 2. 영어 및 일어 전공자 3. 상근 및 위탁번역 가능자
편집장	1명	1. 서적 및 사보 발행 경력자 2. 불교/명상 관련서적 편집 경력자 3. 일어번역 가능자 우대
사무장	1명	1. 법인 사무 유경험자 2. 영어 · 일어회화 가능자 3. 경리 · 회계 업무 및 PC 가능자
간사(여)	1명	1. 홈페이지 관리 가능자 2. 의전 및 스케줄 관리업무 경험자 3. 영어/일어번역 및 회화 가능자 우대

2. 제출서류
① 자필이력서(사진포함) ② 자기소개서(A4용지 3장이상)
③ 주민등록등본 ④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⑤ 경력증명서

3.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 :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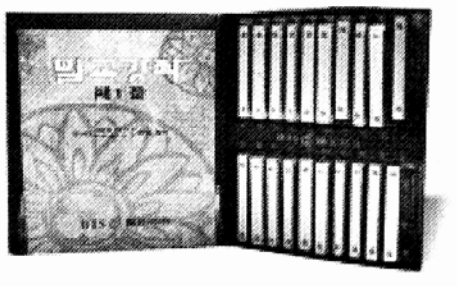
4. 서류접수기간 : 2001년 2월 17일 도착분까지 유효

5. 서류 접수처 : (제출서류 각 1통씩 하기 주소로 등기 우송 바람)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000호 (주) 각 심 원
우편번호 110-619

6. 기타사항
① 이력서 우측상단에 지원분야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② 자기소개서 작성시 자세한 경력사항 및 급여수준 명시바람
③ 모집부분 공허 1956년 이후 출생자에 한함
④ 서류는 우편접수에 한함 (전화문의 및 방문접수 일체사절)

주식회사 覺心院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18 하남빌딩 503호
■ Tel : (代) 02-5689-114 ■ Fax : 02-5690-108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0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천축 조사님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⑱

(17) 법성사(法性寺)에 주석하다

광주는 장안(長安)에 버금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서 깊은 도시다. 뒤로는 산이 마치 병풍처럼 감싸고 앞은 바다가 탁 트인 그런 곳이다. 기후는 일 년 내내 온화하여 식량 걱정이 없고, 시가지는 꽃으로 뒤덮여 사계절이 늘 향기로 가득했다. 풍수지리상으로도 보배로운 땅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게다가 절들이 숲처럼 늘어서 있어 독경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달마가 광주 성문 안을 들어섰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뒤였다. 등불로 밝혀진 광주의 시가지는 화려함이 한결 돋보였다. 뭇 사람들로 번잡한 밤거리였지만 달마의 모습이 워낙 이채로워 금방 사람들 눈에 띄었다. 시커먼 눈썹에 왕방울 같이 생긴 눈에다 기골이 장대한 불골선풍(佛骨仙風)의 이방인을 사람들이 놓칠 까닭이 없었다. 달마의 주변엔 삽시간에 구경꾼들이 들끓었다. 이 사람이 바로 천축의 28대 조사인 보리달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소식은 지체없이 광주 관아로 전해졌고 자사(刺史)인 소앙(蕭昂)에게도 보고되었다.

문밖까지 나가 직접 영접

자사 소앙은 매우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그는 천축의 불교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조예가 깊었다. 항지국의 셋째 왕자인 보리달마에 얽힌 세세한 일화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큰스님이 멀리 바다를 건너 양성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들은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했다. 넓고 넓은 저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왔을까. 날개를 가진 새라도 오기 힘든 거리인데 그것을 건너온 것을 보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불법을 체득한 조사가 틀림없을 것 같았다. 그는 생각이 이에 미치자 마음이 급했다. 즉각 영을 내려 달마를 관아로 모셔 오게 했고, 주요 관원들을 대동하고 문 밖까지 나가 직접 영접했다. 그리고 달마 조사를 성 안에서 가장 유명한 법성사(法性寺)로 모시도록 했다.

법성사는 양성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절 문은 서쪽을 향해 있고, 누런 담장에 푸른 기와가 잘 어울렸다. 날아갈 듯한 처마 밑에는, 세로로 '법성사' 란 주련이 걸려 있었다. 오래 전에 천축의 고승 법다라(法多羅)가 쓴 글씨라고 하는데 방금 쓴 것처럼 생기가 감돌았다.

대웅보전은 금빛과 푸른빛으로 휘황찬란했다. 대웅전은 벽 전체에 향나무 가루와 옻을 섞어서 만든 특수 도료(塗料)가 발라져 있었다. 게다가 대들보와 기둥도 모두 향단목을 써서 대웅전 안이 은통 향나무의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곳에 쓰인 향단목은 백 년 이상된 거목들로 금은보다도 값지다고 희자되었다.

절 안에는 수십 채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꾸불꾸불한 구곡(九曲)의 회랑(回廊)이 규모의 장엄함을 돋보이게 했다. 절 한 구석에는 종고루(鐘鼓樓)가 높이 솟아 위엄을 뽐냈다. 이 누각 안의 청동종은 무게가 엄청났다.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북도 들레가 두 자가 넘었다. 새벽에는 종을 치고 저녁엔 북을 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 소리는 양성의 성안 뿐만 아니라 주변 백 리 밖까지 울려 퍼졌다.

법성사의 주지는 학덕 높기로 이름난 광지(廣智) 법사였다.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법성사는 건강(建康)의 동태사(同泰寺), 보화산(寶華山)의 응창사(鷹昌寺), 천태산(天台山)의 광조사(廣照寺), 낙양(洛陽)의 백마사(白馬寺)와 함께 중국 5대 사찰의 반열에 들었다.

법성사의 종고루에서 저녁 북소리가 울린 지도 꽤나 시간이 흘렀다. 절 안은 어둠의 심연(深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광지 법사의 방은 노란 커튼이 드리워졌고 촛불과 단향의 가는 연기가 어울려 흠을 추었다. 주지 스님은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동안(童顔)인 스님은 눈을 감은 채 합장하고 입 속으로 경전을 외우는 것 같았다. 지극한 나이를 나타내듯 머리엔 희끗희끗 학(鶴) 같은 기상이 엿보였고 흰 눈썹은 인자한 마음씨를 드러내는 듯했다.

주지 스님의 방문이 반쯤 열리면서 젊은 스님이 광지 법사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왔다. 큰절로 예를 갖춘 다음 나지막이 고했다.

"주지 스님께 아룁니다. 관아에서 큰스님 한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일단 말을 마친 젊은 스님은 한쪽 구석으로 물러갔다. 분부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절 안의 법도였다. 그러나 광지 법사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경전 외우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젊은 스님은 조바심이 났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대로 한참을 기다렸다. 거의 반 시각이나 흐른 듯싶었다. 그대로 기다리다간 자칫 낭패를 볼까 두려웠다. 젊은 스님은 다시 주지 스님 옆으로 가서 절을 한 다음 아뢰었다.

"양성 자사 소대인의 서찰도 있습니다."

두 손으로 서찰을 받들어 올렸다. 그제야 광지 주지는 두 눈을 살며시 뜨면서 서찰을 받았다. 서찰을 촛불에 비춰 읽어 내려가던 주지의 얼굴에 갑자기 경련 같은 것이 일었다. 무엇 때문인지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제 정신이 아닌 듯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 분이란 말인가?"

젊은 스님은 일찍이 주지가 그토록 놀라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어쩔 줄 몰라서 황급하게 말했다.

"천축에서 온 큰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던 주지의 얼굴이 환희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웃음 머금은 눈으로 젊은 스님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땟국으로 얼룩진 얼굴

"내가 기다리던 보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 분이 오시다니. 절 문을 활짝 열어 천축의 달마 조사를 크게 환영하도록 하라."

달마 조사라는 소리에 젊은 스님도 기절초풍할 뻔했다. 비로소 이 밤중에 관아에서 군졸들이 호위하여 모셔 온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젊은 스님은 자책하는 마음을 떨칠 길이 없었다. 공부하는 처지에 있는 몸으로 조사를 직접 보고도 조사인줄 몰랐다는 것은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눈은 있으되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서 어떻게 수행승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스님은 정신 없이 이곳 저곳 선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사실을 알렸다. 북과 종을 함께 치고 향을 올리고 폭죽을 터트리게 했다. 최대의 예를 갖추어 천축의 달마 조사를 맞을 차비에 부산했다.

한밤중의 정적을 깨고 절 안팎은 순식간에 들 끓듯 했다. 평소의는 전혀 다른 분주함에 속사정을 잘 모르는 사미승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부산하게 움직였다. 잠시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 또 한 차례 북과 종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이어 절 문이 활짝 열렸다. 광지 주지는 모든 종들을 대동하고 '八' 자형으로 열 지은 다음 엎드려 일제히 소리 높여 인사했다.

"천축 조사님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랜 시간을 절 문 밖에서 기다리던 달마 조사는 문이 열리자 주저하지 않고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스님들은 예의 없이 달마의 모습을 훔쳐보기에 바빴다. 달마의 쑥대머리, 땟국으로 얼룩진 얼굴, 걸레 같은 홑겹의 옷. 게다가 맨발인 모습에 모두들 눈을 의심했다. 이렇게 꾀죄죄한 스님이 천축의 28대 조사란 말인가?

그러나 광지 주지의 혜안(慧眼)과 지혜는 남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외모로 보아서는 알 수 없고 믈은 말로 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달마가 비록 남루한 몰골을 하고 있지만 그의 눈매에서 산천의 수려함을 읽었고, 그의 가슴에 천기가 숨어 있는 것을 느꼈다. 광지 법사는 승려들의 앞줄에서 한 걸음 나와 큰절을 다시 올리면서 아뢰었다.

"소승은 법성사 주지 광지입니다. 성조님께 삼가 인사 올립니다. 아미타불."

달마는 '광지' 라는 이름으로 인사하는 주지에게 눈길을 보냈다. 광지의 넓은 이마와 붉은 얼굴빛으로 미루어 법증용상(法中龍象)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답례로 합장하면서 말했다.

"광지, 광지, 광지라…. 선한 일을 광대하게 뜻고 지혜를 깊숙이 품고 있는 이름이로다. 주지께서 이렇게 지나친 예를 갖추니 이 늙은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달마는 손을 내밀어 광지를 일으켜 세웠다. 이어서 엎드려 있던 스님들을 차례로 한 사람씩 일으켰다.

달마의 말소리는 정중하면서도 진주알이 구르는 소리 같았다. 모든 스님들은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그 목소리에 새삼 놀랐다. 겉모양을 보고 잠시나마 달마를 멸시했던 스님들은 얼굴이 뜨거웠다. 범태(凡態)이기에 잘못 본 것을 깨달은 스님들은 다시 엎드려 큰절을 올렸다.

"조사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아미타불."

달마는 스님들의 마음 속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합장으로 회배하며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엎드린 스님들을 일일이 일어나게 했다. 스님들은 달마 조사가 이미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기에 더욱 몸둘 바를 몰라 했다.

그 날 밤 달마는 주지의 배려로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늦은 저녁 공양을 마쳤다. 달마가 안내된 정사(精舍)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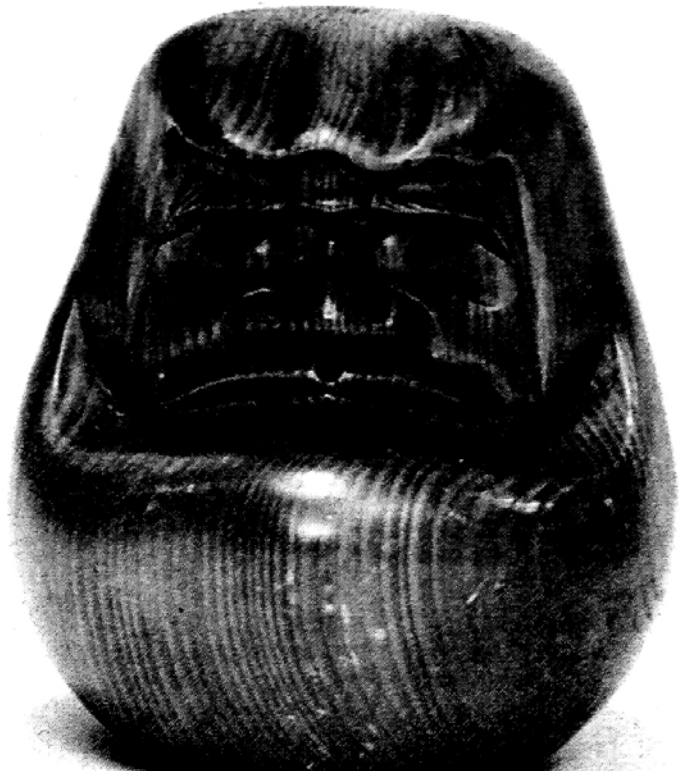
달마는 한동안 법성사에 머물러 있을 작정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참선과 독경, 강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달마가 온 뒤로 절 안의 분위기도 확 바뀌었다. 불조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승려가 잠시도 나태하지 않고 불지(佛旨) 연구에 전념했다.

경단 쌓고 공개법회 개최

보리달마가 법성사에 주석하고 있다는 소식은 날개 단 듯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유명 사찰의 고승 강백은 말할 것도 없고 고관과 귀인 그리고 거부 거상(巨富巨商)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찾아들었다. 조용하던 법성사는 양성의 시가지 마냥 번잡스럽게 되었다. 법성사의 살림도 덩달아 풍족해졌지만 이런 광경을 바라보는 달마의 마음은 개운하지가 않았다. 달마는 이런 것으로 중생을 널리 제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달마는 광지 법사에게 중생을 광도(廣度)하는 방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좇아 우선 법성사 안에 경단(經壇)을 높이 쌓아올리고 법회를 갖기로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광지 법사는 지체하지 않고 주부(州府)에 경단 설치를 신청했다. 이 신청을 받고 누구보다도 반가워한 사람은 자사 소앙이었다. 그는 벌써부터 불조의 법요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의 광주에는 법회를 공개해서 하는 일이 없었다. 게다가 법성사에 찾아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사의 처지에선 오히려 곤양해 오던 터였다. 이미 봄철도 무르익어 얼마 있으면 4월 초파일이 된다. 이 날을 이곳에선 욕불절(浴佛節)이라고 불렀다. 자사 소앙은 이 날을 잡아 법회를 갖도록 조치했다.

> "기다리던 보람이 있었구나
> 이렇게 그분이 오시다니
> 절문 활짝 열어 환영하도록…"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백화점 마하몰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마하몰에 방문하십시요. 불교문화상품을 통한 쇼핑의 즐거움과 다양한 정보를
불자님들께 드립니다. 항상 마하몰을 찾아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성심 것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획정보, 생활불교길잡이, 뉴스룸불교사전, 금주의 사찰등
새로운 콘텐츠로 불자님들을 맞이합니다.
• 기획정보는 신속히 얻을 수 있는 생활의 정보를 소개하고 직접 만들어 보실수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 생활불교길잡이는 간편한 생활속에서 흔히하지 못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다음의 흐름등을 다루었으며
• 뉴스룸불교사전은 뉴스룸에서 흔히 접하는 불교 사전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독자들의 다음을 드립니다.
• 금주의 사찰 코너에서는 매주 한번씩 금주의 유명사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찰안내와 불교인물정보를 좀더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스님의 다음을 드리고자 신상명단과 주한상황도표를 다양하였습니다.

http://www.mahamall.co.kr 전화 : 02-732-1522

깊은수면중에 기(氣)를 얻는다. 편안한 잠! 건강한 잠! 개운한 잠! 이제 돌침대 를쓰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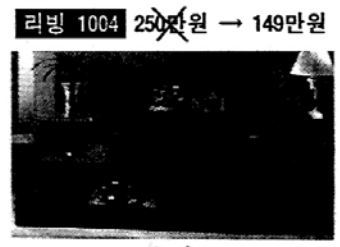
폭탄세일

일반 옥매트가 전기장판을 대신 할 수는 있으나
전통온돌방을 대신 할 수있는것은 전통 원적외선
온열요법의 리빙스톤 돌침대 뿐!

침대 - 이제 건강 (척추, 혈액순환),
위생 (세균,진드기)을
생각할때 !



리빙 1004 250만원 → 149만원



사군자 330만원 → 19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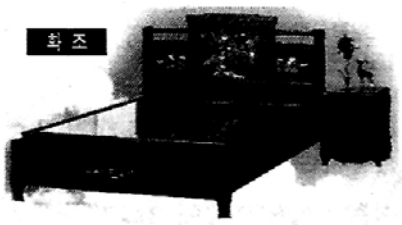
목단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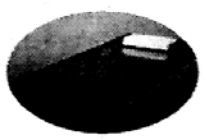
살을 되살린다. 거뜬한 아침!
자만은 수행자의 적!
지친육신은 명상의 큰 적!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특조



101 싱글트

옥스틴

리빙스톤

☎ 02)424-9427/2203-7821

※ 단체별 돌침대 특수사업부를 운영하실 기관은 상담바랍니다.
※ 일본, 한국 온돌문화 열풍 – 일본 판매처 구함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개종해서 다시 찾은 삶

성 경 화 —부산광역시 진구 범전동—

나는 아직 초심자인 44세의 주부다. 원래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직접적인 계기는 베란다를 통해 먼 산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서 부터다. 그때마다 법복을 입은 내 모습이 베란다 유리를 통해 환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또 절에 간다면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막상 개종을 하겠다고 생각하니 그등안 성당에서 정들었던 대모님과 교우들 생각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 집에 모셔논 성모상과 십자가상도 눈앞에 아른거리고 천주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 '아니다' 라고 고개만 저으면서 개종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리고 한동안은 성당과 절, 어느곳에도 가지 않고 괜히 남편에게 바가지만 긁는 등 무의미한 생활을 했다. 내조를 제대로 못해서인지 그럭저럭 잘되던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져 친정어머니께 구원의 손길을 뻗쳐야만 했다. 못난 딸 때문에 어머니께 못할 짓만 시키고 빚은 자꾸 늘어만 가는, 지옥과 같은 생활이 계속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내 모습은 인생을 포기한 절망적인 상태였던 것 같다.

이러다보니 남편과 나, 아이들 모두 생각이 다른곳에 가 있는, 정신적인 이산 가족 상태로 지내며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연명해 갔다. 우린 한 가족이면서 생각 모두가 따로따로인 '따로국밥' 이었다. 자꾸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에 더하여 미움만 늘어나 탈출구의 하나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남편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다. 남편이 없는 열흘동안은 나에게 무척 긴 시간이었다.

친정어머니가 가까스로 설득해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 하며 천주교의 모든 성물을 치웠다.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깐 마음가는데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절에 갔다. 처음에는 어떻게 절을 하는지 조차 몰라 서성이다가 법당에서 절하는 사람을 따라 108배를 하고 돌아왔다. 다른 사람이 나의 절하는 모습을 볼까봐 창피해 하며 무조건 숫자만 채우고 왔다.

그때까지 불교 하면 토속신앙쯤으로만 알고 있던 나로서는 절에 갔다는 자체가 불교를 실질적으로 접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절에 간 것을 안, '광명심' 이란 법명을 가진 동생이 "언니, 정말 개종 잘 하셨어요" 하면서 사찰예절, 불교교리서, 고승열전을 비롯해 불교관련 서적들을 가져다 주었다. 불교에 대해서 문외한인지라 천주교에는 교리책이 있는데 불교에는 왜 없을까 의아해 하면서 모든 것이 궁금하던 때라 가져다 주는 책을 무조건 읽었다.

〈고승열전〉을 처음 읽었는데 '방장스님, 방장스님' 하는 말이 있었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때 까지만 해도 '방장스님' 이란 '주방에서 제일 높으신 분'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교에 생소했던 나였다. 그러나 한권, 두권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내 사고에도 변화가 왔다. 그 이후부터 나는 불교서적들을 들고만 있어도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 졌다.

하지만 집안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업종을 바꾸기까지 했지만, 계속 힘이 드니까 화를 내는 일이 많아 집에 들어서면 식구들은 숨죽이고 남편 눈치만 보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히 큰 딸애는 학교가는 것도 재미없어 했다. 또 작은 아들도 매일 오락실만 전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 당시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마음을 잡기 위해 절에 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절에 다니면 나중에 지옥간다고 절에 다니지 말라고 트집을 잡았다. 그러면 나는 지옥을 가도 내가 간다고 그냥 두라고 퉁명스럽게 반박했다. 이에 질세라 남편도 지옥갈게 뻔한데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냐면서 말다툼을 했다. 부모들이 이렇게 싸우니 가정이 화목할리 없었다.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우 광명심이 남해 보리암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남편에게 절에 간다고 하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순순히 다녀오라고 허락했다. 모두다 부처님의 가피 라는 생각을 하며 기분좋게 집을 나섰다.



그림 · 이준석

자는 남편을 향해 매일 108배를 했더니 이후 내 인생이 달라졌다

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속에는 근심걱정이 들끓었다. 새파란 수평선의 넓은 바다를 보니까 아집으로 가득차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던 내 자신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졌다. 자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것이 남편이라 원망하고 남편이 한없이 미워졌다.

보리암에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명심 어머니집에 들렀다. 남편의 성격이 너무 괴팍스러워서 힘들어 못살겠다고 푸념을 늘어 놓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당신도 젊은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부처님이 계셨기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그런 면서 너의 업장이 두꺼워서 그러니 남편이 잘 때 남편에게 매일 108배를 하라고 했다. 이런 어머님의 충고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보리암을 다녀온 다음날부터 미운 남편을 향해 광명심 어머니의 말처럼 108배를 하기 시작했다. 때는 여름인지라 남편이 하는 조그만 제조 공장에 나가 낮에 함께 일하고, 밤에는 자는 남편을 앞에 두고 잠든 밤에 절을 하니 환희심이 저절로 생겼다. 아이들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학교에 잘 적응하기 시작했다. 우린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계속 내리막길로 치달아 힘들게 운영하던 공장을 정리하고 남편은 해외 기술자로 나가게 되었다. 이 무렵 나는 광명심과 함께 남편의 건강을 발원하러 해인사 원당암을 찾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선이 뭔지 화두가 뭔지 전혀 모른 상태였다.

그런데 원당암에서 종정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엄숙한 자리탓에 감정을 억누르며 기쁨을 그저 속으로만 만끽했다.

큰스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는 풍자루인데 가만히 놔두면 더 썩으니 흔들어서 밖으로 쏟아부어라"고 법문을 해주셨다.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그 엄숙한 법문에 매료되어 신심이 솟아났다.

큰스님께 화두를 받아 참선을 시작했다.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몸이 따라 주질 않았다. 결국은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허리와 다리도 아프고 다른 신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살그머니 법당을 빠져 나왔다. 다음날에는 해인사 일타 큰스님의 사리친견도 하고 스님들도 많이 뵈었다.

갑자기 10년전 성당에 다닐 때 남동생들과 해인사에 다녀간 일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대법당 바깥에서 법당 안쪽을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동생이 법당에 들어가 절 한번 하라고 권했다. 나는 천주교 신자인 내가 왜 절을 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다시 법당안을 살폈는데 스님들께서 법당 가득 빼곡이 앉아 '부모은중경' 독송을 하는 모습이 너무도 숙연해 기억에 유난히 남았다.

그때의 내 모습이 떠올라 참회의 삼배라도 올리고 싶었지만 그날은 기도드리는 불자들이 많아 법당에 발조차 디디질 못했다. 10년전 해인사 경내를 나올때는 다시 오게 될줄 몰랐는데…. 이렇게 불교신자가 되어 해인사를 참배하니 이것이 바로 지중한 불가의 인연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변함없이 곁에서 불교를 가르쳐 주는 광명심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광명심이 아니었다면 불교와 인연맺기도, 또 마음의 평정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며 생활속에서 충실히 실천하는 영원한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해인사에 다녀온 뒤 집에 있는데 하루는 아들 친구의 엄마가 신행학교 얘기를 하면서 같이 다니자고 했다. 그때 무엇인가 불빛이 번쩍하며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왔다. 부랴부랴 같이가서 등록을 하고 그 엄마와 함께 신행학교를 다녔다. 신행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니 그동안 찬송가와 성가만 있는줄 알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한 찬불가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고 신기했었다.

너무나 신기해서 집에 와서까지 그날 배운 산회가를 열 번 정도 부른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신행학교에 다니면서는 정말 행복했다. 남편은 기도하는 내 모습이 아름답다고 격려해 주었고 나와 함께 〈고승열전〉을 읽으며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등 부부애도 돈독해져 갔다. 어느날인가는 남편이 나에게 〈금강경〉 사경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해 깜짝 놀란 적도 있다. 나보다도 불교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남편이 오히려 더 불심이 돈독해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변해갔다. 특히 내가 신행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일과 시작전 〈천수경〉부터 틀어주는 등 열성적으로 나를 이해해 주고 도와줬다.

아이들도 어렸을 때 영세를 받았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독경 소리를 싫어하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 하지만 신행학교는 집안일 때문에 꾸준히 다니지 못했다.

월초에 스님께서 다라니 기도하실 때 너무 열심히 하셔서 목이 잠기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숙연해져 열심히 다니리라고 결심했으면서도, 절 밖을 나서면 그 발심을 잊어버리곤 했다. 또 신행학교에서 목탁 치는 것을 배울땐 웬지 모르게 신이 나서 어린애들처럼 좋아했다. 참선도 어려웠지만 하나씩 하나씩 자상한 가르침을 받고 터득해 갈때의 행복감은 이루 말할수 없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는 통도사포교원 스님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지금 남편은 8개월이나 쉬고 있어 가정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떻게 융통이 되는지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 가고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광명심은 나에게 재주가 좋다고 하지만 나는 이 모두가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라고 생각한다. 아마 예전같으면 내 성질에 못이겨 살도 빠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심할텐데 오히려 체중이 늘어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다.

수능시험 백일전 법회때에는 딸아이랑 함께 절에 갔었다. 법회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희심이 복받쳐 올라 감격스런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내렸다. 옆의 사람이 볼까봐 창피해 얼른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쳤다.

통도사포교원 주지 심산스님께서 수험생들 손을 일일이 잡고 격려 말씀과 함께 호신불 하나씩을 주셨는데 딸아이 차례가 되자 큰스님께 합장 반배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보다 낫다 싶어 콧등이 시큰하면서 딸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른다.

남편 사업도, 큰 딸 시험도 조바심 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잘될 거란 확신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릴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예전에는 사업이 안되면 남편 원망부터 늘어 놓았지만 불교를 믿고 부터는 오히려 남편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애간장이 탈까 하는, 남편 마음이 먼저 헤아려진다. 또 어려움에 닥치면 이 모든 것이 전생에 지어 놓은게 없는 내탓이구나 생각하니까 크게 화낼 일도 남을 원망할 일도 없게됐다. 대행 큰스님 말씀에 '내가 있으므로 생기는 일이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고 했는데 그 말이 실감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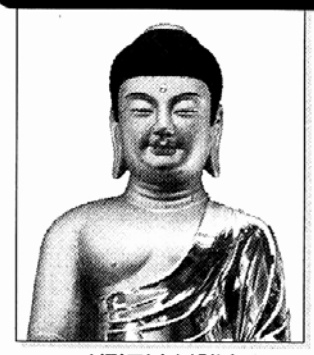
딸아이 한테도 점수 나오는대로 대학을 선택하자고 위로를 해 주니까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를 위로해 준다. 크게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어도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따라주니 나는 행복한 아내, 행복한 엄마라는 생각이 든다.

더 부지런히 정진하는 참회발원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나는 법당을 찾는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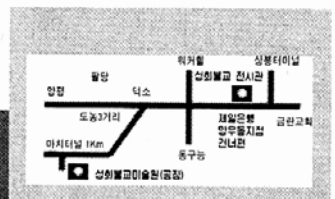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 · 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마음 밝히는 책들 3
숭산 스님의 가르침



숭산 스님과 미국인 제자들이 함께 풀어가는
큰 의심덩어리!

부처님께 재를 털면

어느 사람이 담배를 피우며 부처님 손에 재를 털고
부처님 얼굴에 연기를 훅 불 때,
네가 만일 선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만일 쉬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그러나 만일 어려운 방법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욕심이다.
선이란 너의 모든 욕심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진정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견성한다는 욕구를 마음에 지닌다는 그 자체가
공안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오로지 큰 의문만 지니면 된다.
큰 의문이란 모든 생각을 끊어 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큰 의심을 품고 있는 마음, 그것이 견성이다.

스티븐 미첼 엮음, 최윤정 옮김/ A5신 396쪽/ 값 9,000원

둘 아니게 굴리며 관하면 害 없어요

스님: 또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새해로 말미암아 모두 둘 아니게 공생, 공용, 공식으로 사십시오.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되 하고 싶다 해서 그냥 남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 1: 스님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스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감사함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따로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중생들은 한달, 일년을 구분해서 한 달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고 합니다.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21세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과거의 어둡고 혼란했던 그런 일들이 다 잘 해결되고 모든 국민이 편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이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감로의 법을 많이 설해 주셨는데 아둔한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미망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회 때마다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쭤서 아는 것보다는 스스로 관해서 해답을 얻는 것이 훨씬 공부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천도재를 모시고도 일년에 한번씩 제사를 모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상님께서 환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눈이 어두워서 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환생을 이미 했는데도 천도재를 지낼 때 오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죽어도 원소는 남아

▲스님: 옛날 어떤 집에 어머니는 노망했는데 아들이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해마다 아드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정승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해마다 꿈에 어떤 노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서 상을 차려 놓고 정성을 드리는데 그 길을 좇아 그 노인 집에 가서 같이 공양을 하고 나오고는 했더랍니다. 20살이 넘도록 그렇게 해마다 꿈을 꾸면서 살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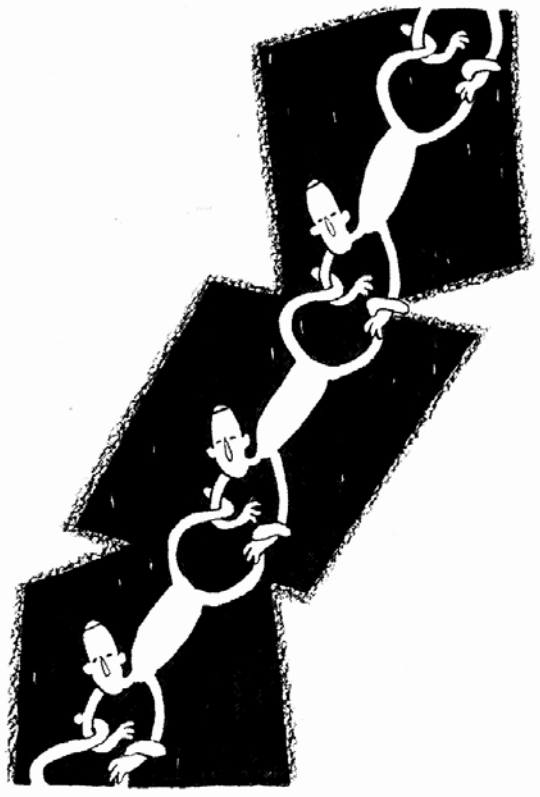
그랬는데 꿈에 본 그 길이 아주 눈에 선해서 생시에 자기가 찾아갔더랍니다. 꿈에 본 대로 그 날 찾아가니까 정말 밥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왜 오늘 꼭 이렇게 밥을 해 놓으시느냐고 물으면서 꿈에 꼭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 아들이 고생만 하고 죽었으니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집에 태어나서 지혜롭게 살라고 제사 때마다 잊지 않고 죽는 날 까지는 제사를 모시고 있노라고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이가 먹도록 제사를 지내줘서 내가 정승 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는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서 어머니가 해 놓으신 밥을 맛있게 나물에다 비벼 먹고선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한없이 울었더랍니다. 나중에는 모셔다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 살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죽어도 그 원소는 꼭 남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심어 먹어도 씨앗은 꼭 남듯이 에너지는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면 에너지 주장자로 화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임제스님께서 "마음공부를 해서 주장자로 화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화하지 않았다면 네 주장자를 뺏어 올 것이니라"이렇게 말씀 하셨답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없어지는 거지 원소 자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소 자체는 끝없이 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 자체가 일을 저지르면은 모든 게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업력이 있다, 유전성이 있다, 영계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계성을 녹이려면 관하시라. 한번 관할 때마다 무너진다. 업력이 무너지니까 생각하기에 달렸다. 업도 없고 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공생입니다. 생명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하고 가지 따로따로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쌈박질이 나서 살이 굳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막혀서 백혈이 되고 그냥 온통 병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유전성이 없어지질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구요. 영계성이 나오고,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깐 우리가 그렇게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 생각의 공덕을 쌓아서 해 놓으면 자식한테까지 그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덕을 지어 놓은 것이 자식에게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끊어지느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항상 남아 있듯이 은하계의 별성이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남고 껍데기만 떨어져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가루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나 그 원소는 남으니까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 거나 같습니다. 은하계에도 별왕이 있듯이, 별왕이 있어서 그 옷을 입히듯이 원소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인연이 있다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한 식구가 됩니다. 나쁜 식구가 인연이 됐으면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싸우고 모두 미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벌여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하는 것을 맨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는 정신계의 자동적인 컴퓨터 같은 그런 역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저께도 과거고 작년도 과거이지만은 과거에 잘 한 거든지 잘못한 거든지 입력이 됩니다. 꼭 입력이 됩니다. 한마디를 잘 했으면 잘한 대로 입력이 되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이 현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나와서 좋지만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하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급한 일이 앞에 생기겠다, 이거 큰일났는데, 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 하고 관하시라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정신계 자기가 물질계 자기 이끌어
나는 본래 空하니 빈그릇으로 살라

생각을 좋게 내도록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화해서 태어나게 했으면 반드시 그건 주인이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몸뚱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소 자체가 바로 여러분 몸을 끌고 다닙니다. 정신계의 자기가 물질계의 자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깐 잘 끌고 다니게 할려면 생각을 좀 잘 하시라는 거예요. 현재 사는 걸 봐서 이건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맡긴다고 되겠나 생각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좋게, 아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시면 폭이 좁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렇게 일이 적당히 되고 말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냥 뛰어 넘으세요. 뛰어 넘어서 좋게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흙탕물을 그냥 먹을 수는 없죠. 먹을 수 없으니까 맑은 물로 만들어서 먹겠다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없이 생각하는 거고 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아프다, 뭐 암에 걸렸다 한다면 먼저 그냥 죽는다고만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몸 안에 들은 병 증세를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어도 너와 나와 둘이 아니라고 안으면 안는 대로 그게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오르게 되면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심성과학도 되면서 심성의학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편리하고 편안하게, 자손들도 착하게 두시려면 조그만 거라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정에서 만들어 나가신다면 아래의 자손들도 보이지 않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마음과 같아집니다. 일은 같지 않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같아집니다. 같아지면 지혜롭게 남을 해치지 않고도 또 내가 손해를 안보면서도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북에 계시는데 영 돌아가셨는지 몰라서 제사를 지내야 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설사 살아 계시더라도 제사를 지내드려라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배가 고파서 사시더라도 배가 부를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내는 자식의 그 정성으로 부모가 배고프게 사실 거를 배고프지 않게 사실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니깐 얘깁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생일도 있고 제사도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옛날에 이런 예가 있었답니다. 가족이 다 불에 타서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았답니다. 왜 살게 되었느냐 하면은 불이 나서 야단나던 그 날, 예전에는 먹을 게 귀하지 않았습니까? 나물을 뜯어다가 보리쌀을 빻아서 떡을 해서 우리 집안 내에 살생이 없이, 우리 자식들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 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불이 났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저 그릇들만 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동네에서는 일대 전부 나물이라도 캐서 하다 못해 없으면 죽이라도 쒀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됩니다. 그저 요만한 걸 정성을 드리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자식들한테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임제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 사람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는데, 너만이 그저 환히 밝게 할 수 있다고,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관을 하니까 자식한테도 불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 절대 의심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하시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셔야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합니다.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참 자기를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진실로 믿으셔야지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 1: 잘 알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환생을 하셨더라도 천도재를 계속 모시면 그 분들에게 좋은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은 생명이 살아가는 법칙이 먹이사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랑크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또 그 위의 고기는 더 작은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의 고리가 형성되어서, 자연이 이렇게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이사슬이 끊어지면은 자연이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곤충이 없어지면은 그걸 먹고사는 새 등이 살수가 없고 개구리가 없어지면 그걸 먹고사는 뱀 같은 것들이 살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들이 원활하게 잘 살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생을 하는 것은 태고 때부터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가기 위한 먹이사슬의 일환으로서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해서 살생을 해서 안된다고 하는 건지 물론 저희들이 동물이 아닌 식물성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도 나무도 풀도 다 생명이 있고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식물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 되고 안 되는 도리

▲스님: 좀 지혜롭고 풍부하게 생각하신다면 해답이 다 나옵니다. 먹지도 말아야 하고 안 먹지도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먹기도 해야 하고 안 먹기도 해야 하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왜 양면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요, 고기로 살았다고 해서 잡아먹지 않는다면 고기로만 살아야죠. 또 사람도 현재 못나게 사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계속 못나게만 살아야 돼죠. 그러나 모든 게 화해서 돌아가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고 못 나고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한 분들은 먹으면 화해서 딴 모습으로다 태어나게 되고 마음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저 먹기 위해서만 취하는 사람이 먹을 때는 그게 업이 된다는 말이죠. 살생의 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생각을 남에게 이익하게 하질 않고 그냥 먹고만 싶어서 먹었으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해롭고 자기한테도 해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한 분이 잡수시게 되면 약이 되고 그 영혼은 다시 화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는 동시에 아무렇게나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만, 생각이 없이 잡숫는 분들은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살생의 업이 된다 이런 말이죠. 생각을 잘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생각을 잘 했다면 저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죠.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면은 어째서 살생의 업이 되느냐. 둘이 아닌 까닭에 살생의 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사람으로 자기가 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생각에 달려 있다. 한생각 하기에 달려 있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한생각에 달려 있고 짜부러지게 만드는 것도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두 생각들을 조금만 비뚤어지게 하면 모두 비뚤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구하면서 가는 것도 양면을 잘 딛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될텐데 만약에 양면이 다 잘 딛고 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극난을 받고 더 이상하게 쫓기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쫓기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쫓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분들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오히려 반 이상이 밑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깐 그저 너무 잘 돌아가지도 말고 너무 못 돌아가지도 말고 그저 평균하게 넘어지지 마시고 정신계의 나와 물질계의 나 모습과 둘이 아니게끔 항상 굴리시면서 관하시면서 가시면 해가 없습니다 절대. 건설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누구탓도 말고 옳고 진실하게 살라

☞ 19면에서 계속

을 하다가 남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해가 안 가게끔 되니깐 그런 거 그렇게 걱정하고 살 필요는 없죠.

▲질문자 1: 다음은 스님께서 둘이 아니다, 둘로 보지 마라 하는 법문을 수없이 많이 하셨고,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그간에도 여러 번 질문이 나오곤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중생들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면 육신은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동료나 도반 중 어느 한 사람이 견성을 했다면 나도 같이 견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착한 마음을 가졌다면 나도 같이 착한 사람이 되고 또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나도 같이 나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육신이 인연 따라서 이리도 모였다 저리도 모였다 하나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음까지도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몸보다 마음 편해야

▲스님: 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몸은 공체죠. 공체로 우리가 살죠. 그런데 나만 그건 것이 아니라 딴 사람도 공체입니다. 모두가 공체, 공생, 공심, 공용을 하고 살고 또 우리가 들이고 내는 것도 공식으로서 그냥 들이고 내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공해서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생겨서 사는데 또 지수화풍을 먹고살죠. 눈 하나를 보더라도 눈으로 여기저기 보지 한 군데만 보고 사는 분 없죠. 듣는 귀도 그렇고요. 몸 전체가 부딪히는 데로 다 그렇고 잠시 살짝 살짝 그냥 넘어가죠. 화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죠. 그러니깐 함이 없이 산다 이겁니다. 함이 없이 사십니다. 사시는 게 없이 산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성을 내고 막 악을 쓰고 했는데 악을 쓴 그 자체가 바로 마음 속에 남습니다. 악을 쓴 사이가 없는데도 그게 남으니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깐 업이나 악을 풍기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라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탓입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탓이 아니지만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니까 잘 하든 못하든 내 탓이지 누구 탓입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려라 이거죠. 부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식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자식이 나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집의 문을 깨뜨렸거나 이래도 그건 부모가 물어줘야 하는 거죠. 자식이 깨뜨렸다고 자식이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을 지죠.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남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두가 제각기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멋지게 싸을 필요는 있겠지만 멋지지 않게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싸우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런 소리도 없을 테죠. 돈도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하면 돈이 엉뚱나게 엄청 생기는 수도 있죠. 그러니깐 물질이라 할지라도 말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생각할 줄 안다는 얘깁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질문자 1: 감사합니다. 저 개인 행동까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 탓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런가 하고 탓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살아가는 생활 태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께서 법문 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멋진 말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모든 일 처리는 원하는 데로 부처님께서 할 테니까 실질적인 처리는 몸뚱이가 뛰어다니면서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관을 하고 편하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관하고 편하게 살다보면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게을러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짐승들도 배가 고파야 사냥하기 위해서 뛰고 또 위험이 닥쳐야 됩니다. 주인공에 맡겨 놓았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요.

▲스님: 여러분은 편안하게 사시라 하면은 몸이 편안한 거를 생각하시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아무리 뛰어도 편안치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많이 해도 군색함이 없고 편안합니다. 그러고 또 '이걸 해야지' 하고 하는 일은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니깐 모두 일하고 밥 먹고 똥누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똥 못 눠도 안 편합니다 그거. 그러니깐 마음도 편안하거니와 변소에 가도 시원하니 모두가 좋은 거 아닙니까. 소화 잘 되니 좋고. 모두가 좋은 거니까 편안한 생각을 하시고 편안한 일이 닥치게끔 하고 내가 부지런히 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편안하다는 얘깁니다. 하하하. 몸이 편안한 것을 말하지 마시고, 하루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먹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림 · 최주현

남을 해롭게 하면 마음 오그라드니
마음 구기지 말고 펼쳐 좋게 사세요

말 · 행동 앞서 관하라

▲질문자 1: 감사합니다. 옳은 쪽으로 올바르게만 한다면 한생각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정진해서 한생각으로 다 끝나겠습니다.

▲스님: 그래서 어떤 땐 내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을 안해요. 내일, 모레 할 건데도 오늘 그냥 한생각으로 뭉그러뜨려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죽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걱정하고 잡숫지 마세요. 그저 편안히 잡수면, 먹을 게 없다고 한 말 가지고 요걸 어떡하나 하고 잡수시면 만날 한말이 되다가 닷되가 되고 한 되가 되고 이래요. 그렇지만 걱정없이 관하시고 사신다면은 한가마가 생겨요. 그렇게 사세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몸도 너그러워지고 몸이 너그러워지면 가정도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자꾸 자기가 자기를 못 견디게 굴면 못 견딜 일이 자꾸 생겨요. 정말입니다. 정말 오늘 살림살이에서 필요한 것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말해 드렸는지 못해 드렸는지, 그저 제가 사는 것대로만 해 드린 겁니다.

▲질문자 2: 제가 마음공부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발심을 내서 열심히 마음공부를 할 때는 매사에 무엇이든지 관을 먼저 하고 말과 행동을 했는데 어느 한 순간 말과 행동이 한 발 앞서 나가고 관하는 게 뒤에 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공부가 아직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찍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스님: 간단하게 말을 해서, 어린아이가 길에서 뛰다가 탁 넘어지면 엄마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엄마를 항상 불렀기 때문에 엄마를 부르면서 웁니다. 그거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건 관하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게 정신계의 진짜 자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자기한테 관하지 누구한테 관합니까. 관하고서 해야지 순서가 맞죠. 그렇게 하면서 뛰어도 뛰고, 일도 하고, 막힌 데를 뚫어 놓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만이 막혔던 데를 뚫고 막아야 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질문자 3: 저는 한 20년 전에 스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20년 후에 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제 질문의 답이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미진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을 보면 눈만 봐도 전이가 되고 그 업기가 느껴지고 몸이 괴롭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 수행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시주물을 받아도 그 파장이 너무나 크게 미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지 궁금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마음

▲스님: 그건 스님의 생각이 딱 비어야 될텐데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마음은 이름만 마음이라고 말할 뿐이지 아주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니까 상대방 눈만 봐도 벌써 뭐가 오고 같이 앉았어도 뭐가 오고 그러죠. 그것은 스님을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공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도 삶이 없이 산다. 먹어도 먹는 사이가 없이 먹는다. 내가 한 게 뭐 있나. 앞으로도 한다고 할 것이 없다. 산다고 할 것도 없다. 공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데 뭐가 살아 있나 한다면 그냥 그릇이 탁 비어져 버리고 모습만 가지고 다니는데 뭐가 거기에 들어올 니까? 들어올 건덕지가 있어야 들어오죠. 그러면 오히려 그 쪽의 눈도 보이지 않죠. 정말 눈을 보려면 법안으로 보거나 심안으로 보거나 불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도 좋아지고 스님은 더 좋아지죠. 스님은 없으니까 그냥 없이 사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별의 별걸 다 먹었어도 먹은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 3: 이치로는 제가 아주 시원한 맛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마음요전을 읽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늘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스님: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얼토당토않게 말을 하더라도 그냥 믿고 끈기 있게 가 보세요. 그러면 스님은 붕 뜨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이 모두가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구로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비구니로 산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비구가 죽어서 비구니가 됐고 비구니가 죽어서 비구가 됐으니까요. 어느때 비구, 비구니스님들이 서로 만났는데 "예전에 내가 비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랬죠." "내가 예전에 비구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없구나'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예전의 은사스님 재를 지내야 할텐데 우리가 가서 은사, 제자가 없이 아예 확 터지게 하자고 그러니까 전자에 살았던 비구니, 비구들이 같이 모여서 갔는데 은사스님이 대들보에 숨어 있더랍니다. 구렁이가 돼서 숨어 있는데 "저 비구니 아무개하고 비구 아무개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래도 그 소리는 알아듣고 머리를 내밀어요. 큰 자백이에다 흰죽을 쒀서 갔다 놓고 부르니까는 내다보고 "아무개 제자야?" 그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깐 "인제는 제 앞에 와서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면서 고개를 내미는데 그냥 확 잡아당기니까 그 흰죽 담긴 자백이에 그냥 빠져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날부터 그 이웃에 태어나서 다시 그 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흰죽 바가지에 쑥 들어가서 죽었으니 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자가 돼 가지고 성불을 하고 나중에 만나니까 서로 산생각을 하고 빰을 비비면서 "아무 것도 없는, 둘 아닌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애썼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불을 확 올리면서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더랍니다. 그래서 둘이 다 화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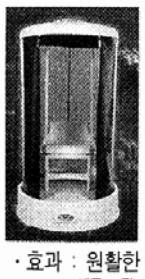
옛날에 사람들이 뒷덜미를 잡고 이런 거지도 다 있다고 하면서 팽개쳤어도 그 사람을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항상 거짓으로 살지 마시고 옳고 진실하게, 요만한 거라도 진실하게 하시면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부처님 성전에서, 도리천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깐 여러분도 항상 마음을 구기지 마시고 펼쳐서 좋게 하시고 사세요. 편안하게, 남을 해롭게 한다면 자연적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나도 오그라들고 남도 오그라트리고요. 그러니깐 새해에는 좀 더 넓히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으르시기도 하고 좀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001년 1월 7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 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불교전문 쇼핑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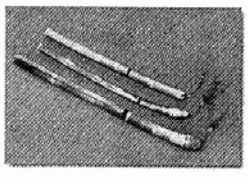
●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90cm×172cm
· 중량 : 본체 - 32kg 의자 - 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 칼로리 소모 촉진.

● 참선명상방석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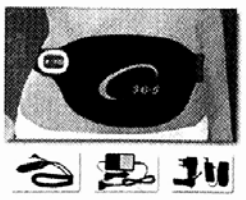
●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 죽 비

뿌리죽비(대)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大, 뿌리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108 나한단주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玉(옥) 건강벨트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 Dr.반다시(의자용)방석

할인가격 : 25,000원 (※정상가 : 35,000원)
· 2001년 신학기 30% 특별할인상품
· 반다시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새로운 차원의 의자용 방석입니다.

● 갈대 5인다기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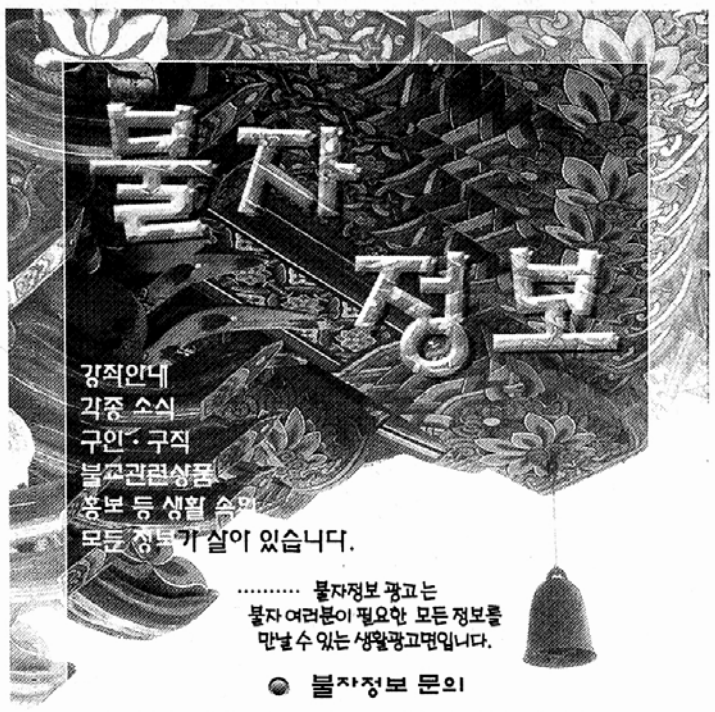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겉모습의 화려한것보다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단아한 형태입니다.
· 가격 : 80,000원

● 갈대 쥬스 잔세트

· 흰색바탕에 갈대문양의 이미지는 순백의 이미지에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형태 그자체입니다.
· 가격 : 22,000원

● 연꽃 불자시계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 119,000원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 (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기도·공부·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 (주)
의욕적이고 참신한 사고를 가진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시간 : 오전 10시~오후 17시
자 격 : 고졸이상
연 령 : 35-55세
전 화 : 02) 3434-0447
02) 3434-0481

사창과 자비의 씨을 손누치에!
- ▣ 법문 테이프를 깔끔한 책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 ▣ 수행담이나 신비 체험,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취재 후 책자로 꾸며드립니다.
- ▣ 출판 편집 대행

밝은 맘터
031)914-9152/016)353-9152

易學 강좌
개 강 : 2月12日月요일 오후 5시 30分 (중간 입학동 가능함)
과 목 : 사주학 전문코스 (통변 및 구성원리위주)
기 간 : 10개월간(매주月火木水)金요일은 특강반 청강도 가능함
자 격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음
※ 易學은 바로 자연과 후에 미래학이며 또 공식으로도 증명하여 주고 있으며 이 학문을 통한 自我發見과더불어 각자의 작일과 능력을 알아 行하고 또 修養의 학문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최고의 학문 임
※ 지방분을 위하여 테일도 배포하고 있음
주 관 : 檀園의 집 (단원 선생 직강) 30년 강의
문 의 : ☎ 02) 2275-7114 Fax : 2272-5989

신년운세 / 소원성취 비법
후巳年 한가지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분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가진 엄청난 비법)
◈ 신규사업, 삼재예방, 관재구설, 부부화합
◈ 결혼성취, 학업성취, 시험합격, 사고예방
감정료 1인 2만원(감정료 후불) 3일이내 상세한 감정서를 받아 볼 수있습니다.
053) 982-4976 지 장 선 원

탈 종 공 고
경북 군위군 소보면 진계리 318번지
고 원 사
주지 지 안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한국 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 31

총무원 모집
▷ 30~40대 (남녀 불문)
▷ 숙식 가능한 자
▷ 컴퓨터 능숙자 (학력 불문)
경북 군위 인각사
054)383-3757
011)821-2346

生死는 무상하여 바람앞에 촛불인데
앞은 깜깜하고 올가미는 단단하며 벗어나 갈 길이 아득하네 이몸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기약할 수 없음이니 이제 해탈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뼈골이 바수어지고 나의 모든것 다버린들 두렵고 아쉬울 것이 무엇인가 승속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뜻이 투철하며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031) 584-2818
011) 272-6478 **恩 緣**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손발냉증·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80)752-9013

청운역리 학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역학 수강생 모집
- ■ 한치 오차도 없는 생활권 이론
- ■ 포교원 인생상담실, 철학관 운영 하실 분들께 자신있게 권합니다.
- 기초에서 전문과정까지 4개월
- 주 3일 강의, 오후 7~9시

02) 426-2182/011) 668-0429
명일동 5호선 굽은 다리역
지 장 사

주지스님 모십니다
기도하며 포교하실 비구, 노스님 연락부탁 드립니다.
조계종 스님
수원 근교 사찰
031)375-7083

40대초반 비구스님 입니다
사찰(암자)맡겨주실분
016)441-0097

佛舍廊 (불사랑)
(각종 불교용품 전국 도매)
직원모집
모집인원 : 男 약간명
나 이 : 25세~33세
※ 전국 출장 가능한 자
문의 011)9355-1328
031)858-8661

男 60세
- 사무직·종무직을 구하는 불자입니다.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17)655-85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새식구, 수원 근교사찰
(해외 성지순례 가능자 환영)
031)375-708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41)566-6301
011)9803-6301

서해 바닷가 사찰에서 거주하며 기도 할 보살 1명 구함
(55세 이하)
041)673-2333

부전스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행 자 모 집 영남불교대학·관음사(조계종)
www.TVbuddha.co.kr
- ▫ 우리나라 최대의 7층 대법당, 최첨단 시설
- ▫ 21C 세계불교를 이끌 의식있는 수행자 양성
- ▫ 노동보다는 수행과 교육위주 - 모든 지원
- ▫ 불교발전의 획기적 모델 / 한 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 행자 전용교육장 / 남·여 행자원(위탁교육가능)

대 구 (053) 474-8228 정규교리반, 통신반, 인터넷반 - 학생모집중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전스님도 행자도구함)
종무소 : 043)584-7764~5
주지실직통 : 043)584-7766
수행여건 좋음

구갑염주, 합장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108 염주 150,000원 고급가공, 케이스포함
·매듭합장주 30,000(10mm)
서울판매처 길상원 (02)722-4435 (조계사 앞)
지방 - 전화를 주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사)
02)444-2822
017)208-2822, 018)293-282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 부지 : 230평
- 법당 : 11평 1동
- 요사체 : 방4칸(40평)1동, 주방 5평1동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1)488-3339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1동 1011-522
- 건물 : 2층 건물, 법당 1,2층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30만원
- 특징 : 각종 시설 완비

옥 천 사
051) 465-4848
011) 838-9296

사찰 안내
- 대구시내 3층 건물에 2층, 3층 (총96평)
- 법당 시설 A급-개금동불3존, 1급탱화 반야룡풍 1점, 고려대장경23권, 북, 법종
- 2층 - 법당, 방2, 부엌, 화장실, 사워장
- 3층 - 방2, 화장실, 사워장, 복도, 넓은마당
- 시설보증금 : 2천5백, 월 40만(조정없음)

053)255-66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전세 3천 시설비와 물품은 답사 후 절충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62)234-4705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읍면 건물 30평, 임법당 1개, 큰방 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700만원

033)763-973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전철역 부근)
- 평수 : 3층 건물의 2층, 45평 (법당, 방2, 주방)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1)258-1147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200평
- 임법당 : 4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 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4천 5백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암자 안내(급)
- 위치 : 경북 청도 북안 구룡산 자락
- 대지 : 17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2700만원 (절반가)

신도확보 놓치면 아까운 암자
011)813-3679 사찰정보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동
- 부지 : 대지 73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 후 결정
- 특징 : 법당 뒷 산 실평 120평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011)877-90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스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월 1,000 50만 월 2,000 30만
- 시설비 : 1,700만원

051)581-8652
011)9790-1779

사 찰 안 내

·위치 : 강원 원주	·위치 : 고양시	·위치 : 부산
·법당 : 12평	·총평 : 46평(포교당)	·법당 : 20평(포교당)
·요사 : 25평	·법당 : 21평	·요사 : 18평
·부지 : 204평	·가액 : 3000/80	·가액 : 1500/30
·가액 : 1억 2천		017-210-5527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개인 사찰 및 부지 매매 알선 (암자, 토굴, 포교당)
※ 사찰 신축 및 증축
- 토목공사, 도로개설, 조경
※ 납골당 조성, 인허가 업무
※ 부전 공양주 건강보조식품

◎ 전국 지원 모집 ◎
서울, 경기, 강원, 충천, 충청,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전주, 제주, 전국, 각, 시, 도, 단위
◎ 부산지원 011-554-9359
◎ 인천지원 011-702-3202
◎ 초보지 가능 철저한 영업지도

전국 사, 암, 토굴, 부지, 포교당, 양도하실 분 / 인수할 분 대기중이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포천군 이동 근교
- 부 지 : 25,000평
- 법 당 : 30평 (목조, 단청)
- 요 사 : 30평 (목조, 2동)
- 주지실 : 20평 (목조)
- ※ 시시시설 계곡 및 산세 좋은 관광 사찰 및 신도 단련 수련장으로 사용할 스님들 최적임
- 양도가 : 10억

- 위 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 지하철 10분 거리
- 대 지 : 120평 ● 법 당 (2층) : 40평
- 요 사 (1층) : 40평
- ※ 신말에 위치, 마을같집, 도심 포교당, 건물로 건축
- 양도가 : 3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최하가격으로)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33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부속건물 3동 기름보일러 욕실완비 사답 몇 마지기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7)552-7350
055)746-7350

지리산 천왕봉 주산 명당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관광특구
- 경관 : 산수비경, 풍수재격, 큰 폭포, 큰 계곡 옆
- 방향 : 남향, 동남향
- 용도 : 사찰지 종교시설, 토굴, 수행처소, 포교연수원
- 평수 : 1. 산 3166평 야전 551평 합 3717평 평당 3만원
  2. 준농림 야전 677평 평당 8만원

011)679-8480

사찰 (급) 안내
- 소재 : 대구 시내 중심가 (2층 3층 각 48평)
- 2층 : 법당1, 큰방 2, 부엌, 화장실, 사워장
- 2층 : 보증금 6백 (월 40만원)
- 시설비 : 1천 9백만원

3층은 별도 협의 - 큰방2, 화장실, 사워장 넓은마당있음
※ 특 : 2층 보증금 없이 (1년선세 840) 가능

053)255-662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사찰 부지(급)안내
- 충남 금산 진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준농림 9000평 (대지, 전, 답, 임야)
- 가액 : 3억 5천만원
- 상업적, 투기목적 매수 사양

011)826-6888

사찰 (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86-2680

사찰 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장섬)
- 평수 : 약 3,800평 중 (종교시설 용지로 400평이 허가필)
- 특징 : 뒷산이 좋고 물이 좋고 앞 바다가 접해 있음. 선착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 (관광지로 유명, 일주로도 접해 있음)
- 가액 : 6천 5백만원 (급한 사정으로 싸게 파는 것임)

017)557-9448

공양주 모십니다.
- 60세 미만 -
▷신림동 약수사◁
02) 877-7514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눈푸른 재가불자 키운다"

구미선산주지련 정우스님



"불자들에게 올바른 신행관을 확립시켜 불교,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도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암연합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전문 신도교육원을 개설하는 구미선산사원주지연합회 회장 정우(구미 금강사 주지)스님은 신도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지역불교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눈 밝은 재가불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초 구미시 송정동에 건평 100평 4층 규모의 구미불교문화교육원을 개원,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신도 입문교육, 기본교육, 지도자 교육 등에

어린이 · 청장년 포교도 강화

도리사 · 모례원 성역화 지원

나서는 스님은 구미시청불자회 구미불교거사림회 교사불자회 구미택시운전불자회 등 직장직능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법회 및 신행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법사(직지사강원 강사 세등스님 예정)를 위촉하는 등 재가불교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35만 구미 시민 가운데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출공단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린이 · 청소년법회와 대불련 대불청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 ·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우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훌륭한 강사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16개 회원 사찰들의 인적 · 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창립 4주년을 맞는 올해 안에 회원 사찰을 3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님은 이와 함께 구미시와 백용성조사유훈실현 후원회가 추진하는 신라불교 초전지인 도리사 및 모례원 성역화사업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신라불교 발상지인 구미시의 상징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구미시청불자회(회장 신영근 기획담당관)와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구미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무력화 시킨 바 있는 스님은 아직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선산 원각사 인근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한 사찰환경 훼손 등 지역 난개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우스님은 "지역민들의 최대 현안인 박대통령기념관 건립부지의 재선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한편, 신행단체와 협조해 불교행사를 자주 개최하고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도 강화해 지역민들에 다가가는 불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미=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선무도대학 내년 개교

골굴사 25일 본관 준공식…전통무도 보급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오는 25일 선무도대학(http://golgulsa.com) 본관 준공식을 거행하고 골굴사를 중국의 소림사와 비견되는 한국 전통무도의 요람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2월 10일 착공된 선무도대학은 총 8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378평에 1층 수련관, 2층 강의실, 3층 교수연구실과 명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교 뒤편에 2억원을 들여 야외수련장이 건립 중에 있으며, 12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400평 지상 4층의 기숙사도 대학 준공식에 맞춰 착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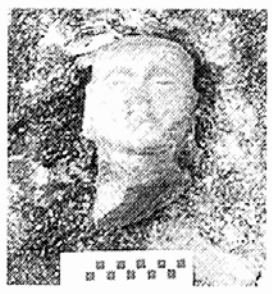
내년도 개교에 앞서 전국의 선무도 수련생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선무도대학은 선무도의 수행과 전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특수대학원 인가를 얻어 5학기제의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무도의 실천수행을 바탕으로 불교학과, 체육학과, 불교학과 한의학을 접목한 선기공의학, 외국어과, 무용 · 판소리 · 악기 · 서예 · 다도 등 한국전통문화과를 기본교과 이수과정으로 한다.(054)744-1689

최기범 경주지사장

용천사지서 '불두' 출토

고려중기 나한상 추정

서해最古사찰 규명 단서



8세기 중엽에 창건, 서해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구전되어 온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의 창건시기를 입증할 만한 불두(佛頭) 등이 출토됐다.

용천사 시 · 발굴 조사연구단(단장 이태호 전남대박물관장)은 1월 31일 현장에서 중간발표회를 갖고 대웅전 뒤편 평지에서 출토된 가로 12㎝, 세로 17㎝ 크기의 나한상으로 보이는 불상 머리와 다수의 기와 · 도자기 조각 등을 공개했다.<사진>

고려 중엽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청자 유약을 발라 만든 이 불두는 서남해 지역에서는 최초로 발굴된 것으로 타 지역에서 발굴된 불두와는 크기가 훨씬 커 고려시대 당시 용천사가 전국 주요 사찰중 하나였음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함평군과 조사연구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4억원을 투입, 용천사 주변 4천843㎡에 대한 조사를 펼쳐 정비복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천성사 문화재 훼손 방치

석탑 기울고 대웅전 무너져

도유형문화재인 경북 봉화 천성사(주지 진균) 석조여래입상(제134호)과 삼층석탑(제133호)이 당국의 무관심으로 훼손위기에 처해 있다.

아미타부처님은 나말여초, 삼층석탑은 고려시대에 조성된 성보문화재이지만 석조여래입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의 좌측과 뒤편 처마와 지붕이 붕괴되어 비 · 바람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형편이다. 삼층석탑 역시 한 편으로 기울어져 있어 파손이 우려된다.

천성사 주지 진균스님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문화재 보호 보존 차원에서 지원이 거의 없다"며 문화재 정책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경북도청과 봉화군의 담당기관은 빠른 시일에 천성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금강정사 전법횃불 "더높이"

10돌 맞아 대웅전 건립… 복지원 추진



도심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 온 금강정사(주지 지홍)가 1월 28일 각화사 주지 혜담스님, 백재현 광명시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사진>를 갖고 복지원 건립불사를 발원하는 등 '제2의 전법'을 선언하고 나섰다.

1월15일 광명시 소하동 1,100평의 대지에 대웅전 및 요사채 준공을 완료한 금강정사는 복지원 건립도 추진, 광명지역의 포교전당을 갖추는 동시에 노인들을 위한 불교복지도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91년 1월 27일 하안동에 100평 규모의 포교당으로 시작한 금강정사는 개원과 동시에 어린이 · 학생 · 청년 · 거사 · 일반법회를 활성화 시켜 많은 불교 일꾼을 양성했다. 지역별 조직으로 6개 구법회 16개 법등모임을 구성, 매월 가정에서 법회를 보는 독특한 포교방법으로 광명시의 대표적인 도심 사찰로 성장했다.

특히 신도회를 비롯, 각 법등회 및 청년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사찰운영회의를 통해 사찰 재정의 공개와 투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93년부터는 금강문화교육원과 도서실을 개설해 신도 기본교육과 경전 읽기, 참선수행,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문화 ·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했다. 91년 4월 창간한 〈금강법보〉는 이달 100호를 맞을 때까지 활발한 문서포교도 벌여왔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한암문도 도제양성 연수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와 오대산 한암문도회(회장 인허)는 10~11일 월정사 서별당에서 도제양성 연수회를 개최한다. 1990년 이후 수계한 본말사 소속 스님들은 한암 · 탄허 선사의 행장, 만화 선사의 월정사 중창 원력 등에 대해 연찬한다.

주지선출 산중총회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의정)는 12일 오후 1시 봉선사 청풍루에서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소집한다. 입후보자의 자격은 승랍 25년 세랍 45세 이상,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이 경과한 당해 교구 재적승 등이다.

태고종

불우 이웃돕기 실천운동

총무원은 1월 18일 사회복지법인 성남 자광원을 위로 방문하고 송종연 총무원장스님을 비롯 종무원들이 모은 성금 1,633,000원 상당의 위문품(백미 · 난방용 등유 · 과일 · 음료수 · 빵 등)을 전달했다.

종단은 오는 28일까지를 '설날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자비보시행 실천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종단 산하 19개 교구종무원과 2천6백여 사찰별로 쌀과 성금, 물품을 모아 각 언론기관에 기탁하거나 해당지역 고아원과 양로원, 노숙자 합숙소 등을 위문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혜성 종무원장 취임

제10대 지혜성 강원 종무원장 취임법회가 19일 오후 2시 춘천 정토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취임법회는 영산재보존회 어산종장스님들의 집전으로 전통진산의식으로 진행되며 종연 태고종 총무원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다.

진각종

회당 100주년 홈페이지

진각종조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hoedang.or.kr)가 공식 개봉됐다. 이 홈페이지에는 회당대종사의 생애를 비롯 사업회의 각종 소식을 담고 있으며, 사업 소개, 기획코너를 비롯 진각종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청년회장 오흥수씨

진각종 서울청년회 제30대 회장에 오흥수씨가 선출됐다. 서울청년회는 1월 28일 신촌심인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진기 54년 사업 및 결산보고를 하고, 부회장에는 장우영(탑주심인당), 김소영(행원심인당)씨를 선출했다.

총화종

대보름 맞이 방생법회

총무원(원장 남정)은 정월 대보름맞이 방생법회를 7일 남이섬에서 갖는다. 총무원장 남정스님을 비롯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2백여명이 동참하는 이날 방생법회는 환경방생을 지향, 남이섬에 있는 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조류방생을 실시한다. (031)592-8891

총지종

혜암 통리원장 취임



제12대 통리원장으로 선출된 혜암종사<사진>의 취임식이 15일 오후 2시 총지종 본산 강남 총지사에서 개최된다. 이날 총지회 前 통리원장의 이임식과 각 부장들의 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02)552-1080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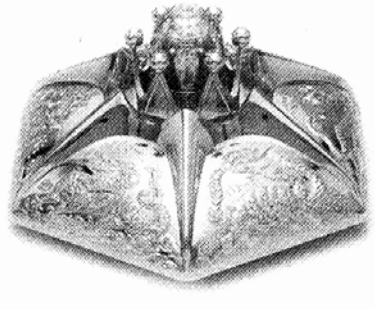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육기방 수호신장 (六氣方 守護神將)◆

좌청룡(靑龍) : 천하 4방중에 좌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좌청룡이라 불리워진다. 풍수의 학설에 따르면 청룡에서 발생되는 생기(生氣)는 자손 번창의 기운, 권력과 지도자의 기운, 재산의 기운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
우백호(白虎) : 천하 4방중에 우측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우백호라 불리워진다. 우백호의 기세에는 부자가 나오고 훌륭한 여성이 많이 배출되는데, 딸과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청룡이 남성이라면 백호는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남주작(朱作) : 천하 4방중에 남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남주작이라고 불리워진다. 주작의 기세에서는 큰 재산을 모으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다. 주작은 현무와 대칭되는 관계에 있다.

기(氣)란 : 현실이다



북현무(玄武) : 천하 4방중에 북쪽을 담당하는 신으로써 북현무라 불리워진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사신사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현무는 한 집안이나 개인에게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주는 생기를 갖고 있어, 현무의 지세가 좋은 지역에서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 배출된다. 현무의 기운은 주작의 기운과 대칭된다.
천하(天下)대장 : 천하의 신(神)을 관장하고
지하(地下)대장 : 지하의 신(神)을 관장한다.
마을마다 장승이 세워진 뜻은 여기에 있다.
※ 주지스님 찬견 후에 제품을 공급 받으십시요.

명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법칙을 어기지말라◆

◆사용처◆ 가정집, 공부방, 자동차, 공장, 사무실, 가게, 묘지,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구입처◆ 사찰, 암자, 철악관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 051)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있으므로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기운, 재산의 번창,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불련 환경모임 부산 문화재모임 완도 사랑모임

"문화재·환경 불자가 지킨다"

3월경 범불교 환경단체 발족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자와 시민들이 나섰다. 이런 흐름을 타고 3월경에는 출·재가를 망라한 범불교 환경단체도 창립된다.

최근 환경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선 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위원회, '부산의 문화재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송광사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 등.

1일 미아5동 자비의 집에서 발족한 경불련 환경위원회(위원장 정혜옥)는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벌인다.<관련인터뷰 4면>

경불련이 지난 12월 1달간 개최한 '어머니 환경교실'을 수료한 주부불자 37명을 주축으로 출범한 이 환경모임은 사찰에 꽃·나무 심기, 양초 재생,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생활 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해나간다. 매달 첫째 목요일 환경강좌를 열고 사찰 신도들을 중심으로 환경교육도 실시, 회원을 점차 늘여나가며 보살 중심의 환경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02)3147-2600

부산의 스님과 고고학·역사학·도시공학·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은 지난 1월11일 '부산의 문화재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위원장·해원 해인종종정 스님 등 6명)을 결성했다.

청연 스님(산을사랑하는시민연합 공동대표)이 총괄사무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부산시의 도시개발정책 결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사단법인을 추진, 부산시 전체 문화유산 및 환경훼손 실태조사와 시민의식 교육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051)466-2944.

완도 신흥사(주지 법일) 신도들로 구성된 '완도를 사랑하는 모임' (공동회장 김동관·김주)은 지난 1월 7일 대신리 바닷가 갯벌청소를 시작으로 지역 환경파수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동관회장은 "청해진 바닷가에 나아가 청소도 하며, 탐욕으로 물든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크나큰 원력을 세우는 불자가 되자는 것이 모임의 창립 취지"라고 말했다. (061)554-2634

이같은 자생적인 환경모임들은 전문 환경단체와는 달리 지역사회와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통해 실질적인 생태계 복원과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한편 출·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불교 환경운동단체의 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 범불교연대가 주축이 되어 3월경 발족할 예정인 이 불교환경단체는 환경운동이념에 가장 적합한 불교적 이념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리산살리기 운동으로 가능성을 보인 불교환경운동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경불련 어머니환경위원회는 1일 발족식을 갖고 보살위주의 작은 환경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달려라 '봉축열차'

서울지하철 5호선 4~5월 운행

종단협등 적극추진

부처님오신날 봉축열차 달릴 수 있을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하철 5호선 1개 열차(8량)를 (가칭)봉축열차로 꾸며 운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봉축열차는 전동차 8량 외관을 전통 문화와 현대적 불교이미지가 어우러지게 꾸밀 계획이다. 또한 전동차 내부 4량에는 팔만대장경 전시, 미아찾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교를 체험하고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봉축열차 단장에는 연꽃 예술가 정명스님을 비롯해 불자 설치미술가 홍현숙, 안성금, 김인경, 양주혜씨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20일 열리는 총회에서 봉축열차를 운행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청각장애인 운전비디오 제작

연화복지학원, 무료대여

청각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기란 정상인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이상 어려운 일. 운전면허학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지만, 다닌다 하더라도 말못하고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강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원장 해성)이 청각장애인들의 운전기능교육을 돕기 위한 교육용 비디오를 내놓았다.

이 비디오는 연화복지학원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운전교습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김승호씨가 코스를 따라가며 수화로 설명하고, 이와 동시에 자막과 음성설명도 곁들여 놓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두 300부가 제작된 비디오는 전국의 농아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100여곳에 이미 배포됐으며, 비디오를 신청한 청각장애인에게는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무료로 대여한다.

한편 연화복지학원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단체로 선정돼 올해 안으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론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다. (02)2202-5831

한명우 기자



◇진각종은 2일 인도대사관에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인도 지진참사 종단 등 구호 잇달아

교계 종단과 단체가 지난달 발생한 인도 지진참사 구호에 나섰다.

조계종은 2일 종무회의를 통해 인도대사관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보름법회(7일)에서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하도록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했다.

진각종도 같은날 인도대사관을 방문해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총지종도 5일 성금을 모아 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천태종 관문사는 4일부터 9일까지 성금을 모아 인도대사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JTS는 사고직후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현지에서 긴급구조단을 파견했다.

한명우 기자

금정사·선원사 호랑나비 날다

번데기로 겨울을 나는 호랑나비가 지난 1월7일 안성 금정사(주지 보성)로 날아든데 이어, 1월 10일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에도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다.

1월7일 금정사 대웅전 및 삼성각, 종각 낙성식을 기해 날아든 호랑나비는 2월 현재까지 대웅전 불상 또는 천정에 붙어있다.<사진>금정사 주지 보성스님은 "때마침 낙성식을 기해 나타나 신도들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사 신도들도 호랑나비의 등장으로 선원사지 복원불사가 원만성취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재경 기자



일부 사찰약수터 '부적합'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00년 4/4분기 부적합 약수터에 사찰 인근의 약수터가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각 해당구청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찰 약수터는 중랑구의 성덕사·극락사, 노원구 학도암, 은평구 수국사, 강북구 성불사·백련사 등지의 약수터로, 이들 약수터에서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명우 기자

가슴 찡한 이야기

'아름다운 넋 정수사서 쉬다'

일본열도 울린 이수현 불자



1월 26일 일본 도쿄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故 이수현(26)씨의 유해가 1월 30일 오후 부산의 정수사(주지 원광)에 안치됐다.

이씨의 유해는 공항에서 노제를 지내고 곧바로 연산동의 집을 거쳐 정수사 설법전에 안치됨으로써 신심 깊은 불자인 부모님과 함께 내성고등학교 재학당시부터 다니던 정수사로 아름다운 넋이 되어 돌아왔다.

이날 진행된 반혼제에서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설동근 부산교육감,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일본대리대사 등 각계 인사들이 헌화로 고인의 명복의 빌었다.

정수사는 2월 1일 49재 초재를 입재, 49일 동안 고인의 명복을 비는 49재 의식을 봉행하게 된다.

천미희 기자

"죽기전 얼굴한번 봤으면…"

북에 맏딸 생존 102세 최우성할머니



"맏딸이 살아있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1월 3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보각사. 북한 적십자회로부터 넘겨받은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결과 북측 회보서'에 맏딸 박순옥(61)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최우성 할머니(102)는 눈을 감은 채 말없이 합장했다.

최할머니가 55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남편 박학재씨, 맏딸 순옥씨와 헤어진 것은 51년 1·4 후퇴때. 전쟁이 끝나자 최할머니는 삯바느질부터 시작해 동대문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해오다 95년 그동안 모은 전재산으로 절을 지어 회사했다. 이곳 보각사에서 기거하며 남편과 딸의 안녕을 기원해 온 지도 벌써 6년째.

"죽기 전에 우리 딸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합장한 할머니는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3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이달 26일 딸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사 올내 우정국로 쪽 일주문 세운다

지난해 말부터 일주문 불사를 벌여온 조계사는 최근 일주문을 우정국로쪽에 건립키로 결정하고 올해말까지 우정국로쪽의 부지를 사들여 계획을 진행키로 했다.

일주문 건립은 조계사가 한국의 대표적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출입문만 있어 사찰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찰의 위상과 미관에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서울시의 옛 우정총국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사찰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삼전복지관 '최우수'

서울시 84개시설 평가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각우)이 서울시와 한국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서울시 복지관 평가에서 '2000년 서울시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됐다.

84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한달간 관리운영,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이번 평가에서 삼전복지관은 주민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용자 만족도, 친절도, 효과성, 적합성, 공평성, 접근성 등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삼전복지관 노숙자시설인 '길상희망의 집'도 2000년 서울시 선정 우수희망의 집으로 선정됐다.

한명우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이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零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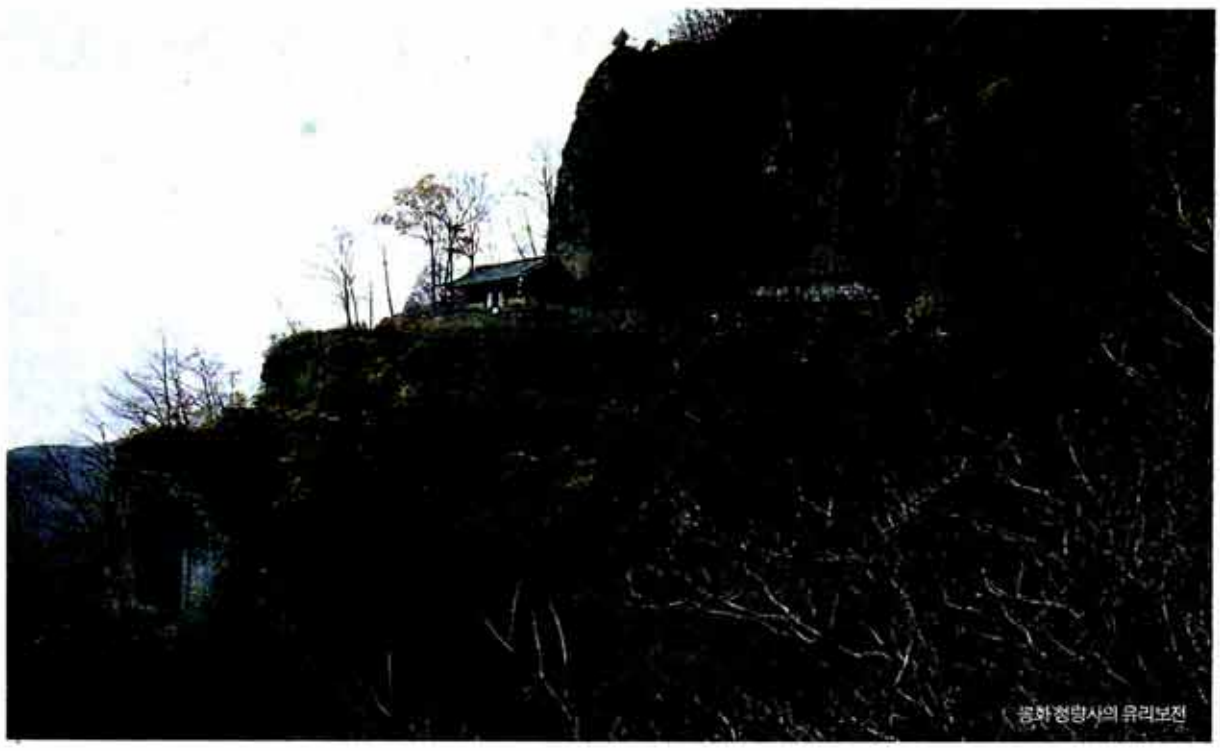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사바 벗어난 절…삶 비추는 거울

감성으로 보는 절

<2>절이 산으로 간 까닭

신령한 기운 감도는
고요한 산사 풍경소리
홀연히 인생의 의미
깨우쳐주는 생명수

나는, 절은 산과 집이 자연 속에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참 맛을 느끼고, 습기를 깨닫게 된다고 믿는다. 산과 절의 농임새, 짜임새, 감동적인 절은 그 습기가 절절히 넘치고 있는 것이다.

그 날, 그 절은 그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다. 산길, 돌길을 수없이 굽이치며 산사를 찾아가는 길은 험하고 힘에 벅찬 것이었다. 나무숲 속으로 난, 때론 실길로, 때론 길 같지 않은 돌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산길은 무성한 나뭇잎과 꽃의 향기가 산기(山氣)와 어우러져 마치 내가 산신령이 된 것 같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동스런 오케스트라가 나를 산 속에 파묻고 마는 것이었다. 큰 바위, 작은 바위에 높게 낮게 부딪치며, 빠르게 느리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숨이 헉헉거려 잠시 발길을 멈추고 쉬면,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그 상쾌함이란! 맞아, 이래서 산신령은 늙어도 죽질 않는구먼!

그러면서 올라간 산 위에 숨죽여 다소곳이 앉아있는 산사의 적묵당(오, 적묵이라니!), 뱃마루에 걸터앉아 그야말로 적막고요를 음미하고 있었다.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소리가 싱그럽게, 그리고 고즈넉이이런 곳은 풍경소리도 어찌 그리 얌전할꼬? 앞마당을 너울거렸다. 그때, 내 곁에 앉아있던 젊은 목사 한 분이 나에게 은근히 귓속말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풍경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인생의 삶이 한 순간으로 모여들고, 홀연히 삶이 깨우쳐와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 떠오르거든요(역시 젊은 사람!). 나도 더불어 깨우친다. 그래, 깨우침이란 이런 거야. 헌데, 목사가 절의 풍경소리에 깨우친다? 혹 스님 될 분이 잘못해서 목사 된 것 아냐? 하긴, 그 목사도 스스로 그런 자책감(?) 때문에 자신없이(?) 나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듯 말했겠지. 그러나 목사가 꼭 성경에서만 깨우쳐야 한다는 직선논리가 이런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하고, 의식의 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나는 삶의 현장성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삶의 리얼리티,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내 소신이다. 삶의 리얼리티는 어느 한 순간에 집적되어, 우리에게 실존으로 자각되는데, 그것을 그 젊은 목사는 산사의 풍경소리에서 체험한 것이다. 헌데, 왜 하필이면 산사의 풍경소리일까? 항상 삶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에 대한 체험이 늘 안으로 축적된다. 그 축적된 삶의 리얼리티는 안으로 안으로 부풀어 있다가 어느 때, 조금만 건드려도 씨앗을 터트리고야 마는 봉선화처럼, 산사의 풍경소리든 물소리든, 바람소리든, 삶의 리얼리티의 꽃씨를 기어코 터트리는 것이다. 그런 게 오도(悟道)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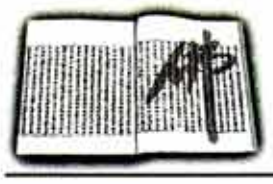
삶의 현장, 그것을 불교에선 고해라 했는가? 고해를 벗어난 적막강산 그것은 곧 우리의 내면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다. 말하자면, 산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명경대가 있는 것이다. 세속 속의 삶을 객관화시켜 실존적 자각을 하게 하는, 신비의 거울이 그 곳에 있는 것이다.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삶의 깨우침이 있는 곳, 그것은 역시 산사였다. 그러므로 교회와 산사는 곧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산은 참 신령한 곳이다. 옛 우리네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요즘은 서양물이 들어서 정복(등산)하는 맛(?)으로 산을 가지만, 옛 우리네는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는, 삶의 한 부분이 산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네는 산을 영기(靈氣)가 가득 찬 곳으로 믿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산에 숨어 있는 절은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약수이고, 약초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산소라 할까.

언젠가 나는,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왔던 산사를, 사진을 같이 공부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다시 간 적이 있다. '감동적인 절'이라고 하면, 대개 불전이 그럴듯하고, 국보나 보물이 몇 개쯤은 있는, 그런 절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오해다. 솔직히 난 절을 건축양식이나 무슨 문화재 같은 것으로는 잘 볼 줄 모르고-그런 건 학자의 몫(?)- 또 그렇게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그런 '남의 안경' 끼고 보기는 딱 질색이다. 진짜 내 눈으로 절 보기에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 받는 절이란, 그런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관계없는, 오직 절다운 절만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이다.

전 생<사진작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한글대장경 완간에 부쳐

불자 자긍심 심는 대불사

특별기고



송 석 구
동국대 총장

불교신행의 출발점은 귀의(歸依)입니다.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굴레 속에 갇힌 자기를 버리고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것이 불자들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향한 첫발이 삼보(三寶)에 대한 귀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보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마저 겸허하게 귀의하지 않은 채 중생고(衆生苦)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성불위한 기쁜 소식

이미 부처님의 법은 잘 설해져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수많은 부처님들이 밝혀 주신 법의 등불도 환하게 타오르고 있으며 역대 조사들이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기상으로 꿰뚫어 보이신 자성불(自性佛)의 진면목(眞面目) 또한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증(自證)하지 못하여 중생고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귀의하고자 해도 문자와 언어의 장애로 인해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經典)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로 그 숭고한 가르침을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고유문자를 가진 민족이라는 자부심마저 무색하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역경불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졌습니다. 동국역경원이 36년의 긴 세월동안 역진(力盡)해 온 〈한글대장경〉 불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읽고 귀의할 수 있는 길이 한글대장경으로 인해 열린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 있어 고려대장경의 조판에 버금가는 대작불사요,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이며 제중생(諸衆生)의 성불을 위한 기쁜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밝게 열린 길도 가지 않으면 암흑입니다. 서 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한글대장경〉도 법보(法寶)에 귀의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봉안하고 읽을 때 우리의 중생고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동국역경원과 현대불교신문사가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 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한글대장경〉을 통해 일체중생이 성불할 것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한글대장경〉을 사찰에 모신다면 불자들이 귀의할 법보가 여법히 구족될 것이며, 가정에 모신다면 항시 불보에 귀의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온연중에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어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장경각'은 신앙성과 장엄미에 실용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법히 살아가는 힘

사찰과 가정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존귀한 가르침이 생생히 담겨 있는 〈한글대장경〉을 장엄스러운 장경각에 봉안한다면 그 인연공덕은 반드시 깨달음의 대자유로 현현(顯現)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제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한글대장경〉과 '장경각'을 통해 무량선연(無量善緣)을 맺어 성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 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엠닷컴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있다.